금주의 법구-〈법구경〉
욕망의 숲을 자르고
욕망에서 벗어나라.
영원한 자유를 찾아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282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4년 음력 2월 3일) 2020년 2월 26일 수요일



대구 · 경북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가운데 불교계가 감염 예방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영축총림 통도사는 2월 19일부터 21일까지 전 경내에 방역을 시행했다. 사진은 통도사 금강계단을 방역하는 모습. 사진제공=영축총림 통도사

코로나19 유행 조짐… 불교계 예방 '총력전'

지역감염 확산에 조계종 · 지역불교 대응 전면 확대

신성민 · 하성미 기자

최근 대구 · 경북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대유행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불교계가 감염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조계종 총무원(원장 원행)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지역 확산 방지를 위해 긴급 대책과 지침을 마련해 전국 사찰에 긴급히 공지했다"고 2월 20일 밝혔다.

특히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대구 · 경북 사찰에는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향후 2주간 모든 법회 및 성지순례 · 교육 등 각종 행사와 모임을 자제할 것을 시달했으며, 대구 · 경북 지역 템플스테이 운영을 중단시켰다.

전국 사찰에 내린 긴급 조치를 통해서는 △법회 진행 시 집전 스님만 음성으로 하고 사부대중 마스크 착용 및 대중 간격 최대한 넓게 △주요 사찰 열감지 카메라, 체온계, 손세정제, 마스크 등 비치 △사찰 상주 대중 마스크 항시 착용 △사찰 내 청소 · 소독 강화 △사찰 방문객 등 위생수칙에 대한 교육과 홍보 강화 △성지순례 등 다녀온 스님과 직원들 2주간 한시적 업무 배제 등을 당부했다.

조계종 중앙종무기관은 출가열반재일 정진주간을 맞아 가정에서 정진하고 SNS로 인증하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며, 중앙종무기관 종무원 교육 또한 각 부서별 신행활동으로 대체키로 했다. 3월 6일 예정이었던 백만원력 제2차 경주 열암곡 마애부처님 기도법회도 잠정 연기한 상황이다.

이에 대구 · 경북을 비롯한 경상권 사찰들도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팔공총림 동화사는 경내 상주 대중부터 출입 대중 모두에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이를 신도들에게 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 도심 사찰들은 휴관 조치에 들어갔다.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는 2월 19일부터 전면 휴관에 들어갔으며, 불교대학 입학식도 취소했다. 대관음사 관계자는 "신도들에게 BTN, BBS에서 방영중인 회주 스님의 강의와 유튜브 강의를 시청하고 별도 숙제를 공지해 학습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면서 "초하루 · 보름법회도 스님들 기도로 대체하고 되도록 집에서 신행활동을 해줄 것을 당부중"이라고 밝혔다.

부산 · 경남권 사찰들도 감염 예방 대응에 분주하다. 영축총림 통도사는 2월 19일부터 21일까지 경내 전체 방역을 실시했으며, 경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독려하고 있다. 출가열반정진 주간에는 방사를 개방하지 않고 법회만 참석하도록 했다.

금정총림 범어사는 모든 행사와 법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모든 상주 대중에게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했다. 부산불교연합회는 3월 중 개최할 계획이었던 부산불교박람회를 취소하고 향후 협회 행사 개최에 대해서도 추이를 살펴보기로 했다.

한마음선원 대구 · 부산 · 울산지원도 경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하는 등 감염 예방에 나섰다. 대구와 부산지원은 정기법회와 초하루 법회를 중단하고 스님들의 기도로 대체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불교계의 조치에 "적절한 대응"이라고 평가하며 향후 2주간은 법회를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류재환 전국병원불자연합회장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지역감염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불교계가 시행한 조치들은 매우 적절하다"면서도 "춘절 휴가를 갔던 중국인 노동자와 학생들의 귀국이 이어지고 있고, 대구 · 경북 지역에서 감염자가 속출하고 있다. 앞으로 2주간이 중요하다. 되도록 2주간은 사찰 법회, 행사는 물론 개인 모임도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한 긴급 지침

- 염불은 집전 스님만 음성으로 하고, 대중은 마스크 착용한 상태로 암송
- 주요 사찰 열감지 카메라 또는 체온계, 손세정제, 마스크 등 비치
- 사찰 상주 대중들 마스크 착용
- 사찰 화장실 등에 손 세척제 등 비치
- 사찰 주요 공간 청소 · 소독 강화
- 중국 방문 스님과 종무원 14일간 한시적 업무 배제 및 격리 조치

(조계종 총무원 2월 20일 공지)

조계종, 전국에 긴급 지침 공지해
"법회 · 성지순례 자제하라" 시달
대구 · 경북 템플스테이 운영 중단

대관음사 등 교육 · 법회 축소하고
방송 · 유튜브 통한 가정 법회 유도
통도사 19~21일 경내 방역 조치
전문가 "적절 조치… 2주간 중요"

동국대 신임 이사장 성우 스님

제327회 이사회서 만장일치로… 상임이사 성월 스님 선임



동국대 제41대 이사장에 성우 스님〈사진〉이 선출됐다.

학교법인 동국대는 2월 18일 제327회 이사회를 열고 신임 이사장에 성우 스님을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성우 스님의 임기는 2023년 2월 28일까지다.

이사장 선출 직후 성우 스님은 "올해는 상당히 눈이 귀했는데 그제와 어제에 세상에 눈꽃이 활짝 피었다"면서 "하얗게 내린 눈꽃처럼 세상과 학교를 기쁘게 만드는 이사장이 될 것을 서원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본교 출신으로 항상 학교법인 동국대학교에 애정을 갖고 있었지만, 이번에 갑작스럽게 미력한 소납이 이사장의 소임을 맡게 된 것에 대하여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개교 114주년을 맞이하는 동국대를 비롯해 의료원, 유치원, 초중고 및 수익사업체에 이르기까지 산하 각 기관들의 실질적인 발전과 대내외적 위상 제고를 위해 한 치의 사심도 없이 오로지 공심으로 혼신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제41대 이사장으로 선출된 성우 스님은 1976년 금산사에서 월주 스님을 은사로 출가, 1981년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을 졸업했다. 동 대학원에서 석 · 박사 과정을 수료한 스님은 1993년 '법화경 방편품에 관한 연구(승사상을 중심으로)' 로 철학박사를 취득했다.

스님은 1985년 군종법사 공군대위로 전역했으며 익산 관음사 주지, 군산 은적사 주지, 군산교도소 종교위원, 제14 · 15대 중앙종회의원 등을 역임했다. 현재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 제17교구 본사 금산사 주지, (사)세계종교평화협의회 회장, 사회복지법인 조계종 나눔의 집 이사, 동국대 석림동문회장 등을 맡고 있다.

이와 함께 상임이사로는 성월 스님이 선임됐다. 이사장을 보좌하며 법인 행정을 총괄하는 상임이사로 선임된 성월 스님은 앞으로 법인에 상근하며 법인과 학교 행정을 책임질 것으로 보인다.

상임이사로 선임된 성월 스님은 정대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으며, 1977년 범어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79년 봉선사에서 월운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총무원 재무부장과 제2교구본사 용주사 주지, 중앙종회의원(13~15대), 동국대 감사 등을 역임했다. 신성민 기자

현대불교신문 사장 후보 추천 공모

『현대불교신문사』는 불교의 생활화, 현대화, 세계화를 구현하기 위한 미디어 경영적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최고 경영자를 모십니다.

□ 임 기 3년 (직무수행실적 등에 따라 1년 단위 연임 가능)
□ 자격요건
• 경영자로서 자질과 능력을 갖추고 경영혁신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자
• 세상과 소통, 공감하는 양질의 콘텐츠를 발굴할 식견과 덕망이 풍부한 자
• 국제감각과 미래 지향적 비전을 가진 자

□ 제출서류
• 지원서(지정양식, 홈페이지 공고서 다운로드) 1부
• 자기소개서(경력 및 업적 중심, A4용지 4매 내외) 1부
• 경영계획서(후보자 본인의 의사를 기초로 작성해야함, A4용지 6매 내외) 1부
• 지원서 기재 학사 이상 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및 관련 자격증 사본 각 1부

□ 제출기간 등
• 제출기간 : 3월 5일까지
• 제출방법 : 등기우편, 이메일(조혜도: wiseway3@hanmail.net)
* 응모 접수는 제출 기한내 도착분에 한함
• 제 출 처 : 서울 종로구 율곡로6길 36 606호(운니동 월드오피스텔)
□ 기 타
• 응모는 본인 이외에 추천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현대불교신문사(☎02-2004-8204)로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www.hyunbul.com/main/)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2월 19일 현대불교신문사

대행선연구원
불교학술 진흥사업 안내

(재)한마음선원 부설 대행선연구원에서는 대행 큰스님의 가르침과 행화를 따르고 선양하고자 대행선 및 불교 사상 전반에 걸쳐 새로운 지평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본 연구원은 한국불교의 미래를 위해서 연구자들에게 학술지원을 하기 위해 불교학술 진흥사업을 진행합니다. 우리나라 불교학의 발전을 위하여 선학 또는 불교학 관련 연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문의 및 서류 제출처
▶ 모든 서류는 E-mail로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www.daehaeng.org
▶ **E-mail** : ds7788@hanmaum.org
▶ **전화** 031)470-3276, 3277
▶ **주소** (13908)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282 대행선연구원

제3회 묘공학술상 공모
●**공모분야** : 대행선 또는 불교 관련 역사, 사상, 수행, 문화, 포교, 계율 등 불교관련 모든 분야
●**응모자격** : 박사학위 소지자 이상/제방의 선학 또는 불교학 관련 전문가
●**공모기간** : **3월1일 ~ 3월 31일**
●**선정분야** : 대 상 1명 / 1,000만원의 상금과 상패
우수상 2명 / 각 700만원의 상금과 상장
※ 단, 심사결과에 따라 적정한 논문이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도 있음
※ 공모신청방법과 일정은 대행선연구원 홈페이지를 참고

『한마음연구』 투고 논문 접수
●**분 야** : 대행선 또는 불교 관련 역사, 사상, 수행, 문화, 포교, 계율 등 불교관련 모든 분야
●**시 기** : 연중 어느 때나 투고 가능
●**자 격** : 박사과정 2학기 이상 수료자, 제방의 선학 또는 불교학 관련 전문가
●**원고료** : 400만원 (『한마음연구』게재 확정시)
※ 『한마음연구』 논문투고 요령 및 심사규정은 대행선연구원 홈페이지를 참고

제2회 묘공학술장학생 공모
●**공모분야** : 대행선, 불교교학, 불교사학, 응용불교, 불교문화 등 불교관련 모든 분야
●**응모자격** : 대학원 재학 또는 수료자로서 불교학 또는 대행선 관련 학위논문 작성 내지 연구논문을 작성하거나 연구하려는 사람
●**공모기간** : **3월 1일 ~ 3월 31일**
※ 공모신청방법과 일정은 대행선연구원 홈페이지를 참고

Weekly Focus

불교사회적경제 10년
사찰경제 · 포교 '열쇠'



사회적기업 중심 경제활동 불교계 新 성장 동력 잠재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2011년 정부 요청, 3대 종교 논의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각각 설립해
사찰음식 스님들 협동조합 만들어
수익성 · 사회 환원 방안 고민 나서
"불교계도 앞으로 활용법 고민해야"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 2013년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우리나라는 사회적경제 전환기를 맞았다. 그동안 1만 4000개 이상의 협동조합이 설립되고, 사회적기업은 2435개가 이름을 올리면서 매년 사회적경제 규모가 커지고 있다. 사회적기업의 전 단계인 예비사회적기업까지 포함하면 규모는 이보다 더욱 커진다.

사회적경제에 뛰어든 종교계

이런 가운데 최근 사찰음식전문가 스님들이 모여 협동조합을 설립해 눈길을 끈다. 스님들을 구성원으로 협동조합이 만들어진 건 불교계 최초 사례로 평가된다. 사찰음식전문가 동원 스님을 비롯한 6명의 비구니 스님들이 설립한 협동조합 '템플셰프'는 2월 18일 설립증이 발급돼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무엇보다 정관에 사회적기업 인증에 필요한 내용을 담아 수익창출과 그에 따른 대사회 환원을 주 가치로 삼는다. 이에 템플셰프는 도심에 작은 공간을 마련해 쉴 틈 없는 직장인들에게 사찰음식과 명상의 기회를 제공하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계획이다.

이처럼 2011년부터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힘을 쏟기 시작한 불교계는 10년이 흐른 지금 조금씩 결실을 맺고 있다. 특히 현재까지 50여 개의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이 설립돼 불교 고유의 정신을 바탕으로 대사회 활동을 펼치면서 선순환 경제 구축을 도모하고 있다.

종교계가 사회적경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배경은 정부의 적극적인 요청에 있다.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제정됐지만 당시에는 국민의 관심이 크게 쏠리지 않았다. 이에 청와대를 비롯한 중앙부처는 종교적 가치가 곧 대사회와 직결된다고 판단, 불교를 비롯한 개신교 · 천주교가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2011년 불교와 개신교가, 2012년 천주교가 사회적경제 지원단체를 조직하면서 힘을 불어넣었다.

불교계는 '사람과사회적경제 불교사회적경제지원본부'가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의 자립을 돕고 있다. 이 본부는 조계종 중앙신도회 산하단체로 출발해 불교신문사 부설기관 등을 거쳐 현재 독립된 비영리민간단체로 활동 중이다.

본부에 따르면 스님들이나 사찰 및 불교단체가 운영하거나 불교계 지원센터 지원을 받은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은 전국 약 50개로 알려졌다. 사업분야 또한 △도시락 제조 △간병지원 △문화재 △중장년 취업 컨설팅 △클래식 공연 △전통문화상품 △청소년 비행예방 교육 △농산물 등 다양하다.

불교계에 어떤 이점 갖나

사회적기업은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자본주의가 심화된 현대사회에서 대안경제로 꼽힌다. 기업이익금의 3분의 2를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점에서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각광 받았다. 또한 사회적기업은 '자율경영공시' 대상이어서 사회적 목적 실현과 경영상태 등을 공개하면, 각종 지원사업에서 가점을 받거나 우선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 즉 투명한 경영으로 대중의 신뢰를 쌓고, 그에 따른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셈이다.



2월 18일 협동조합 설립증을 발급받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템플셰프 스님들.

그렇다면 사찰경제를 형성하고 수익창출과 대사회적 가치 실현을 동시에 이루는데, 사회적경제 활동이 불교계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보시 문화가 줄어드는 불교계서 사회적경제 활동이 사찰의 자립을 돕고, 종교라는 틀을 넘어 포교할 수 있는 대안으로 내다봤다.

박주언 사람과사회적경제 센터장은 "사회적기업은 수익을 내는 것이 곧 사회 환원이기 때문에 사찰도 부담 없이 사업아이템을 발굴해 시작할 수 있다. 간단한 예로 사찰농산물을 판매하고, 해당 수익금을 지역청소년 장학금으로 쓰는 방법이 있다"며 "사찰이 수익을 낸다는 세간의 불편한 시선을 거두고, 종교색을 내세우지 않으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처럼 사회적경제 활동은 소비자의 소비가 곧 사회 환원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불교계 기업이 많아질수록 선순환 구조를 갖게 된다. 예컨대 템플셰프의 경우 직장인들에게 사찰음식을 제공하기 위해 식자재를 구입해야 하는데, 이를 사찰 또는 불교계 사회적기업이 판매하는 것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결국 템플셰프는 참가자들의 참가비를 대부분 사회에 환원하고,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물품 구매행위에도 환원의 가치가 담기게 된다.

템플셰프 대표 동원 스님은 "사찰음식을 강의하면서 대중에게 더 가깝게 다가가고, 이를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협동조합을 만들었다"며 "아직은 초기 단계여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준비하는 중이지만 스님들이 이런 뜻을 모았다는 게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불교계가 고민해야 할 것은 사회적경제에 맞는 사업아이템이다. 오래전 사회적경제 초기에는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복지사업이 주를 이루면서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대중의 시선이 많았다. 하지만 최근 젊은 층 중심의 사회적기업이 늘어나 사업의 다변화가 이뤄졌다. 특히 해외에서는 1988년 독일에서 시작된 시각장애체험 '어둠속의대화'가 대표적인 사회적기업 사업아이템으로 꼽힌다. 이 체험은 우리나라에서 누적관람객 45만 명을 기록했을 정도로 널리 알려져 있다.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는 "하나의 기업만으로 효과를 내긴 어렵지만 사업적으로 연계 가능한 사회적기업이 늘어나고, 네트워크가 형성되면 사찰도 새로운 포교전략을 세울 수 있다"며 "다만 기본수익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수익성이 담보된 사업아이템을 발굴해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기자의 펜

불교계 수익모델 사회적경제서 찾자

사찰이 수익사업을 하면 대중의 시선은 곱지 않다. 누군가는 사업하는 스님을 '장사꾼'으로 비아냥대기도 한다. 사찰이 자립을 위해 사업을 고민할 때 늘 꼬리표처럼 따라붙는 세간의 시선이다. 이 때문에 오랫동안 사찰은 시주자들의 시주에 의지해왔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나라 어느 사찰도 종교가 성황하던 과거와 비교해 예전 같은 곳은 없다. 종교의 위기로 평가되는 이 시대에 더 이상 과거의 영광은 없다. 이제는 존립마저 위태로운 사찰이 많아 불교계 고심은 깊어진다.

이제 사회적경제로 눈길을 돌리자. 사회적기업이 수익성을 담보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 수익의 대부분이 사회로 환원된다는 점에서 불교의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방안으로 꼽힌다. 대중, 그리고 사회와 떨어진 종교는 더 이상 종교가 아니다. 불교가 불교의 역할을 하려면 더 많은 대사회 활동이 필요하고, 종교로서의 존립이 가능한 재정적 바탕이 필수적이다.

세계적으로 유일무이의 이러한 세정제를 보셨습니까?

폐렴균, 대장균, 포도상구균을 99.9% 정균, 감소하는 ORAL MATE®(치약) · BLOOD MATE®(비누)를 들어보셨습니까?
엉켜있던 적혈구가 정상 적혈구로 뇌파가 안정되는 BLOOD MATE®(비누)를 들어보셨습니까?


BLOOD MATE®(비누), ORAL MATE®(치약)의 폐렴균, 대장균, 포도상구균에 의한 항균시험 시험성적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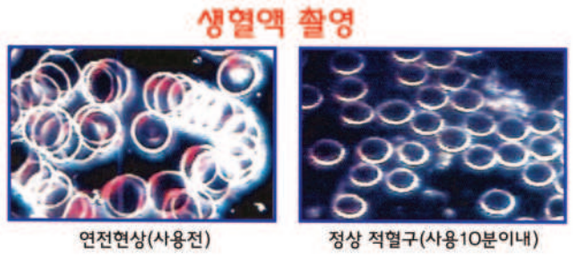
ORAL MATE®(치약)이나 BLOOD MATE®(비누)는 원래의 세정목적 외에 별도의 추가 부담없이
폐렴균, 대장균(식중독균), 포도상구균(화농성세균) 99.9% 정균 감소 가능과 탈취 75%, 음이온 134cc, 원적외선방사 90.2% 의 기능으로

폐렴균 99.9% 정균감소는 폐렴을 예방, 퇴치하고 대장균 99.9% 정균감소는 식중독, 배탈, 설사를 예방하고 포도상구균 99.9% 정균감소는 아토피, 무좀, 비듬,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질환을 예방, 퇴치합니다.

보약을 먹은 것도, 주사를 맞은 것도 아니고 BLOOD MATE® 단 한번 쓰고, 20분도 채 안되어
"엉켜있던 적혈구가 정상 적혈구로, 불안정한 뇌파가 안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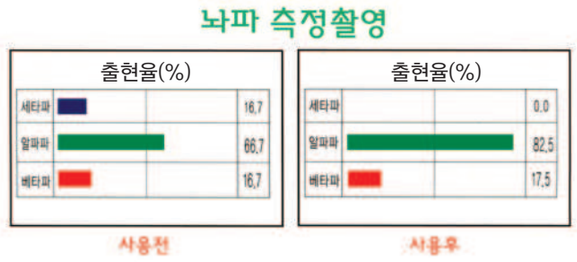
BLOOD MATE®(비누)는 아토피, 무좀, 비듬, 발뒷굼치각질, 체취 등 각종 피부질환을 없애주고, 특히 연전현상의 엉켜있는 적혈구가 정상화되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므로 허리, 목, 어깨의 통증과 다리에 쥐나는것을 개선하는 효과

생혈액 촬영


연전현상(사용전)

정상 적혈구(사용10분이내)

놔파 측정촬영



ORAL MATE®(치약)는 양치후 뱉어내지않고 먹었더니 식중독, 배탈, 설사가 없어지고 과식이나 숙취에 먹었더니 속이 빨리 편안해지며 술이 깨면서 정신이 맑아진다. 구강건강(잇몸 붓는것, 피나는것, 아픈것, 이시린것, 이흔들리는것 등)은 기본이고 잇몸이 튼튼하고 치태가 끼지않고 구취가 없으며 하루종일 입안이 개운합니다.
식후에 바로 양치하고 먹었더니 속이 편안해지고 정신이 맑아진다

개발자 체험담
◉ 매년 겨울만 되면 감기로 고생했는데 BLOOD MATE®(비누) 거품으로 코 속을 마사지하여 감기를 잊어버린(나은) 경험.
◉ 비염, 축농증으로 코막힘이 심하고 누런 콧물이 자주 나왔는데 BLOOD MATE®(비누) 거품으로 코 속을 마사지한 후부터는 코가 뻥 뚫리고 누런 콧물이 없어졌다.
◉ 개발자인 41년 3월생 남자 본인은 ORAL MATE®(치약)을 양치 후 뱉어내지 않고 삼켰더니 식중독, 배탈, 설사가 없고 이틀에 한 번씩의 샤워로 6년 동안 감기, 몸살을 앓아 누워본 적 없다.
◉ BLOOD MATE®(비누) 거품으로 눈동자를 마사지하고 나서부터는 안경을 써야 볼 수 있던 신문을 안경 없이 볼 수 있고 눈동자에 힘이 생겼다.
◉ 잇몸이 아프거나 이가 시릴 때에는 ORAL MATE®(치약)을 부위에 발라주면 통증이 그냥 없어진다.

BLOOD MATE® ●강비누:120g 개당 75,000원 ●순비누:120g 개당 35,000원
ORAL MATE® ●치약 : 120g 할인가 개당 21,000원

위와같이 BLOOD MATE®, ORAL MATE®가 별도의 추가 부담없이 공산품인 세정용 비누가 피부, 세포를 건강하게,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한다.
의약외품인 치약이 배탈, 설사, 식중독이 없어지고 구강건강을 지켜준다면

이는 식약처가 과대, 과잉광고로 단속을 하여 생산활동을 막을것이 아니라 진위를 확인하여 오히려 국민건강, 인류건강을 위해 정부가 나서서 적극지원, 보호, 육성하는 것이 올바른 국가정책이요 국가 산업발전, 해외수출 등 국익에 도움이 되는 길일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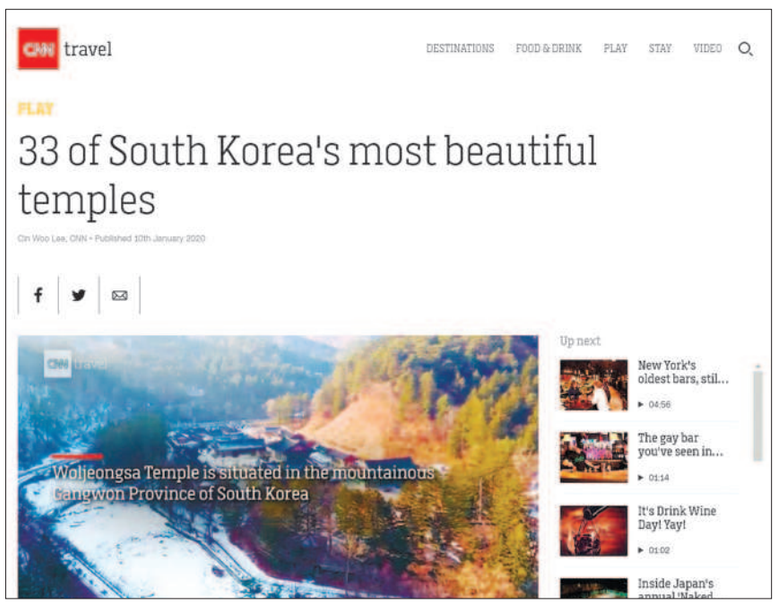
㈜에이스 삼강 02)353-9692 010-2791-3696 | 농협 301-0238-2776-51 예금주 : ㈜에이스 삼강

“가장 아름다운 명소는? Korea Temple!”

CNN 한국사찰 33곳 선정
1월 10일 travel판에 발표

평창 월정사 영상 포함해
참선 · 사찰음식 등도 소개
“겸손 · 희망 얻을 수 있어”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CNN travel 사이트 화면. 월정사 영상과 사찰 33곳 소개가 실려있다.

미국 CNN이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찰 33곳’을 선정하고 한국 사찰의 아름다움에 대해 설명하는 기획 보도를 해 화제다.

CNN은 1월 10일 인터넷판 travel 채널의 PLAY 기획에서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찰 33곳을 선정 발표했다. 이신우 CNN리포터의 칼럼 형식으로 쓰인 이번 발표에서는 태백 망경사, 곡성 태안사, 정읍 내장사, 청송 대전사, 춘천 청평사, 보은 법주사, 순창 강천사, 영주 부석사, 구례 천은사, 김제 금산사, 경주 골굴사, 구례 사성암, 여수 향일암, 공주 마곡사, 동해 삼화사, 영천 백흥암, 양산 통도사, 담양 보리암, 순천 송광사, 포항 오어사, 봉화 청량사, 순천 선암사, 진천 보탑사, 구례 화엄사, 진안 탑사, 화순 운주사, 해남 대흥사, 화순 쌍봉사, 부산 범어사, 구례 연곡사, 서울 천축사, 남양주 수종사, 울진 불영사 등이 포함됐다.

CNN은 기사에서 “한국에는 약 900여 개의 전통사찰이 있으며, 사찰 수는 2만여개에 달한다. 이들 사찰을 참배하는 것은 겸손해지고 마음이 차분해지거나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경험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사찰의 대부분은 산 속에 자리하고 있으며 풍수지리적이 좋은 곳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여겨졌다. 수많은 아름다운 사찰이 있지만 900여 곳을 모두 방문할 필요는 없다”며 대표적인 사찰을 꼽았다.

이번에 소개된 사찰 대부분은 산중 사찰이지만, 순천 송광사, 부산 범어사, 양산 통도사와 같이 조계종 교구본사들도 대거 포함됐다.

이번 뉴스에서 평창 월정사의 경우 영상을 통해 별도로 CNN에 소개되기도 했다. CNN은 “강원도 산중에 있는 월정사는 60개가 넘는 전각과 8개의 선원, 22개 탑으로 이뤄진 사찰로 한때 전쟁으로 인해 파괴되었지만 다시 지어진, 한국불교의 전형”이라며 “사찰에서 국내외 방문객들은 한국불교에 대해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국적, 인종을 불문하고 사람들은 사찰의 생활방식을 겪게 된다. 참가자들은 스님과 차담을 나눌 수 있으며, 사찰음식도 체험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참선에 대한 소개도 이어졌다. CNN은 “참선은 한국인들의 선명상으로, 참선 수행에 대한 깊은 이해도 얻는다”며 “서울에서 월정사는 기차로 3시간이면 충분하다”고 전했다.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많은 재가인들이 이곳에 와서 선수행을 통해, 마음치유를 할 수 있는 문화가 펼쳐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언론들은 그동안 한국사찰을 한국의 명소로 많이 소개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012년 강남스타일 유행 당시 강남의 명소로 강남 봉은사를 소개했으며, 2016년 CNN은 한국에서 가볼만한 곳 50선 중에 합천 해인사를 소개했다. CNN은 2018평창올림픽을 앞두고서 월정사와 강원도 사찰을 소개한 바 있다.

한편, 이번 CNN의 발표에 대해 불교여행업계는 전통사찰은 외국인들에게 새로운 관광자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에 적극적인 홍보와 외국인을 위한 해설사 제도 등에 대한 제안을 내놨다.

‘도박의혹’ 법주사 말사주지 직무정지
조계종 2월 17일 결의

조계종 중앙징계위원회가 승려 도박의혹이 불거진 법주사 말사주지들의 직무를 정지했다.

조계종에 따르면 중앙징계위원회는 2월 17일 제3차 회의를 열고 △법명 스님(충주 대원사 주지) △혜도 스님(옥천 구절사 주지) △각문 스님(단양 원통암 주지) △혜우 스님(인제 문안사 주지) 등 4명의 말사주지 직무정지를 결의했다. 이는 도박의혹이 불거진 8명의 스님 중 현재 4명이 말사주지직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 스님들은 현재 법주사 국장소임을 모두 사직한 상태다.

조계종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 법주사 주지 정도 스님에 대한 징계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현재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해외성지순례 일환으로 스페인에 체류 중이어서 귀국하는 대로 차기 회의를 소집해 다룰 전망이다. 이 같은 결과는 본사주지의 징계 여부를 총무원장이 부재중인 상황에서 결정하기 부담이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법주사 도박의혹은 중앙징계위원회와 별도로 조계종 호법부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윤호섭 기자

7대 종교지도자, 가톨릭 역사 탐방
종지협, 2월 12~21일 스페인 · 포르투갈 순례



국내 7대 종교 수장들이 스페인광장에서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사진=조계종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대표의장 원행)는 ‘이웃종교체험 해외성지순례’ 일환으로 2월 12일부터 21일까지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 가톨릭 역사문화를 탐방했다. 순례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비롯해 김희중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 오도철 원불교 교정원장, 송범두 천도교 교령, 종지협 운영위원 덕조 스님 등이 참가했다.

순례단은 2월 12일 바르셀로나에 도착해 황영조 기념비를 시작으로 바르셀로나 대성당, 그라나다 알함브라 궁전, 스페인 광장, 세비야 대성당, 톨레로 대성당 등 다양한 가톨릭 역사유적을 탐방했다.

17일 톨레도 대성당에서 원행 스님은 “인종, 종교, 나라마다 따르는 종교도 제각각이고 신을 모시는 형식도 다르지만 신앙심은 모두 같다”며 “가톨릭에서는 신을 위해 자신의 전부를 헌신하는 것처럼 불교는 깨달음을 얻어 부처가 되는 것으로 신에 대해 예경을 올린다”고 말했다.

돈 후안 미겔 톨레도성당 참사회의장은 순례단에 성당의 역사와 특징을 전했다. 그러면서 돈 후안 미겔 참사회의장은 “각 종교에서 하는 일이 모두 잘 되고, 같은 뜻으로 원하는 바가 이뤄지길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말했다.

윤호섭 기자

법정 스님 향취 그대로…10주기 법회
맑고향기롭게 도량 길상사
시민 · 불자 1000여 명 운집
생전영상 “저마다 보물드러내라”
생생한 법문에 좌중 눈물 · 웃음
사진전 등에도 대중 발길 이어져



법정 스님 상좌 스님들이 스님 영전에 헌공을 올리고 있다.

‘무소유’를 실천해 우리 사회에 맑고 향기로운 가르침을 전한 법정 스님의 10주기 추모법회가 2월 19일 서울 길상사에서 봉행됐다.

문도회와 사단법인 맑고향기롭게를 중심으로 열린 이날 추모법회서는 법정 스님의 ‘스스로행복하라’ 영상법문 공개를 비롯해 10주기 특별집 배포 등이 이뤄졌다. 법회에는 조계총림 송광사 방장 현봉 스님 등 스님들과 법정 스님을 그리는 불자대중 1000여 명이 참여했다.

법회서는 송광사 방장 현봉 스님의 헌향에 이어 문도 스님들의 헌다와 헌공, 대중 스님들과 맑고향기롭게 임원진의 헌화가 이어졌다. 특히 길상사를 보시한 길상화 보살의 딸인 보월화 보살이 헌화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법정 스님의 영상 법문은 스님의 인사말로 시작했다. “카메라 기자들은 신도들이 안보이니 좀 비키라”는 영상 법문에 숙연했던 대중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폈다.

스님은 영상을 통해 “‘인간성이 소멸되어 간다. 인간의 감성이 사라져 간다’라고 말하는데, 자연과의 교감이 단절되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감성이 녹슬고, 인간성이 메말라 간다. 그래서 살아있는 미라가 된다”며 “꽃을 보라. 누구를 닮지도 않았고, 남이 지니고 있지 않은 보물을 저마다 지니고 있다. 그것을 드러내라는 것이다. 그것이 아름다움이다”고 법문했다.

법회가 진행된 설법전이 협소한 관계로 많은 대중이 밖에 서서 스님의 10여 년 전 모습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다.

송광사 방장 현봉 스님은 추모법문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스님의 가르침이 여전히 생생하게 살아 있다는 생각이 든다. 스님의 가르침을 계승하고 실천하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추모”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2월 18일 개막한 ‘비구 법정 사진전’이 열리고 있는 길상선원에도 많은 이들의 발길이 이어졌으며 법회 후 배포되는 10주기 특별판 법어집을 받기 위해 긴 장사진을 이뤘다.

〈관련 사진전 화보 5면〉

노덕현 기자

조계종 중앙종회 임시회 3월 17일 개원
안건접수 10일까지

조계종 중앙종회 제218회 임시회가 3월 17일부터 5일간 회기로 열린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범해)는 2월 2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분과회의실서 의장단 및 상임분과위원장 제9차 연석회의를 열고, 제218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이 같이 확정했다. 안건접수는 3월 10일까지, 종책질의는 12일까지 마감이다.

제218회 임시회서는 종법 제 · 개정의 건을 비롯해 △종무보고 △종책질의 △상임분과위원회 활동보고 △특별위원회 활동보고 등이 이뤄진다. 또한 인사안으로 △재심호계위원 △법규위원 △종립학교관리위원 △인사심의특별위원 선출의 건과 학교법인 동국대 임원(이사 · 감사) 및 학교법인 승가학원 이사 후보자 복수추천 동의의 건이 다뤄진다. 아울러 불기 2563(2019)년도 중앙종무기관 세입 · 세출 결산 승인과 중앙종무기관 및 산하기관 결산검사도 진행된다.

윤호섭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인증 승려연수과정

승려연수과정 수강생 모집

현대인을 위한 생활수행과 포교

일 정 2020년 5월 20일(수) ~ 5월 22일(금), 2박 3일
장 소 경주 황룡원〈점심제공〉 (경북 경주시 엑스포로 40 (지번) 신평동 150-8)
문 의 031-470-3200, 010-8779-6926
정 원 50명(선착순)
교 육 비 20만원 (국민은행 292-01-0033-316 (재)한마음선원과학원)
주 관 (재)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
웹사이트 http://edu.hansi.org

법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컨텐츠
▶자기 마음 바로 보고 치유하기
▶가정, 사회에서 갈등 지혜롭게 해결하기
▶삶의 의미와 행복 찾기

1일차 (5월 20일 수)	2일차 (5월 21일 목)	3일차 (5월 22일 금)
마음치유와 수행	생활수행의 원리와 사례	의식에 관한 통찰과 마음공부, 그리고 사찰발전을 위한 실제적 적용방안
현대인의 마음공부	현대인을 위한 포교	
	내 마음의 용광로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모바일 신청도 가능합니다.

재단법인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

한마음 공생실천과정 나로부터의 시작

제33기 모집

내 앞에 닥치는 일들을 한마음으로 굴려 놓아 원만하게 풀어나가며, 자신의 근본을 탐구하여 자성을 밝혀 나가는 생활 속 참선수행 프로그램

대 상 마음공부를 하고자 하는 분
일 정 2020년 3월 28일(토) ~ 5월 30일(토) 총10주
시 간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30분 ~ 6시
장 소 한마음과학원 국제회의실(3층)
모집인원 총50명(선착순 모집)
수 강 료 20만원 (국민은행 292-01-0033-316 (재)한마음선원)
신청방법 인터넷 접수 또는 직접 방문 접수 (네이버에서 ‘함께하는 진화’를 검색)
문 의 031-470-3200, 3201

청년불자 양성에 거제불교 동참

대우불교청년회, 대한불교청년회에 후원금 전달

창립 39주년 특별법회 봉행
청소년 포교 방안 모색 나서
대불청 만해센터 건립불사에
지역불자 십시일반 뜻 모아

성낙두 경남지사장

경남 거제 재가자들의 청년 신행을 이끌고 있는 대우불교청년회가 창립 39주년을 맞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이 자리에서 청년들은 만해문화센터 건립기금을 전달하고 발전을 기원했으며, 청년불교의 미래를 위해 함께 의논하는 장으로 회향했다.

사단법인 대한불교청년회 울산경남지구 대우불교청년회(회장 김관우)는 창립 제39주년 기념 법회를 2월 12일 경남 거제시 옥포동에 위치한 거제불교회관 설법전에서 봉행했다. 법회에는 하재길 대한불교청년회장, 김관우 대우불교청년회장, 윤종국 대의원의장, 한정인 사무총장, 강인식 울산 · 경남지구 회장 등 사부대중 50여 명이 동참했다. 창립 39주년 기념법회는 원빈 스님 초청 시민법회를 기획했지만, 코로나19 확산 예방에 동참하며 행사를 취소하고 조촐히 진행됐다.

행사는 1부에서 '청년회가 걸어온 발자취를 돌아보고 기약하는 영상'을 시청했으며, 2부에서는 '청년 불교의 미래에 대한 전망과 대책'이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진행됐다. 토론회에서는 청소년 및 청년 포교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구체적인 활동 계획도 모색했다. 아울러 청소년 및 20대 청년 불자를 위한 사업 방향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하재길 대한불교청년회장은 "현재 계층 포교를 위한 청소년 공식 활동은 만해백일장이 있으며, 만해센터 건립 후에는 젊은 불자 양성을 위해 더욱 다양한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관우 대우불교청년회장은 "청소년 불자 인재 양성을 위해 구체적인 사업 활동이 필요하다. 지역에는 수도권보다 젊은 불자가 더 부족하다"며 "학업에 몰입돼 있는 청소년들이 종교 활동에 참여할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돼야 한다.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이어 김관우 회장은 "신종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아쉬움은 남지만 내년 40주년을 더욱 알차게 준비하고 신심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로 삼자"고 말했다.



사단법인 대한불교청년회 울산경남지구 대우불교청년회는 창립 제39주년 기념법회를 2월 12일 거제불교회관 설법전에서 봉행했다.

이날 대우불교청년회는 대한불교청년회의 발전을 기원하며 '만해평화센터 건립기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건립기금은 지회에서 활동하는 회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회비와 활동 후원금, 보시금으로 마련됐다.

하재길 대한불교청년회장은 "다가올 2020년 6월 20일에는 청년회 창립 100주년을 맞는다"며 "100주년을 맞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아울러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수행 포교 공간 건립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동참해 준 모든 분들께 감사를 올린다"고 말했다.

대우불교청년회는 거제도 대우 조선에 입사한 청년불자들이 신행과 포교를 위해 창립한 단체다. 매주 정기법회와 금강경 독송, 명상 수행 등을 이어가고 있으며, 매주 일요일에는 자비나눔을 위한 무료급식을 진행 중이다. 아울러 동지에는 쌀이나 물품을 후원받아 중증장애인 시설 반야원에 전달하고 있다.

정여 스님 동안거 회향 특별법회

부산 여여선원서, "늘 깨어서 자신을 보라"

부산 여여선원이 특별법회를 개최했다. 선원장 정여 스님의 동안거 회향을 맞아 대중이 모여 설법을 청해 마련된 자리여서 의미가 남다르다.

여여선원(선원장 정여)은 2월 13일 경내 법당에서 '늘 깨어서 자신을 보라'라는 주제로 특별법회를 봉행했다. 특별법회는 선원장 정여 스님의 동안거 원만 회향을 축하하며 법을 청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법회에는 기장군불교연합회장 정오 스님, 동래구불교연합회장 효문 스님, 금어사 주지 월강 스님, 기장 청량사 주지 보혜 스님을 비롯해 사부대중 300여 명이 참석했다.<사진>

정여 스님은 법문에서 '늘 깨어서 자신을 돌아보며 연꽃 같이 청정한 마음으로 선정을 길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하루 30분만이라도 자신을 바라보고 수행을 한다면 삶이 순수하고 아름다워질 것"이라며 "본래 성품을 깨닫고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계에도 동요하지 않는 연꽃 같은 청정한 마음을 길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송광사 율주 지현 스님 '전등율맥' 전수

혜림 · 무일 · 인법 스님 등 전계 제자 8명에

승보종찰 조계총림 송광사 율주 지현 스님(관음사 회주)은 2월 14일 부산 관음사 원통보전에서 '전등율맥 전수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지현 스님은 혜림 · 무일 · 인법 · 인석 · 성천 · 지성 · 용희 · 법인 스님 등 8명의 전계 제자에게 계맥을 전수했다.

지현 스님은 "오직 부처님 말씀을 가슴에 새겨, 그 진리를 우리가 잇는다는 마음으로 정진하길 바란다"며 "8명의 스님들을 통해 새롭게 불법이 살아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계율사 지현 스님은 해인사에서 송광사 방장 보성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1972년 해인사에서 사미계를, 1977년 쌍계사에서 비구계를 받았다. 은사인 보성 스님을 이어 율사의 맥을 잇고 있으며 현재 송광사 율주다. 스님은 조계종 계단위원, 조계종 단일계단 존증사 등을 맡고 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신도 교육은 불교 미래" 밀양불교대학 16기 졸업

밀양불교대학(학장 정무)은 2월 15일 밀양 용궁사 극락보전에서 제16기 졸업식을 개최했다. 졸업식에는 학장 정무 스님과 이병희 경남도의원, 허홍 밀양시의원, 경남지역 포교사 및 관내 신행단체장을 비롯한 사부대중 100여 명이 동참했다.

졸업식은 축하연주에 이어 삼귀의 및 반야심경, 내빈소개, 학사보고가 진행됐다. 또한 졸업장및 부동품계증 · 표창장 수여가 진행됐으며 회고사 및 축사 순으로 마무리됐다. 이날 조계종 포교원장 표창장은 신익기 16기 회장이 수상했다.

학장 정무 스님은 "'신도 교육은 불교의 미래'라는 슬로건으로 불교대학이 운영되고 있다. 졸업식에 동참해준 사부대중에게 감사하다"며 "졸업생들의 신심과 원력이 불국토 건설에 초석이 되고, 각자의 재적사찰에서 전법수행해 한국불교의 희망이 되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해군 호국사 "불자생도 최다 배출"

제74기 졸업 · 임관 축하
올해 불자생도 55명 졸업

해군사관학교 호국사가 생도들의 졸업과 임관을 축하하는 법회를 열고, 자비와 이타행으로 모범을 보인 사관생도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경남 창원시 진해 해군사관학교 호국사(주지 만소)는 2월 19일 '제74기 졸업 및 임관 축하법회'를 봉행했다. 호국사는 6년 연속 불자생도를 가장 많이 배출한 포교도량으로 주목받고 있다.

법회는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와 해군사관학교 호국사가 주최했으며, 소위 임관을 앞둔 생도들을 축하하고 재학생들을 격려하며 불자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법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해 외부인사 초청 없이 사관생도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임관 축하법회는 표창장 수여, 선물 전달식, 호국사 주지 만소 스님 법문 순으로 진행됐다.


호국사 주지 만소 스님과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하는 불자생도들.

표창장은 사관학교 재학 중 자리이타행을 실천하며 불자생도회 화합에 기여한 생도들에게 수여됐다. 조계종 총무원장상은 혜명 이선우 생도, 조계종 포교원장상은 정행 배정우 생도, 군종특별교구장상은 정화 강선재 생도, 성해 강성수 생도가 각각 수상했다. 이후 진해사암연합회는 임관을 축하하며 마련한 선물을 졸업생들에게 전달했다.

호국사 주지 만소 스님은 "졸업 후에도 불자로서 자긍심을 갖고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각자의 원력을 실천하길 기원한다"고 축원했다.

한편 해군사관학교는 올해 졸업생 가운데 55명의 불자생도를 배출, 6년 연속 가장 많은 불자 생도를 배출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예비초등생 학교생활 응원"

구례 다문화가족센터, 14명에 책가방 전달

구례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도운)는 2월 13일 구례군 청소년문화의집에서 '2020년 예비초등학생 책가방 및 선재의 입학선물 전달식'을 열고,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예비초등학생 14명에게 책가방과 수업에 사용할 6종류의 악기를 전달했다.<사진> 전달식에는 화엄사 총무 관문 스님, 도운 스님을 비롯해 10여명의 학생과 학부모가 참석했다.

이날 전달한 입학선물은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에서 지원한 책가방을 비롯해 지리산 화엄사와 지역 후원자가 마련한 악기(리듬악기, 멜로디혼, 실로폰, 리코더, 단소, 소고)가 담겼다.



입학 선물을 받은 홍민 군의 아버지는 "너무나 감사하다. 둘째 아이가 학업에 부담 없이 생활할 수 있을 것 같다. 물심양면으로 최선을 다해 교육하겠다"고 감사인사를 전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광주광역시 무형문화재 제 23호 영산재 보존회 부설

2020학년도 불교의식(범음, 범패)교육원 신입생 모집

본원은 불교 전통의식인 영산재(범음, 범패)를 광주광역시 무형문화재 제23호로 지정받았으며 영산재를 계승 및 발전 유지하고 후진 양성에 그 목적을 두고 설립된 교육기관으로서 불교 문화재이자 민족의 빛난 문화유산인 불교전통의식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교육기관입니다. 불교의 각종의식의 중요성을 인식은 하고 있었으나 배우실 기회를 놓치신 스님들께서는 종단을 초월하여 승려 양성에 목적을 두고 교육생을 모집하고 있아오니 스님들께서는 수희동참으로 만학의 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 졸업자는 광주광역시 무형문화재 제 23호 영산재 보존회 회원자격 부여 ※

수료 과정 및 강주							
모집반		교육내용	강 주	요 일	시 간	모집조건	교육기간
1학년	1학기	기본 이론 및 예불, 각종 사물 다루는 법	혜령스님 호산스님 월인스님	목	오후2시 ~오후6시	모든종단 승려	1년과정
	2학기	각단불공 및 시식					
2학년	1학기	범음범패, 바라작법, 나비작법등 고급과정	혜령스님 호산스님 월인스님	금	오후2시 ~오후6시	초급반 이수자	1년과정
	2학기	실전대비 의식진행 전문과정					

◈응시자격
- 입 학 : 모든 종단의 승려
-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원의 소정양식)……1부
  주민등록등본…… 1부
  반명함판 사진…… 3장
- 전형일정 : 2020년 2월 ~ 3월말까지(접수가능)
- 개 강 일 : 2020년 3월 19일(목요일)
- 원서교부 및 접수처 : 광주광역시 서구 화개1로 53(금호동)
- 입학문의 : 법륜사 종무소 062-655-7444, 010-6650-7444
  보존회 사무처장(법진스님) 010-9606-3981
  연구원 교학처장(명휴스님) 010-7941-0017

2020년 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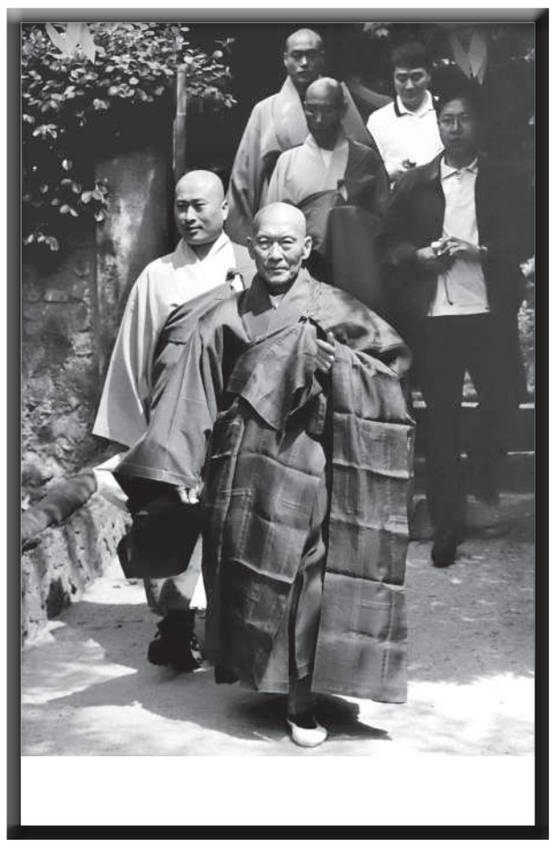
(사)광주전통불교 영산재 보존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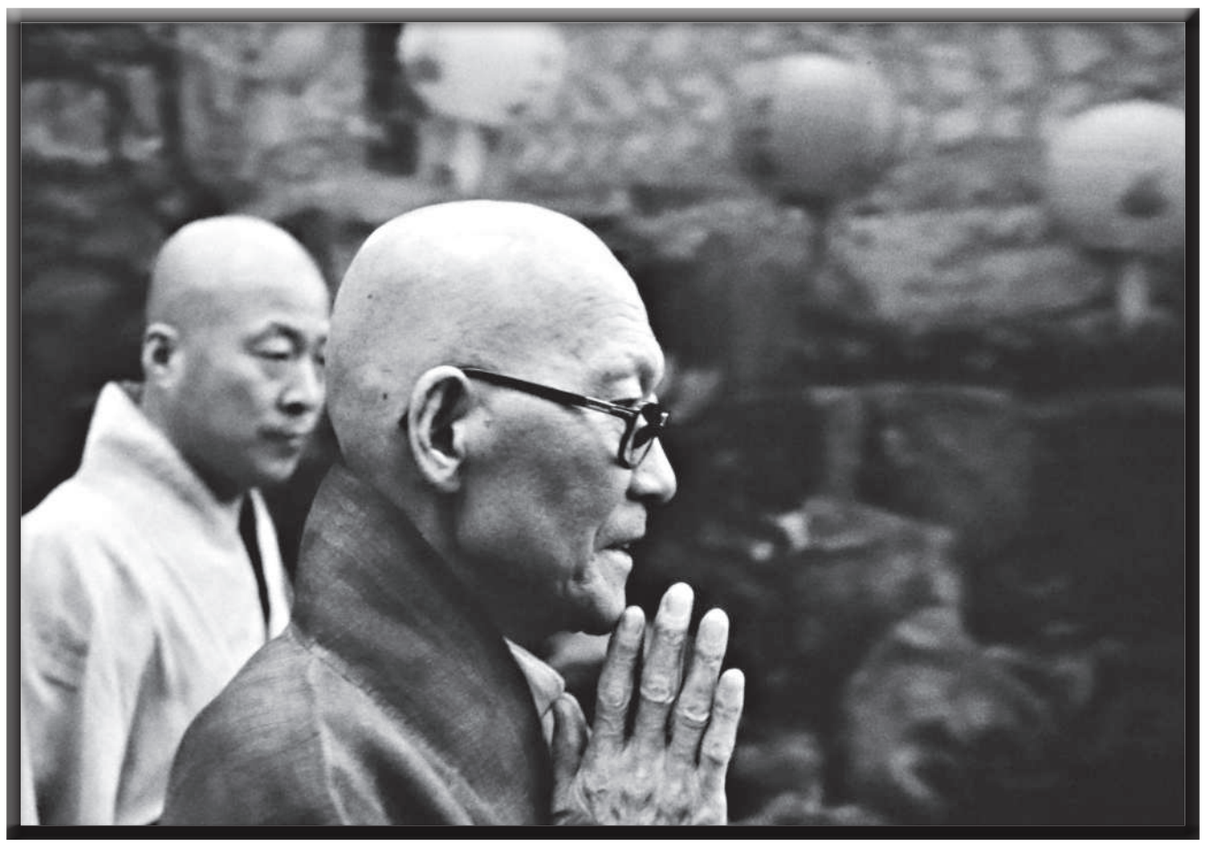
엄격함 뒤엔 情 많은 소탈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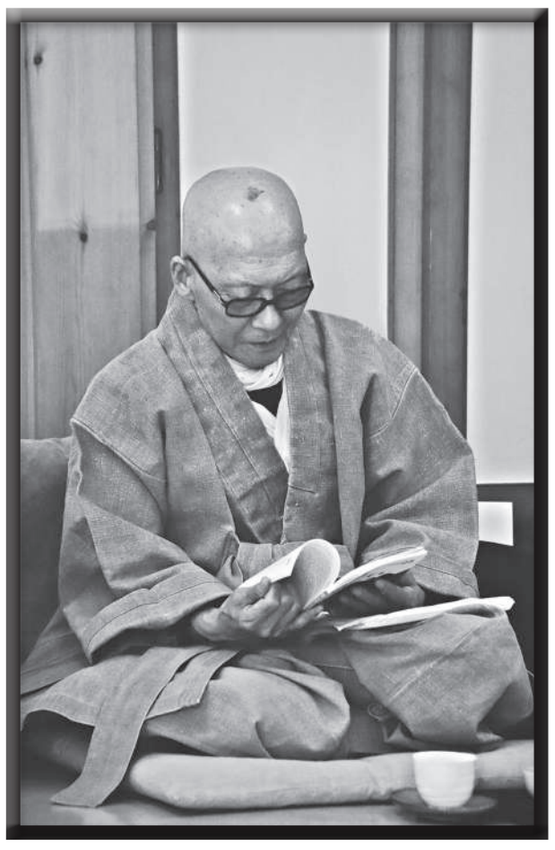
사진으로 만나는 법정 스님과의 因緣

법정 스님 10주기 추모법회가 2월 19일 맑고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에서 열렸다. 이에 앞선 2월 18일 법정 스님과 생전 인연이 있었던 작가들이 그동안 미공개로 소장해온 사진을 한데 모은 사진전이 개막했다. 작가들과 맑고향기롭게 측의 협조를 얻어 법정 스님의 옛 사진에 담긴 인연담을 풀어본다.

노덕현 기자 · 사진제공=맑고향기롭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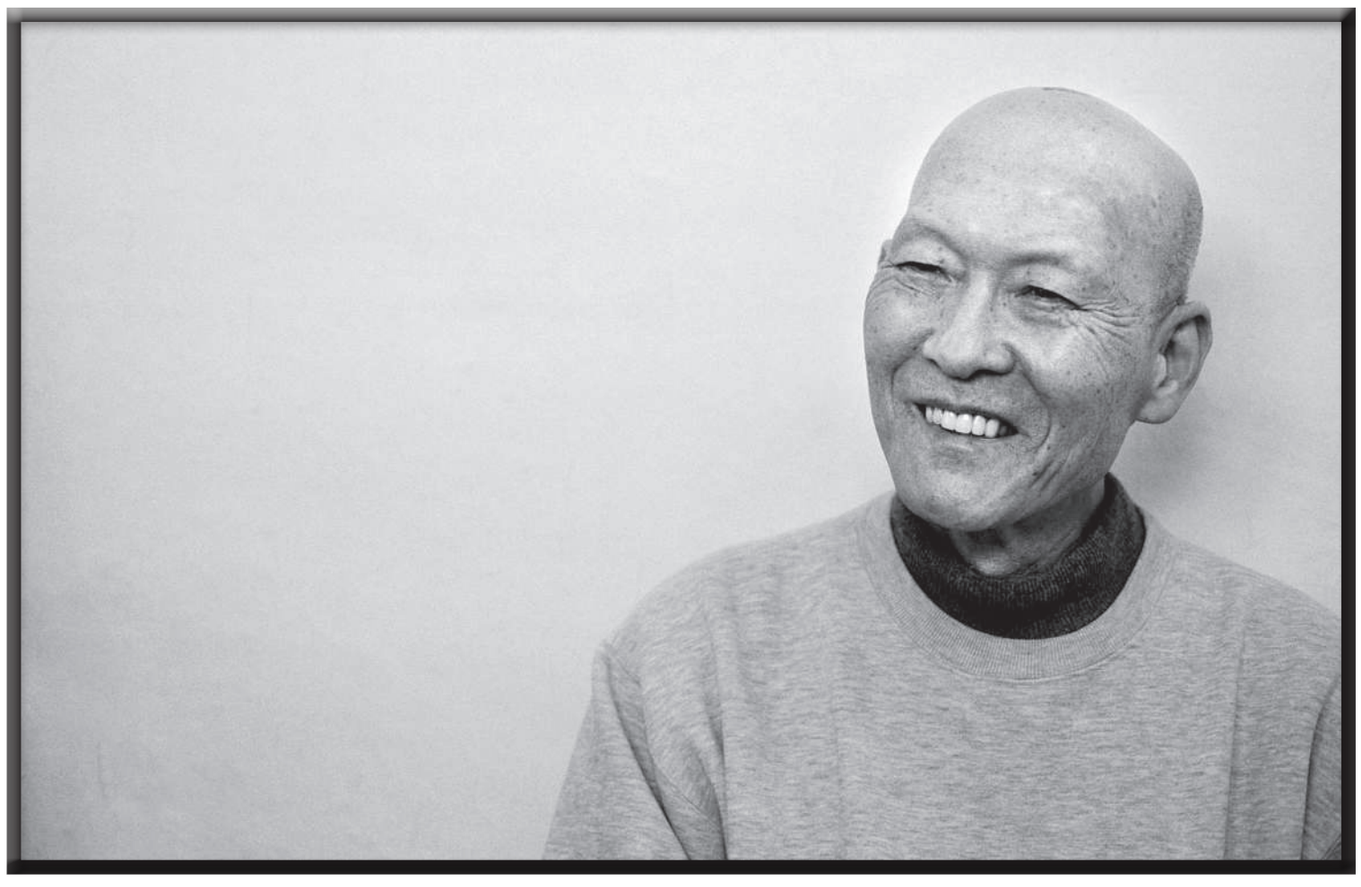






여기 기록된 사진들은 2006년 12월부터 2009년 4월까지 길상사 법회때 촬영된 것이다. 길상사를 찾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듯 스님과의 인연은 책으로 만나 20여년이 되어 간다. 그 인연은 길상사와의 인연으로 이어졌고, 사진을 시작한 이래로 가장 찍고 싶은 대상은 스님이셨다. 이 즈음 '제가 이 자리에서 미처 다하지 못한 이야기는 새로 돋아나는 꽃과 잎들이 전하는 거룩한 침묵을 통해 들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법문을 마치시던 스님의 말씀이 생생히 떠오르는 봄날이다.

박연희 사진작가는… 2010년 계원예술대 사진학과를 졸업한 뒤 3년간 전국사찰을 다니며 스님들의 수행처를 촬영했다. '무념처'로 이름 붙여진 이 결과물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개인전을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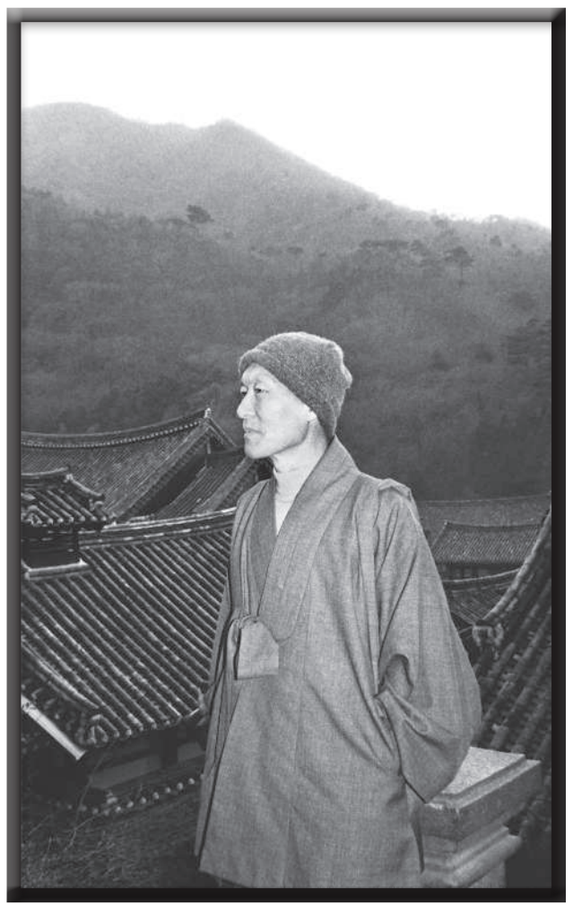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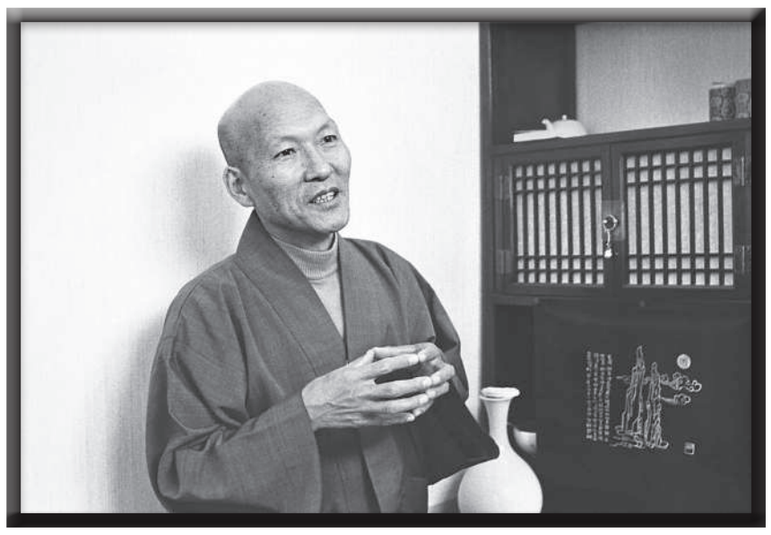


왼쪽 사진은 2005년 5월 부처님 오신날 길상사 행지실에서 촬영한 것이며 오른쪽 사진은 2005년 1월 불일암에서 촬영한 것이다. '사진가는 피사체와 끊임없는 기 싸움에서 이겨야 비로소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다' 는 말이 있다. 당시 스님은 나에게 워낙 크신 분이셔서 마주 대하는 것 만으로도 벅찬 대상이셨으니 기 싸움이라는 말은 애초에 얼토당토 않았다. 이런 나의 유약함을 느끼셨는지, 불일암에서 가진 며칠의 끼니때마다 '동영씨 많이 먹어. 무거운 장비 들고 다닐라면 기운이 씨어야 된다고' 라는 거듭된 말씀으로 나의 긴장을 풀어주시곤 하셨다.

처음뵈었을 때의 스님은 근엄하고 존귀한 큰 스님이셨다. 다음에 뵈었을때의 스님은 편안하고 따뜻한 어른 스님이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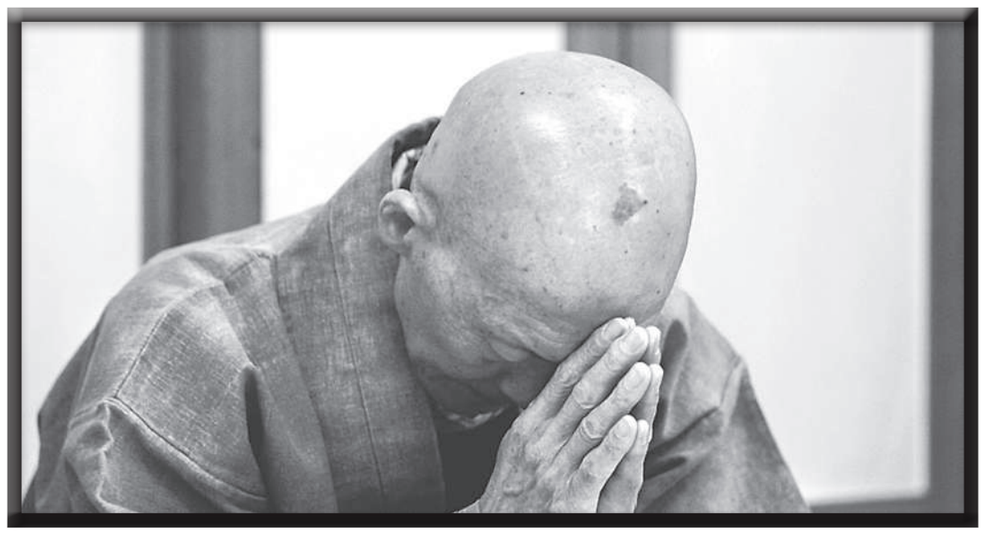
유동영 사진작가는… 우리의 전통문화를 발로 뛰어 찾아 담았던 계간 〈디새집〉에서 일했으며 〈그리움으로 걷는 옛길〉, 〈선방 가는 길〉, 〈자기를 속이지 말라〉, 〈정찬주의 茶人 기행〉, 〈소설 무소유〉 등 다수의 책에 사진을 실었다.





22년 전 88올림픽 국제학술회 심포지움에 법정 스님이 자연분과에 참석하셨다. 그때 나는 학술회 전체 사진을 담당했다. 분주한 행사일정 중 스님과의 만남에서 느끼는 맑은 기운은 신선한 청량제가 됐다. 그해 가을 스님은 감사하게도 불일암에 초대해 주셨다. 스님을 다시 만나던 날 밤, 달이 유난히도 밝았던 기억이 난다. 조용한 산중에서 홀로 머무는 스님의 맑고 청정한 모습이 지금도 필름처럼 지나간다. 불일암에서 촬영한 사진을 가죽 앨범에 담아 보내드렸는데 그 앨범이 낡고 퇴색할 때까지 스님 곁에 남아 있었다.

이은주 사진작가는… 성균관대 국문과를 졸업하고 뉴욕 스쿨 오브 비주얼 아트와 보스턴 뉴잉글랜드 사진학과를 수학했다. 백남준 사진전 등을 진행했다.



2004년 여름, 일간지 사진기자로 일할 때였다. 취재차 길상사를 찾았고, 불교계 문외한이었던 터라 절에서 이뤄지는 일상에 관심을 갖게 됐다. 이 모습들을 사진으로 찍어 블로그에 올리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이 것이 불교와의 첫인연이었다. 이렇게 시작된 인연은 7년간 출근 전이면 길상사에 들려 사진공양을 올리는 일로 이어졌다. 법정 스님의 모습을 카메라에 제대로 담은 것은 길상사 사진공양을 시작한지 몇 달이 지난후였다. 가을 정기법문을 마친 법정 스님이 경내를 한바퀴 돌 때 높은 데서 망원렌즈로 찍은 것이다. 당시 스님의 눈빛은 날카로움 그 자체였다. 스님의 눈빛은 마음속 욕심을 경계하는 죽비이자 사진공양을 지탱하는 힘이었다.

이종승 사진작가는… 책으로 〈길상사의 사계, 이토록 행복한 하루〉, 근승랑이라는 작가명으로 낸 사진집 〈비구, 법정〉이 있으며 2007년 일본 도쿄에서 '보통의 미', 2011년 서울에서 '비구, 법정' 사진전을 열었다.

| 현불 논단 |

전륜성왕을 기다리며…



방영준
성신여대 윤리교육과
명예교수

4월 총선 앞두고 정치판 요동
이합집산 속 창당에 '우후죽순'
한기총 회장 주도 정당도 나와

韓불교엔 '전륜성왕의 꿈' 절실
'민주적 정의공동체' 구현 의미

부처님께서 전륜성왕이 됐다면
중도+정의 '中正정치' 펼쳤을 것
불교적 정치 구현에 고민 필요해

'코로나19' 로 불리는 괴질이 창궐하고 있는 이 땅에 정치의 광풍이 휩쓸고 있다. 4월 총선에 대비하여 한국 정치판이 요동을 치고 있다. 이합집산의 혼돈 속에서 이런저런 정당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다. 이런 와중에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는 어느 목사가 '자유통일당' 이라는 정당을 주도적으로 창당하였다. 이를 어쩌랴. 그 창당 행사장은 마치 선교 부흥회를 방불케 하였다고 한다.

도대체 정치와 종교는 어떤 관계일까? 정치와 종교는 분리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종교와 정치의 밀접한 관계는 긴 역사 속에서 생생한 발자취를 찾을 수 있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정교분리' 는 내숭일 뿐이다. 불교와 정치의 관계에 대하여 부정적인 사고가 있다면 불교를 '깨달음' 의 종교로만 본 오해에서 나온 것일 수도 있다. 근현대 한국불교의 정치적 여정은 아픔과 부끄러움의 역사였다. 조선시대와 일제의 긴 질곡에서 빠져 나온 한국불교는 1945년 해방공간에서부터 또 다른 늪 속에 빠졌고 전두환 군부정권에 의해 10.27법난이라는 치욕도 겪었다.

오늘날 한국불교에는 전륜성왕의 꿈이 절실하다. 지금까지 전륜성왕은 하나의 설화였지 꿈이 아니었다. 꿈은 바람이고 바람은 실천으로 가는 첫 걸음이다. 불교에서 고대 인도에서 태동된 전륜성왕의 관념과 사상을 비중 있게 수용한 것은 바로 불교가 현세 지향적, 실천 지향적 성격이 강한 종교라는 특징을 반영하는 것이리라. 전륜성왕의 꿈은 '민주적 정의 공동체' 의 구현에 있고 그 길은 바로 하화중생의 길이다.

붓다도 전륜성왕의 꿈을 꾼 적이 있다. 잡아함의 〈작왕경〉의 내용을 소개한다.

"내가 왕이 되어 남을 죽이거나 죽임을 당하는 일도 없고, 남의 것을 빼앗거나 빼앗김을 당하는 일도 없고, 남을 슬프게 할 일도 없고 스스로 슬플 일도 없도록 한결같이 법대로 행하고 법이 아닌 것은 행하지 않는 통치를 하면 어떨까?"

붓다가 이런 생각을 하자 악마가 기뻐하며 유혹하였지만 "사람의 욕심을 다 채우기 어렵다"며 그 유혹을 뿌리쳤다. 이 경전의 내용은 민주적인 정의 공동체를 구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붓다는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더 근원적인 처방을 찾으신 것이리라.

그러나 붓다의 민주적인 정의 공동체에 관한 관심은 끊임없이 지속된다. 그 대표적인 것이 '칠불쇠법(七不衰法)' 이다. 또한 가난과 질병의 고통에 시달리는 중생들을 구제하는 것이 왕과 국가가 할 가장 중요한 임무라는 것을 여러 왕에게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하였다. 그러나 붓다는 정치권력의 타락과 통치자의 위험성을 잘 파악하고 있었다. 그렇다고 국가와 통치자를 부정하지도 않았다. 붓다가 꿈꾼 전륜성왕의 권위와 존엄은 민주적인 정의 공동체를 구현하는 정법정치에서 나온다 하겠다.

이제 한국불교가 이 땅에 전륜성왕이 출현할 수 있는 마당을 마련하는데 원력을 세워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불교의 사부대중과 종단이 먼저 민주적인 정의 공동체를 실천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나침판을 세우고 역량을 키우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 이를 위해 먼저 꾸준한 제도 개혁과 종단의 민주화 역량 강화, 사회적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자율적 실천능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붓다가 전륜성왕이 되었다면 지금 세상은 어떨까? 중도와 정의가 결합된 '중정(中正)정치' 가 펼쳐졌을 것이다. 중정 정치의 꿈이 바로 불교정치철학의 핵심일 것이다. 이제 한국 불교가 한국 정치 발전과 성숙한 정치문화를 창출하기 위한 구체적 과제에 대해 진지한 고뇌를 할 때이다.

社 說

불교계 '코로나19' 대응 환영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2월 20일 현재 104명으로 늘어났고 처음 발생한 1월 20일 이후 첫 사망자도 발생했다. 국내 확진 환자가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된 것은 대구 · 경북을 중심으로 확진자들이 늘었기 때문이다. 그 중심에는 신천지 대구교회가 있다. 신천지 대구교회 관련 환자만 43명에 달한다. 특히 '슈퍼전파' 와 관련된 31번 환자가 서울 강남구와 경북 청도군에 방문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문제가 커지고 있다. 이처럼 한 교단에서 무더기 확진자가 발생한 것은 종교단체의 책임도 없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조계종의 조치는 환영할 만하다. 조계종 총무원은 2월 20일 전국 소속 사찰에 긴급 대책과 지침을 공지했다. 특히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대구 · 경북 사찰에는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향후 2주간 모든 법회 및 성지순례 · 교육 등 각종 행사와 모임을 자제할 것을 시달했으며, 대구 · 경북 지역 템플스테이 운영을 중단시켰다.

조계종이 공지한 긴급 조치에도 마스크 착용부터 중국에 다녀온 스님과 직원들 2주간 한시적 업무 배제, 격리 등을 명시해 감염 예방 선제 조치에 들어갔다.

지역 사찰들도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는 잠정 휴관에 들어가고 입학식도 취소했다. 신도교육은 미디어 시청과 SNS를 통해 이뤄진다. 통도사는 2월 19~21일 경내 전체를 방역 조치했으며, 마스크 착용도 의무화했다.

이 같은 불교계의 감염 예방 조치와 대응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강력한 예방만이 지금의 사태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다. 전문가들은 향후 2주간이 중요한 만큼 이 기간동안 법회와 행사를 자제할 것을 권고한다. 이 같은 제언에 귀 기울여 국가적 재난 극복에 불교계도 동참하길 바란다.

배려가 쌓은 사관생도 佛心

해군사관학교 호국사가 올해에도 4대 종교 중 가장 많은 생도 졸업생을 배출했다. 호국사는 올해 130여 명의 사관생도 중 55명을 불자로 키워내 6년째 굳건한 1위를 기록하고 있다.

호국사는 前범어사 주지 능가 스님과 해군사관학교 김규섭 교장 등 관계자들이 모여 논의를 시작, 1972년 건립됐다. 이후 40여 년간 포교도량의 명맥을 이어오다 시설 노후화로 인해 2016년 신축을 결정해 2018년 낙성했다.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250명을 동시 수용할 수 있는 법당을 갖춘 호국사는 불자생도들의 심신을 어루만지는 안심도량으로 거듭났다.

호국사의 성공비결은 바로 생도들을 위한 '배려' 에 있다. 젊은이들에게 자칫 고루하게 느껴질 수 있는 종교색을 강요하지 않고, 법문도 10분가량으로 최대한 줄였다. 또 경전이나 법문에 국한하지 않고 PPT나 동영상 자료를 만들어 불교의 이해를 높였다. 그 시기에 생도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것들을 귀담아 들어주는 것은 기본이었다.

생도들의 눈높이에 맞춰 배려하는 문화는 현 주지법사인 만소 스님 이전부터 만들어졌다. 그렇게 군법사스님들은 생도들과 가까이 하기 위해 고단한 행군도 마다하지 않고 함께 길을 걸었다. 그 결과 생도들은 자연스레 법당으로 발길을 옮겼다.

한국불교는 오래전부터 청년불자 감소를 타개하기 위해 다양한 포교방법을 모색해왔다. 하지만 어느 포교방법이든 눈높이와 소통이 전제돼야 한다. 석가모니 부처님도 이색적인 포교보다는 대기설법이라는 배려로 수많은 제자들을 진리로 이끌었다. 포교의 기본을 다시 생각할 때다.



지원 스님의
마음처방전

고통을 주시하라

작가들의 묘비명은 그 사람의 인생을 담고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전합니다. 특히 카잔차키스의 묘비명을 보면 씩씩한 기상이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나는 아무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아무 것도 바라지 않는다. 나는 자유인이다."

아무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기상이 어디서 연유하는지를 그의 책 〈영혼의 자서전〉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8월의 어느 날, 하늘에서 구멍이 뚫린 듯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노란 번갯불의 섬광이 소리 없이 하늘을 가르고, 지축을 흔드는 천둥소리에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얼마 후 일 년 내내 먹을 건포도가 빗물에 실려 떠내려갔습니다. 마을사람들은 하늘을 쳐다보면서 "살려주소서"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아버지는 꼼짝도 하지 않고 문간에 서서 양식이 떠내려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어린 니코스는 아버지에게 "포도가 다 없어졌어요"라고 소리쳤습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죠. "시끄럽다. 우리들은 없어지지 않았어."



그림 · 최주현

니코스는 문간에 꼼짝 않고 서서 재난을 지켜보던 아버지의 모습을 항상 기억했다고 합니다. 살아가면서 위기를 맞을 때마다 "우리들은 없어지지 않았어"라는 아버지 말씀은 위대한 교훈 노릇을 했다고 합니다.

니코스의 아버지는 문간에 서서 '어떤 재난이 와도 굴하지 않겠다' 는 마음을 다졌을 것입니다. 하늘이 우릴 버릴지라도 '우리는 죽지 않아' 라고 하늘을 향해 독기어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고통과 재난도 우리를 없어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고통의 종류는 경제적인 손실, 배반, 이별, 죽음, 사업실패, 실직, 실연 등 참으로 많습니다. 누구나 고통은 두렵고 도망치고 싶은 그런 것입니다. 고통을 당했을 때 고통으로부터 도망치려는 사람도 있고, 고통을 적극적으로 극복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통의 얼굴을 보지 않고 도망치려는 것은 자신의 삶 일부분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고통에게 등을 보여서는 절대 안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주시하면서 고통의 실체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알면 정복당하지 않고 오히려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고통 없는 삶은 없습니다. 자신에게 닥치는 시련과 고통은 자신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육지장사 회주〉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박종수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대 구 지 사 : 010-2813-8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선치료 명상 과학 센타
제6차크라 젠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전 11시

4차 산업혁명과 AI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의 대체의학인 젠에너지체(밀교의 의성신 · 금강신)를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수 행 : 고타마 싯다르타(석가모니)부처님의 호흡법을 발견, 전수함. (아나빠나사띠숫타)
■ 부처님말씀 (아나빠나사띠숫타) : 1.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한 삼매을 닦고 많이 공부지으면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2. 들숨날숨을 통한 알아차림에 대한 삼매을 닦으면 – 몸도 피로하지 않았고 눈도 피로하지 않았고 나의 마음도 번뇌로부터 해탈하였다.
3. 호흡의 전과정(길고, 짧고, 거칠고, 미세한)을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리라.
■ 특 징 : 제 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피부호흡)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 (젠에너지체 – 행주좌와어묵동정)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호흡 선정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 (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2-393-8027 (젠에너지 치료 예약 접수)

제6차크라 젠에너지 치료 명상가 처명선광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수료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전)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후원계좌 : 국민은행 (371101-04-120586 박성호)

제6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

2015년 8월 4일

2017년 1월 9일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처명선광) 검색

붓다의 호흡법 연구소(소장:처명)
라이브 방송
페이스북 | 매주 수요일 밤 10-11시

옥천범음대학 인류무형문화유산 유네스코(UNESCO)
2020학년도 신(편)입생 모집

옥천범음대학은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부설기관으로써 1968년 옥천범음회를 최초로 시작되었습니다. 1973년 국가무형문화재 제 50호 "범패"로 지정, 1987년 "영산재" 보존회로 단체 지정되었습니다. 2009년에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불교의식의 전문성과 전통성을 높이고, 인재양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응시자격
▷ 입학과정 : 승려 및 포교사, 법사, 재가불자, 관련학과 (음악, 무용과) 등 일반인
▷ 편입과정 : 동일계열 상주권공 수료자
▷ 제출서류 : · 입학원서(본교소정양식)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반명함판 사진 3매
· 승적증명서 및 수계증 사본(해당자) 1부
▷ 전형일정 : 2020년 2월 10일 (월) ~ 2월 27일 (목)
▷ 원서교부 및 접수처 : 본교 행정처 및 홈페이지
▷ 특 전
· 출가승려(법계 미품수자)로서 학사변동에 이상 없을 경우 4년 과정을 정상수료시 태고종승려에 한하여 중덕법계 품수 응시자격을 부여.
· 성적우수자에게 각종 장학혜택 부여하고, 국내외 공연시 우선 선발.

▷ 신입 및 수료과정

모 집	교수내용	교수진	요 일	모집인원
1학년 [상주권공 I]	불공 / 시식 / 예불 / 상주권공 및 작법	마일운 스님	월	30명
2학년 [상주권공 II]	시련 / 대령 / 관욕 및 상주권공재의식 시연	김태호 스님	수	편입생 약간명
3학년 [각배]	각배과정	조인각 스님	목	
4학년 [영산]	영산과정	이기봉 스님	금	
불교의식 이론	불교의식(이론)	심만춘 스님	화	★
	영산재의 행위전승학습			

※ 졸업자에게는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보존회 회원자격을 부여하고 기능이 인정되면 전수생으로 지정

입 · 학 · 문 · 의 www.okchunbud.kr
03721 서울 서대문구 봉원사길 120
Tel (02)392-3234 Fax (02)392-3239
국가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 부설 옥천범음대학
인류무형문화유산 유네스코 등재

“수행은 내 학문과 삶의 발원”

이강옥
(영남대 교수)

힘든 어린 시절 수행 계기
20대 때 출가 시도, 불발

송광사에서 롱아일랜드까지
단기, 안거, 무문관 수행 등
속세에서 꾸준한 수행 실천
佛法으로 우울증 잘 치료해

불교 통해 넓은 문학사연구
〈구운몽〉으로 분별심 치료
“불교문학 비중있게 다뤄야”
퇴임 후 수행 · 봉사 계획

글 · 사진=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수행’ 이라는 것은 이제 불교에서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형식과 내용, 개념 모두 다양해지고 있다. 과연 ‘수행’ 이라는 것은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새로 나온 책 〈깨어남의 시간들〉은 정년퇴직을 앞둔 국문학자가 오랜 세월 동안 체험한 수행의 기록을 담고 있다. 저자는 영남대학교 국어교육과 이강옥(64) 교수다. 이 교수는 20대에 출가를 시도했지만 속세의 인연을 끊어내지 못하고 세속에서 수행을 실천해왔다. 그는 수행으로 체득한 경험들을 학문연구와 삶의 원동력으로 삼았다. 그에게 수행은 삶의 근간이 되었다. 불교문학을 재조명하는 등 일가를 이룬 학자로서의 삶도 힘겨운 시간을 건너온 인간으로서의 삶도 모두 수행이라는 깊은 시간을 거쳤다. 책에서도 밝혔듯 그에게 삶과 수행은 하나다. 그리고 그 수행은 오롯이 불법(佛法)에서 시작된 것이다. 2월 14일 영남대학교 사범대 연구실에서 이강옥 교수를 만났다.

깨어남의 시간들…삶으로 들어온 수행

이 교수는 경상남도 김해에서 태어났다. 그의 어린 시절에는 잔잔한 시간이 많지 않았다. 일찍부터 삶에서 죽음을 보았고, 가난의 어려움을 경험해야 했다. 홍수로 강이 넘치면 각종 쓰레기와 익사체들이 떠내려 왔다. 오열하는 이웃의 슬픔은 결코 남의 슬픔이 아니었다. 가난한 삶에서 오는 슬픔과 가난을 나누어 가진 이웃의 그늘을 보면서 어린 이 교수는 자랐다.

그런 삶의 환경은 어린 이 교수를 내향적인 성향으로 이끌었다. 혼자 있기를 좋아했다. 혼자 깊은 생각에 빠져 있을 때가 많았다. 생각이 많았다. 그 깊은 생각들이 그를 깊은 곳으로 깊은 곳으로 이끌었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일일이 시비를 가려내야 마음이 놓였고, 그 엄격함은 자신의 삶에도 그대로 이어졌다. ‘완벽한 선(善)’ 은 어린 이 교수에게 절대가치였다. 스스로에게 엄격한 잣대는 스스로를 힘들게 했고, 종종 감당하기 힘든 엄격함은 우울증으로 이어졌다. 이 교수는 대학생이 되어서도 그 엄격함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키우면서 어느 정도 달라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그의 삶은 딱딱했다.

이 교수의 ‘수행’ 은 20년 전 송광사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거금도 송광암, 롱아일랜드, 부산 안국선원, 봉화 금봉암, 행복공장 등 무문관 수행과 단기 출가, 안거까지 이어 갔다.

“수행의 목적은 분별망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무아(無我)’ 를 명확하게 깨닫고 내면화하면 화를 낼 주체가 없습니다. 불법(佛法)의 핵심 사상인 연기를 깨닫게 되면 나와 남이 다르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분별심이 사라집니다.”

수행을 통해 분별하는 마음이 사라졌을 때 그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된다고 했다. 판단의 엄격한 잣대를 버리고 있는 그대로 존재를 보게 되며 소중한 그 자체로 인정하게 된다는 것이다. 오로지 제대로 된 수행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결과라고 했다. 책을 읽고 경전을 공부해도 직접 수행을 통해 얻는 깨달음만이 삶을 변화시킨다고 강조했다.

수행의 결과로 얽매인 마음이 열리고 모든 생명을 자비심으로 바라보게 됐다. 그리고 학문의 폭도 넓어지게 됐다.

문학연구로 이어진 수행

이 교수는 소설가를 꿈꿨던 문학도였다. 서울대학교 국문학과를 졸업하고 박사학위를 받았다. 젊은 문학도였던 이 교수는 어느 날 일본 제국주의가 주장한 ‘이식론(移植論)’ 을 읽고 분개했다. 이 교수는 사실주의 문학연구를 위해 야담을 전공으로 선택했다.

“일본은 ‘조선은 주체적으로 근대문학 특히 근대사실주의 문학을 만들어 낼 능력이 없다’ 며 조선을 위해 일본이 먼저 서구 사실주의 문학을 도입해 이식해 준다고 주장했습니다. 뿌리 깊이 박혀있는 이식론을 반박하고 근대사실주의 소설의 형성, 근대문학의 형성을 주체적으로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시대적 소명이었습니다.”

이 교수는 식민사관을 극복하기 위해 조선후기 사실주의 문학인 실학문학, 야담 등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연구 성과를 인정받기 시작했다. 이 교수는 〈한국 야담의 서사세계〉, 〈한국 야담 연구〉, 〈일화의 형성원리와 서술미학〉, 〈조선시대 일화 연구〉 등을 집필하며 한국 근대사실주의 문학을 증명했고 국내 최초로 〈청구야담〉을 번역했다. 이 교수는 연구 공로를 인정받아 성산학술상(1999), 천마학술상(2008), 지훈국학상(2015)을 수상했고 한국구비문학회, 한국어문학회, 한국고전문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이 교수는 “불교 수행을 통해 학문을 연구할 때 형식적으로 정해져 있는 논리의 한계도 넘어설 수 있고 다채로운 방향으로 학문 대상을 재정의 하고 자유로운 글쓰기가 가능해져 연구가 더 즐거워졌다”며 자신의 학문연구는 “불교수행으로 얻은 지혜로 야담서사에서 자비심을 읽어 낼 수 있어 가능했다”고 말했다. 그는 학문연구의 폭을 넓힐 수 있었던 원동력을 불교에서 찾았다고 했다.

이 교수는 이식론을 반박하는 근대 사실주의 문학 입증 뿐 아니라 인간 군상의 감정과 절망을 담은 야담 연구에도 집중하기 시작했다. 이는 사실주의 문학을 연구하는 학자에겐 돌출된 행동이었고 범위가 광범위해서 학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특히 고대소설 〈구운몽(九雲夢)〉을 연구하며 그의 불교적 안목이 빛을 더했다. 〈구운몽〉의 스토리를 완벽하게 불교적으로 재해석하고 꿈을 활용한 우울증 수행치료에도 접근했다.

2010년 11월에 출간한 〈구운몽의 불교적 해석과 문학치료교육〉에는 “삶에 대한 허무함으로 방황하던 제가 〈구운몽〉에 대해 남다른 애착을 가지게 된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분별심에 빠져 자기 학대라는 고질병을 앓고 있던 저에게 〈구운몽〉은 치유의 힘과 방법을 제공했다”고 했다.

그는 〈구운몽〉에서 발견한 불교의 진리를 치유의 밑거름으로 삼았다.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을 만나고 활동하며 2013년에는 일반문학치료전문가 자격증도 이수했다.

2018년에는 우울증 수행치료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구운몽과 꿈 활용 우울증 수행치료〉를 발간하고 상담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프로그램을 구체화했다. 이 교수는 한국문학사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방대한 양으로만 따져 봐도 불교문학은 우리 문학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불교에 대한 지식도 없을 뿐 아니라 수행 경험이 없어 일반 학자들은 그 심오한 불교문학을 다룰 수 없습니다. 〈삼국유사〉, 〈해동고승전〉, 선시, 오도송 등 불교문학은 문학사에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합니다. 〈불씨잡변〉은 조선시대 불교를 비판하기 위해 성리학을 바탕으로 정도전이 집필한 책입니다. 조선의 유교정신을 앞세우기 위해 불교를 비판한 책인데 불교에 대한 올바른 이해 없이 집필되었습니다. 잘못된 책들을 바로 잡는 바람직한 비판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까지 보살행으로

퇴임 후 계획을 물었다. 이 교수는 “퇴임이 무척 기다려진다”고 했다. 수행과 봉사에 전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원했던 보살행의 구체적 계획을 말했다.

“저는 내후년 대학교수로 정년을 맞이합니다. 은퇴를 하면 오로지 수행정진과 봉사에 전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가 무척 기다려집니다. 그동안 저는 정말 귀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는 수행공간을 중심으로 하여 봉사하고 보시하는 것으로써 은혜에 보답할까 합니다”

이 교수는 동안거와 하안거 수행, 3년 무문관 수행을 체험하고 우울증 환자들을 위한 상담과 치료에 전념할 것이라 밝혔다.

“나는 그렇게도 편안하고 평화로운 시간과 공간을 경험한 적이 없었다. 내 의식도 그렇게 청정하고 명징한 적은 없었다.…내 속에서 간절한 마음이 생겨났다. 내게 남은 이생의 시간을 잘 써서 이 특별한 사바를 장엄하고 싶다. 여전히 번뇌 망상의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나 자신과 중생들에게 한없는 위로와 힘이 되리라는 보살심이 일어났다”

책 〈깨어남의 시간들〉에서 읽은 그의 발원이다. 그는 “어떤 고난과 욕됨도 참고 기꺼이 받아들이며 중생을 구원하는데 지치거나 싫증내지 않는 보살의 삶을 살기로 했다”고 적었다. 이것이 그의 행복이라 했다.



이강옥 교수는… 경남 김해에서 태어났다. 서울대학교 국문학과를 졸업하고 박사 학위를 받았다. 경남대학교 국문학과에서 봉직했고, 영남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예일대학교, 뉴욕주립 스토니부룩대학교에서 방문학자로 연구했다. 야담과 일화, 〈구운몽〉을 많이 연구했다. 불교 수행과 〈구운몽〉 읽기를 활용한 우울증 수행치료 프로그램을 만들어 상담해 왔다. 성산학술상, 천마학술상, 지훈국학상을 수상했다. 고우 스님으로부터 원봉(圓峯)의 법명을 받았다. 〈한국 야담의 서사세계〉, 〈한국 야담 연구〉, 〈일화의 형성원리와 서술미학〉, 〈조선시대 일화 연구〉, 〈구운몽과 꿈 활용 우울증 수행치료〉, 〈구운몽의 불교적 해석과 문학치료교육〉, 〈보이는 세상 보이지 않는 세상〉, 〈젖병을 든 아빠, 아이와 함께 크는 이야기〉 등을 저술했고, 〈청구야담〉을 번역했다.



2019년 동안거 송광사 대중공양 후.



2011년 미국 동아일랜드 동안거.



이 교수는 고우 스님(가운데)으로부터 ‘원봉’ 이란 법명을 받았다.



2001년 송광사 여름수련법회 기념사진.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2/19~2/25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스스로 행복하라 : 법정스님 열반 10주기 특별판	법정스님	샘터
2	낡은 옷을 벗어라	법정스님	불교신문사
3	생명과학과 불교는 어떻게 만나는가 : 생명현상과 연기 그리고 공	유선경/홍창성	운주사
4	안녕 다람 살라	청전스님	운주사
5	요가 디피카	현천스님	선요가
6	수좌적명 : 봉암사 수좌 적명스님의 유고집	적명스님	불광출판사
7	성자와 범부가 함께 읽는 금강경	김원수	청우당
8	세계는 한송이 꽃이라네 : 진광스님의 쾌활 순례 서화집	진광스님	조계종출판사
9	법정스님 눈길 : 법정스님 결따라 사랑을 명상하다	변택주	큰나무
10	붓다의 연기법과 인공지능	조애너메이시/이중표	불광출판사

책세상



운경 스님,
스님이 계셔서 행복했습니다
운경문도회 펴냄/사유수출판사 제작/비매품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포교 원력' 매진… 인간미 넘친 선사

운경당 기홍선사 20주기 추모집
기록과 50여 명 인터뷰로 엮어져
생애 · 사상 · 업적 · 사진 총망라
청소년 포교 · 군포교 · 도심포교
한국불교 포교사 '운경' 재조명돼



한국불교 근현대 포교사에 큰 업적을 남기고 봉선사 재건에 일생을 헌신했던 운경당 기홍 선사의 생전 모습. 〈운경 문도회 제공〉

한국불교 근현대 포교사에 큰 업적을 남기고 봉선사 재건에 일생을 헌신했던 운경당 기홍선사의 추모집 〈운경 스님, 스님이 계셔서 행복했습니다〉가 출간됐다.

"은사스님께서 입적하신 지 벌써 20년이 되었다. 지난 18주기 기신제 때 상좌들이 모여 더 잊혀지기 전에 스승에 대한 추모의 기억이라도 남기자는 논의를 했다. 평소 은사스님이 일체 흔적을 남기는 일을 원치 않으시는 성품인 것을 잘 알기에 조심스러웠으나 후대의 기록을 위해 생전에 준비했던 자료와 새로 모은 기록을 종합해서 스승의 일생을 조명하게 되었다."(운경문도회 문장 의정 스님의 발간사 중 일부)

운경문도회가 운경 스님(1904~2000)의 열반 20주기를 맞아 2년여의 준비 끝에 출간한 추모집은 운경 스님의 생애와 사상, 업적, 일화와 관련 사진, 유품 등을 촘촘하게 소개하고 있다.

운경 스님은 제방에서 20여 안거를 성만하며 만공 스님을 금강산 유점사 선원의 조실로 모시는 등 우리불교에서 금강산 시대를 마지막으로 경험한 세대다. 포교의 암흑기였던 1960년대에 운경 스님이 시작한 청소년포교, 군포교, 도심포교, 재소자 교화 등 경기도 의정부 지역을 거점으로 했던 포교불사는 한국불교 포교사의 전무후무한 역사로 남았다. 당시 스님이 창립한 삼보불교학생회는 한국청년포교의 새로운 길을 열었으며, 현재까지 그 면면이 한국불교 포교불사에 이어지고 있다. 일제강점기에는 독립운동에 앞장섰으며 6 · 25 한국전쟁으로 전소된 봉선사 중건 불사에 일생을 헌신했다. 봉선사 교화원장, 조계종 원로위원, 광동학원 이사, 봉선사 주지와 조실을 지내며 경계 없는 불사를 남겼다. 2000년 2월 27일(음, 1월 23일) 오후 8시 20분 봉선사 다경실에서 문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원적에 들었다.

책은 제1장 '출가와 수행', 제2장 '운경과 봉선사', 제3장 '의정부불교의 황금시대를 열다', 제4장 '자비보살 운경을 기억하다', 제5장 '운경, 원적에 들다', 제6장 '스승 운경을 마음에 담다', 제7장 '언론에 실린 운경 스님', 제8장 '영결사, 추도비문', 화보, 운경당 기홍선사 연보, 운경문도 문보 등으로 구성됐다.

△제1장 '출가와 수행'에서는 유복자로 태어나 어린 나이에 외할머니와 살게 된 이야기, 외할머니를 따라 절에 간 이야기, '필제'라는 속명이 출가의 단초가 되어 출가발심한 이야기, 행자생활을 시작하면서 만나게 되는 불법(佛法)과 염불 등 불제자가 되어 가는 과정, 행자 필제에서 사미 기홍으로, 〈화엄경〉과 기도로 단단해지는 기홍, 강원 공부와 선방 안거, 유점사 시절과 만공 스님 인연이야기 등을 소개한다.

△제2장 '운경과 봉선사'에서는 봉선사와 월초문도를 소개하고, 은사 태오 스님으로부터 받은 법호 '운경', 평생의 부침이 된 독립운동 사건, 한국전쟁으로 폐허가 된 봉선사와 탁발로 일으킨 봉선사 중창불사 이야기, 인재불사의 중요성을 깨닫고 광동학원 설립에 앞장섰던 이야기, 운허 스님과의 인연, 90세에 봉선사 주지가 된 이야기 등을 소개한다.

△제3장 '의정부 포교의 문을 열다'에서는 운경 스님이 한국불교 근현대 포교사에 전무후무한 불사를 남기게 되는 의정부 포교시대를 본격적으로 소개한다. 독립운동 사건으로 인한 평생의 부침을 부침으로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포교'라는 원력의 동력으로 삼아 평생을 매진한 운경 스님의 의정부 포교 이야기는 추모집의 중심이다. 시대적으로 포교의 저변이 전무했다고 할 수 있었던 1960년대 시작된 운경 스님의 의정부 포교는 한국불교의 포교사를 새롭게 썼다고 할 수 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포교의 원력을 놓지 않고 만나는 대중 하나하나에 정성을 쏟았던 스님의 생애를 촘촘하게 소개한다. 작게 살고 춥게 살고 부족하게 사는 것을 작지 않고 춥지 않고 부족하지 않게 살았던 스님의 선지가 행간마다 묻어있다.

포교의 시작이 된 의정부 포교당 개원, 청소년 포교의 새로운 역사가 된 의정부중학교 불교학생회, 그리고 청소년포교의 신화가 된 삼보불교학생회 창립, 의정부의 축제가 된 백련예술제 등을 소개하고, 청소년포교와 함께 운경 스님의 또 하나의 포교 시그니처인 군포교 이야기들을 소개한다. 김덕수, 성우 스님, 성광 스님 등 현장에 함께 있었던 군법사들이 당시의 일화를 통해 군포교의 뜨거웠던 시절을 이야기한다. 또한 의정부 포교의 원대한 회향 자비정사, 봉화정사 등을 소개한다.

△제4장 '자비보살 운경을 기억하다'에서는 '호가람 호삼보 하라' '염불일승' '기도일승' '자비보살' '덕화보살' '아이들의 사탕 할아버지' 등 운경 스님이 평생 남기고 실천했던 말씀과 덕목, 삶의 이야기들을 단편들로 나누어 소개하고 있다. 운경 스님을 기억하는 모든 인연들이 스님의 생전 모습 중에서 가장 잊지 못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보였던 따뜻한 미소다. 한 세기를 따뜻한 얼굴로 살았던 스님의 생전 모습을 그리고 있다.

깊은 새벽, 맑은 쇳송이 사바를 물들인다. 쇳송이 시작된 포교당의 종은 용뉴도 비천상도 불보살상도 없는 쇠깡통이다. 그 소박한 쇳송으로 올리는 새벽예불의 진경은 운경 스님 생애의 명장면 중의 하나다. 운경 스님은 예불을 철저하게 그리고 제대로 모셨던 스님으로 유명하다.

△제5장 '운경 원적에 들다'에서는 육신의 인연을 다하는 순간에도 "관세음보살"을 입에서 놓지 않았던 불제자 '운경'의 마지막 모습을 그린다. 봉선사 다경실에 몸을 뉜 선사는 어렵게 맺은 제자들의 인연과 몸소 이룬 불사들 속에서 '관세음보살'을 부르며 눈을 감는다. 선지식이 마지막으로 세상에 남긴 것은 네 줄의 열반송. "허깨비 세상 구십 년을/ 되돌아보니 우습구나/ 오늘 아침 몽땅 떨어버리니/ 대천세계 한빛이로다"

△제6장 '스승 운경을 마음에 담다'에서는 의정, 정수, 준원, 호산, 보인, 의광 스님 등 은법상좌 스님들을 소개한다. 상좌스님들은 생전의 스승을 떠올리며 스승을 다시 한 번 마음에 담는다.

△제7장 '언론에 실린 운경 스님'에서는 현대불교신문을 비롯한 언론에 실린 운경 스님의 인터뷰기사, 법문 등을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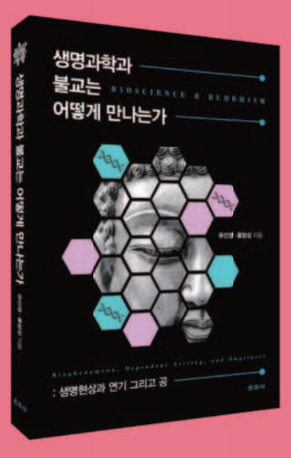
△제8장 '영결사, 추도비문'에서는 영결사, 종정법어, 추도비문을 소개한다.

△제9장 '화보'에는 다비식 장면 등 스님을 기억할 수 있는 사진들을 실었다.

운경 스님의 입적 20주기를 맞아 출간된 추모집은 관련 논문, 기사, 영상 등의 기록물과 생전에 인연을 맺었던 사부대중 50여 명의 인터뷰를 통해 엮어졌다.

상좌 정수 스님은 "우리 문도들은 지금이라도 후손들을 위하여 스승의 진실된 모습을 남겨주어야겠다는 생각에 마음을 모아 스승을 기억하는 사부대중을 찾아 동분서주하면서 사진과 자료를 받아 한 권의 책으로 엮게 되었다. 참으로 감격스럽고 스님의 모습을 기억하고 싶어 하는 많은 분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줄 수 있다는 생각에 감사드린다."고 간행사를 통해 간행의 뜻을 밝혔다.

불교를 통해 생명현상을 이해하고,
생명현상을 통해 불교를 이해하다!



생명과학과
불교는
어떻게 만나는가

본질주의에 입각한 서구의 생명과학은 생명현상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 불교의 연기와 공의 관점만이 현대 생명과학이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유선경, 홍창성 지음/국판 무선/336쪽/값 15,000원

30년 동안 다람살라에 머물며, 스승 달라이 라마를 모시고
수행과 봉사의 삶을 살아온 청전스님이 풀어놓는 이야기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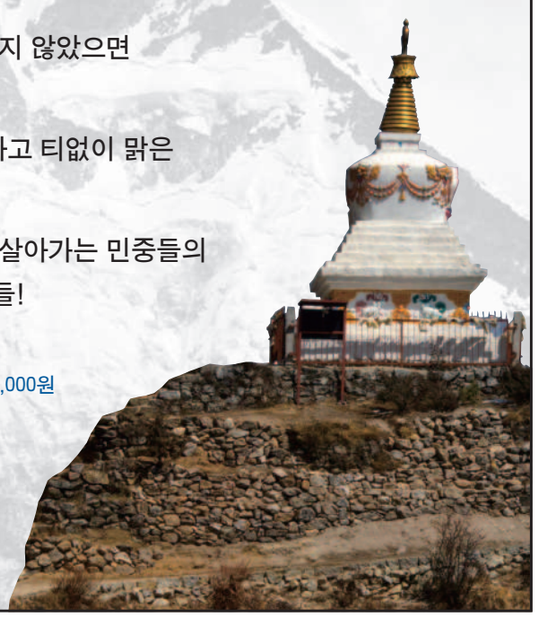
안녕, 다람살라

달라이 라마를 직접 모시지 않았으면
경험하지 못했을 일화들!

어린아이처럼 순진무구하고 티없이 맑은
노스님들의 이야기!

오로지 부처님만을 믿고 살아가는 민중들의
소박하고 감동적인 모습들!

청전 지음/국판 무선/200쪽/값 14,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오늘에 맞는 '우리그림' 모색



자원스님 58X185cm 연화도 지본채색.

아카데미 선그림 제10회 회원전

서울 동덕아트갤러리 2월 26일~3월 2일
불화 · 민화 · 단청 · 궁중화 등 분야 다양
선유 스님 · 고성은 등 작가 12명 참여해
전통 우리그림 창의적 재구성한 현대미술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가장 한국적인 그림을 모색하는 전시가 열린다. 우리그림을 사랑하는 이들의 모임인 아카데미 선그림(회장 이지현)이 창립 10주년을 맞아 2월 26일부터 3월 3일까지 서울 종로구 동덕아트갤러리에서 제10회 회원전 '우리그림 이야기'를 개최한다.

전시에는 선유 스님, 고성은, 김은정 등 12명의 작가가 참여해 불화와 민화 등 2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아카데미 선그림은 우리의 역사와 현재가 함께 살아 숨 쉬는 서울 북촌에서 우리그림을 그리고 공부하는 일반인들의 모임이다. 아카데미 선그림의 회원들은 우리그림 특유의 은근한 멋과 깊은 맛을 해학적인 소재와 구성으로 재미나게 그려내고 있다.

우리그림은 궁궐이나 사찰뿐만 아니라 여염집의 안방과 부엌에서도 그려지고 새겨져 우리와 함께 생활해 온 그림이다.

'천개의 눈과 손을 자랑하는 자애로운 보살님', '금빛으로 탐스럽게 그려진 화중왕 모란' 등 이번 전시에서 선보이는 아카데미 선그림의 그림은 엄숙하고 어렵게 생각되는 불화와 불교적 소재들을 지금 우리의 감성에 맞게 편안하고 아름다운 그림으로 재해석한 작품들이다. 또한 낡고 고리타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전통적인 그림과 기법들을 창의적 소재와 재료들로 재구성한 현대미술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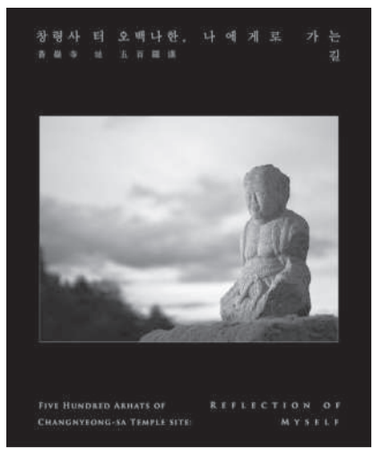
아카데미 선그림은 2009년에 창립된 선아트스페이스의 교육기관으로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전통 채색화를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모임이다. 불호, 단청, 궁정화, 민화 등 우리의 옛 그림들을 현대의 우리 감성에 맞게 재창조하고 소재, 기법, 재료 등을 다양하게 시도하고 접목하여 현재의 우리 그림을 그리고 있다.

아카데미 선그림이 '전통채색화'를 모색하는 이유는 전통채색화를 재조명하기 위해서다. 우리의 옛 그림들은 보는 이, 받는 이를 위한 소망과 기원을 담는 그림으로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마치 불교의 이타행과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아카데미 선그림이 추구하는 그림은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오늘날의 인류에게 미술을 치유적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이며, 우리그림은 타인의 행복을 기원하는 이타형의 그림이라는 것을 재확인하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다.

아카데미 선그림은 2009년 창립 후 지금까지 매년 정기회원전을 열어왔다. 이번 열 번째 정기회원전은 아카데미 선그림의 지나온 10년을 회고하고 앞으로의 10년을 설계하는 전시다. 종교, 연령, 성별, 직업 등이 다양한 회원들이 우수한 우리그림의 미래를 모색하기 위한 전시다. (02)733-0730.

도록으로 만나는 창령사 터 오백나한

국립 춘천博 '창령사 터 오백나한' 특별도록 발간



창령사 터 오백나한 특별도록 표지.

특별전 '창령사 터 오백나한' 정리
200여 컷 사진 · 글 미공개 사진도
이근배 시인, 전상국 소설가 등 참여
휴정 등 조선시대 고승들 선시도

국립춘천박물관(관장 김상태)은 국립박물관문화재단과 함께 특별도록 〈창령사 터 오백나한, 나에게로 가는 길〉을 발간했다. 도록은 2018년 특별전을 통해 소개되면서 강원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유산으로 주목받게 된 영월 창령사 터 오백나한을 담고 있다.

이번에 출간한 도록은 창령사 터 오백나한을 집중적으로 다룬 첫 번째 사진집이다. 미소띤 나한, 생각에 잠긴 나한, 합장하는 나한, 바위 뒤에 앉은 나한, 노을 속에 서있는 나한, 달빛에 물든 나한 등 오백나한의 다양한 표정과 몸짓을 오롯이 감상하고 이해할 수 있는 200여 컷의 이미지와 관련된 글을 실었다. 특히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작품 사진들이 포함됐다. 전시를 통해 볼 수 없었던 나한들을 볼 수 있어 특별도록 발간의 의미를 더한다.

또한 특별히 대한민국 예술원 회원 이근배, 정현종 시인, 전상국 소설가가 오백나한을 마주하고 쓴 글과 휴정을 비롯한 조선시대 고승들의 선시를 수록했다.

특별도록 발간과 함께 올해부터 상설전시로 공개된 새로운 전시 '창령사 터 오백나한_나에게로 가는 길'은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참여형 전시로 꾸며져 있어 관람객이 오백나한 사이에 '소망 기원 돌탑'을 쌓을 수 있다. 정성스럽게 쌓은 아기자기한 돌탑이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 이채로운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다.

2001년 발굴된 영월 창령사 터 오백나한은 2018년과 2019년 특별전을 통해 많은 대중에게 알려지면서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춘천과 서울, 부산까지 2년여에 걸쳐 개최된 특별전을 통해 그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높은 관심은 상설전시('창령사 터 오백나한-나에게로 가는 길')로 이어졌다. 지난해 12월 문을 연 춘천박물관의 상설전시는 기쁨, 슬픔, 희망, 분노 등 우리들 일상의 마음을 담고 있는 오백나한과 나에게로 떠나는 여정을 시작하는 공간이다. 다른 문화재에서 느낄 수 없는 오백나한의 독특한 매력을 언제든지 느낄 수 있는 휴식과 치유의 공간이다.

오백나한은 아라한과를 증득한 오백의 성인을 말한다. 부처님 재세 시 수제자 및 부처님 열반 후 제1차 결집과 제4차 결집을 수행한 장로비구 오백 명을 말한다. 후대에 존상으로 형상화되었으며, 경전에 전하는 해당 장로들의 기사들이 존상 제작의 근거가 되었다.

박재완 기자

세계유산 부여 정림사지 주민에게로

부여군, 3월 20일부터 무료 야간개방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백제역사유적지구 부여 정림사지가 무료 개방된다. 부여군(군수 박정현)은 "문화재 보존 · 관리와 더불어 문화재에 숨결을 불어넣고 주민들의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문화재에 대한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부여 정림사지를 오는 3월 20일부터 무료로 야간 개방한다"고 밝혔다.

무료 야간개방 운영 시간은 하절기(3~10월)는 오후 6시부터 11시까지며 동절기(11~2월)는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다. 야간 개방에는 누구에게나 자유롭게 정림사지를 관람할 수 있다. 다만, 정림사지 박물관은 제외된다.

부여군은 현재 정림사지 이외에도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인 부소산성과 관북리유적을 야간에 개방하고 있으며, 능산리고분군도 내년 야간 경관조명 사업이 완료되면 추가로 개방할 예정이다. 부여군은 "단지 문화재 보존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좀 더 일반인들에게 다가가고 삶 속에서 함께 호흡하는 문화재 활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야간 무료 개방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신성민 기자

'경자년 신도용 신작 찬불가 333곡 선집' 발간

한국불교청소년문화진흥원 산하 대한불교찬불가제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신작찬불가 통권 제35집 〈경자년 신도용 신작찬불가 333곡 선집 · 곽영석 엮음〉을 발간했다.

책은 위원회의 작사, 작곡, 가창지도, 합창단 회원들의 재능보시로 만들어진 연간집이다. 책에 수록된 작품의 저작권은 작가 개개인에게 귀속되며, 악보관리는 발행 후 20년간 대한불교찬불가제정위원회가 관리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불자 저작인은 사무국(02-25-3002), 전용메일(kbm0747@hanmail.net)로 문의하면 된다.

박재완 기자

복과 덕 지혜의 불교 - "부지런해야 복이 크고 베풀어야 덕이 자라며 배워야 지혜가 난다"

2020년 제 56기 **동산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불교학과 2년 과정 3월 5일(목) 오후 2시 개강

주간반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저녁반**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통신반** (사이버강좌)

1년차	과 목	①불교의 체계적 이해 ②불교예술과 문화 ③선불교 ④근본불교 ⑤반야사상 ⑥유식불교
	교수진	법산경일대종사(학장), 최종석, 이미령, 윤열수, 법인스님, 김호귀, 최봉수
2년차	과 목	⑦인도불교 ⑧중국 · 한국불교 ⑨법화경 ⑩대승불교 ⑪정토사상 ⑫화엄경
	교수진	황순일, 김경집, 김상영, 차차석, 최봉수, 최종석, 김선희

• **모집인원 :** 100명(주간반, 저녁반, 통신반 각 30명 내외) • **원서교부 및 접수 :** 2020년 2월 ~ 3월 5일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입학금 20만원 • **문 의 :** 02)732-1206
※ 졸업생은 한국불교교육단체(한불련) 포교사 고시를 거쳐 포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학과 개강일시
• **불교다도학과** 3월 10일(화) 오후 2시 • **불교미술학과** 3월 5일(목) 오전 10시
• **전통범패의식** 3월 4일(수) 오후 2시 • **한글불교의식** 3월 7일(토) 오후 2시

불교가 궁금한 사람들을 위한 **불교기본교리 3개월 과정** : 3월 7일(토) 오후 2시 개강

불교교육 전법도량 동산반야회 **동산불교대학**
사무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1 (동산불교회관)
Tel : 02)732-1206~8 Fax : 02)732-1207 http://www.dongsnabud.net

종교상담사 자격 교육

귀장술비법

찾아온 (시간 · 일진)으로 왜 왔는지?
현재 그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습니다
내방자의 사주만 가지고 궁금증을 확실하게 예언할 수 있는
최고의 비법입니다
육임보다 쉽고 더 확실한 점술학...
(명리학을 잘 몰라도 됩니다)

제1기 종교상담학과 개설
☆ **현재 강의중 접수가능**
☆ 강의일시 매주 화요일 금요일 오후 2시~4시
☆ 선착순 30명 접수 ☆ 강사 : 도호스님

3개월완성으로 상담 가능하며. 누구나 쉽게 배우고, 완벽한 과학적 상담이 가능합니다

수강특전 해동불교대학원 종교상담과 수료증 수여 (총장 명의)

해동불교대학원 서울 종로구 종로17번길45
문의안내 02)741-0495~6

‘천수천족관음’ 조용한 인기몰이

日 관음하우스, 나가하마시 홍보차원서 전시

박영빈 객원기자

일본에서도 그 작례가 극히 드문 천수천족관세음보살상. 그 독특한 모습이 도쿄에 마련된 특별갤러리에서 조용히 인기를 끌고 있다. 2월 13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갤러리 ‘비와호 나가하마 관음하우스’의 모습을 보도했다.

도쿄 시내 우에노(上野)구에 마련된 불상 갤러리, ‘비와호 나가하마 관음하우스’는 일본 사가현의 나가하마(長浜)시가 4년 전 개설한 특별 전시장이다. 시 측은 “동 지역은 ‘관음의 고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관음신앙이 성행했다. ‘도쿄에 있는 나가하마의 관음당’이라는 콘셉트로 갤러리를 개설했다”고 전했다.

나가하마시는 일본 최대의 호수인 비와(琵琶)호의 북쪽에 소재한 도시. 7세기경 불교문화가 자리 잡고, 10세기경에는 호수에 근접한 히에이산(比叡山)의 영향으로 천태종이 성행했다. 특히 비와호 안의 섬인 치쿠부시마(竹生島)가 관음성지로 유명해지면서 관음신앙이 뿌리 깊게 박혔다. 현재 시내에만 130여 구의 문화재급 관세음보살상이 점재해 있다.

관음하우스를 시작한 계기에 대해 갤러리 측은 “지난 2014년 도쿄예술대학의 미술관에서 나가하마시의 불상특별전을 개최했다. 한 달 남짓한 시간동안 1만9천여 명의 관람객이 방문했다”고 당시의 상황을 전했다. 이어 “이후 2016년

관음신앙이 깊은 나가하마시
시내에만 관음상 130구 보유
천수천족관음 재전시 요청에
갤러리에 관음상 다시 선보여


일본에서도 유례가 드문 천수천족관세음보살입상. 사진출처=트위터

도에 개최한 2차 전시회에선 3만여 명이 방문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관음의 고장’을 모티프로 지역문화를 알리고자 2016년 이 갤러리를 개관했다”고 밝혔다.

약 4년간의 개관기간동안 다녀간 관람객은 6만여 명. 2개월씩 교대식으로 지금까지 전시된 관세음보살상은 총 18구다. 불상의 전시뿐만 아니라 전문가 관람 설명이나 미니 콘서트 등의 문화행사도 같이 열렸다. 현재 화제를 끌고 있는 ‘천수천족관세음보살상’은 두 번째 전시다. 이전의 전시에 다녀간 관람객들의 재전시 요구에 따라 다시 공개됐다.

전시 중인 천수천족관세음보살상은 17세기경 조성됐으며, 41㎝ 높이의 목조불상이다. 이름은 천수천족이지만 실제로는 40족 40수의 손과 발이 묘사되어 있다. 분노한 얼굴에 세 눈을 가진 상호, 머리에는 11면 관세음보살과 유사하게 9면의 보살면이 붙어있으며 정상에는 여래면이 조각돼 있다.

불상을 소장 중인 쇼묘지(正妙寺) 측은 “천수천족관음에 관한 기술로 가장 오래된 문헌은 13세기 초와 중기의 천태밀교에 관한 주석서”라며 이 도상이 천태밀교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특수한 불상임에도 이에 관한 의궤나 경전이 전하지 않기에 정확히 어떠한 신앙을 나타내는지는 불확실하다”고 밝혔다.

한편 나가하마시는 관음하우스를 오는 10월에 폐관한다고 밝혔다. 시 측은 “도시 브랜드 재구축의 상징으로 관음신앙 문화를 전하는데 일정의 성과를 달성했다”고 폐관의 이유를 말했다. 도쿄예술대학의 사츠마 마사토 교수는 “비와호를 감싸는 온화하고 독특한 풍토를 담아낸 듯한 불상들이 특징이다. 민중이 정성을 들여 모신 불상들인 까닭에 대가람에 모셔진 불상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다”고 나가하마의 관음상들을 평가했다.

“코로나19 감염자 쾌유 기원”

스리랑카불교, 곳곳서 전통의식 ‘삐릿’ 거행

스리랑카 불교도들이 중국과 합동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이하 코로나19)을 극복하길 바라는 염원을 담아 불교 의식을 곳곳에서 거행하고 있다.

뉴스인아시아(News in Asia)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스리랑카의 고대 수도 아누라다푸라에 위치한 아바야기리 바라하(Abhayagirivihara, 無畏山寺) 사찰은 코로나19 감염자들의 쾌유를 기원하는 ‘삐릿(pirith)’ 의식을 지난 2월 15일(현지시간)에 치렀다. 삐릿은 불운이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길 염원하며 경전을 암송하는 불교의 전통 관습이다.

해당 사원은 중국불교의 고승이자 학자인 법현(Faxian, 337-422) 스님이 약 1600년 전 다르마를 공부했던 곳으로 전해진다. 이곳에서 불자들은 주지인 칼란치예 라트나시리 테로 스님의 집전에 따라 코로나19 감염자의 쾌유와 사망자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했다. 테로 스님은 우한에서 3년간 공부했던 인연이 있다.

이에 앞서 이달 초에는 스리랑카의 고대 도시인 칸디(Kandy) 인근 산 중턱에 위치한 넬리갈라 국제 불교센터(the Nelligala International Buddhist Center)도 삐릿 의식을 거행했다. 스리랑카-중국 불교우호협회(SLCBFA)로부터 초청 받은 1000여 명의 불자들이 함께했다.


스리랑카 불교도들이 코로나19 감염자들의 쾌유를 기원하며 ‘삐릿’ 의식을 거행하는 모습. 사진출처=부디스트도어

아지스 다르마와데나 SLCBFA 부대표는 “현재 중국은 각국의 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감염자들의 빠른 회복을 빌기 위해 여기에 모였다”면서 “나는 중국 정부를 비롯한 각 당국이 코로나19 확산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한다”고 설명했다.

같은 시기 스리랑카의 상업 수도 콜롬보에 위치한 19세기 사찰 갠가라마야에서 열린 스리랑카-중국 언론인 포럼에서도 이와 유사한 불교 의식이 마련됐다. 박정현 객원기자

전일본불교회 “사형제 반대한 적 없다”

사형제 반대한다는 보도에
전일본불교회 ‘오보’ 규정
국민 80% 사형제에 찬성
정토진종 오타니파만 반대


전일본불교회 중 유일하게 사형제 폐지를 공식으로 지지한 정토진종 오타니파의 본산, 동본원사 전경. 사진출처=야후뉴스

전 세계적으로 사형제의 존폐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최대 불교협회가 사형제도 존폐에 대한 오보를 정정하고 나섰다. 2월 15일 일본의 ‘데일리 신쵸’는 ‘전일본불교회’의 공식 입장을 보도했다.

지난 1월 17일 일본정부가 발표한 여론 조사에서, 일본국민의 80.8%가 사형제 존속을 지지하는 것을 밝혀졌다. 한편 이 결과에 대해 1월 30일 일본의 조간신문들은 “일본 최대 불교협회인 ‘전일본불교회(이하 불교회)’가 사형제도를 반대했다”고 일제히 특집 보도했다. 조간신문들에 따르면 “1월 30일 열린 불교회 이사회는 ‘사형제는 불살생의 가르침과 모순’이는 이유로 사형제도 반대를 결의, 기자회견을 통해 공표할 것이라 밝혔다. 조직전체가 사형제를 반대하고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불교회는 일본 전국의 불교협회들을 비롯해 주요한 59개 종단, 106개 단체가 가맹한 일본 최대의 불교협회다. 종교계로는 무시할 수 없는 단체가 사형제를 반대한다는 데에 사형제의 존폐가 다시금 화제가 되는 것으로 해석됐다. 그러나 불교회는 2월 15일 홍보담당자의 명의로 “전일본불교회는 사형제 반대에 대해 입장을 표명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불교회 측은 “해당기사를 쓴 기자는 이전부터 사실관계가 잘못된 기사를 다수 게재한 바 있다. 1월 30일에 이사회가 열린 것은 맞지만, 사형제 반대에 관한 안건은 최초부터 올라오지 않았기에 기자회견이 열릴 계획도 없다”고 오보를 정정했다. 이어서 불교회는 “단, 당 회의 사회 · 인권 심의위원회에서 지난해 12월 2일 이사장 앞으로 사형제 폐지에 관한 논의 보고서를 정리해 제출한 바 있다. 앞으로도 불교회 내부에서 사형제 폐지에 관한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불교회에 가맹한 주요 종단들 가운데 사형제 제도 폐지를 명확히 공표한 종단은 정토진종 오타니파(大谷派) 뿐이며, 대부분의 종단들이 사형제 폐지에 대해서는 “진중하게 의논해야 한다”는 입장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정토진종 오파니파는 2차 대전 이후 전쟁과 인권에 대한 문제에 종단차원에서 접근하고 있기에 가장 먼저 반대 성명을 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오보를 낸 기자와 언론사는 오보에 대해 “해당 기사는 취재 끝에 게재된 기사”라는 입장만 밝혔을 뿐, 정정에 대한 특별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박영빈 객원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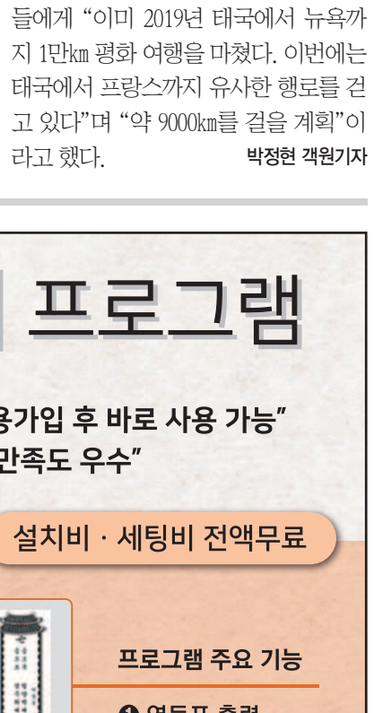
태국 스님들, 9000㎞ 순례 중단 위기

인도 라자스탄주서 통행금지 조치 받아

태국에서 프랑스를 향해 평화 순례길에 올랐던 13명의 스님들이 인도 라자스탄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인도에서 파키스탄으로 넘어가는 국경에서 제출해야 할 서류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힌두스탄타임즈는 2월 17일(현지시간) “태국 승려들이 라자스탄주(州)의 바머 지구에서 아쉬운 발걸음을 멈췄다”며 “이들은 바머의 국경 지역 입국을 허가받지 못해 당국으로부터 제지당했다”고 전했다. 스님들은 파키스탄 입국 비자를 가지고 있었지만, 바머 지구는 인도 내에서도 외국인 입국이 극히 제한되는 구역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스님들이 해당 구역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구청의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머 지역 경찰 관계자는 “13명의 태국 승려들이 평화 순례 중이며, 인도-파키스탄 간 입국이 가능한 단일 비자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안다”면서도 “하지만 그들의 여행 경로에는 구체적인 여행 경로가 언급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태국에서 출발해 프랑스까지 평화순례를 진행 중인 스님들. 사진출처=힌두스탄타임즈

그러면서 그는 “만약 태국 승려들이 이 길을 통과할 수 있는 서류를 마련해 온다면 우리는 통행을 허락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다시 되돌아가야 한다”고 부연했다.

스님들의 당국의 이 같은 조치를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이다. 순례단장인 프라 수담 나티통 스님은 현지 언론들에게 “이미 2019년 태국에서 뉴욕까지 1만㎞ 평화 여행을 마쳤다. 이번에는 태국에서 프랑스까지 유사한 행로를 걷고 있다”며 “약 9000㎞를 걸을 계획”이라고 했다. 박정현 객원기자



‘대행선 연구·진흥’ 올해도 이어진다

대행선연구원, 2020년 사업 ‘다채’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한마음 주인공 관법’ 이라는 생활선 수행으로 중생 교화에 힘쓴 묘공당 대행 선사(1927~2012)의 선사상과 한국불교학 진흥을 위한 대규모 학술공모사업이 올해에도 이어진다.

(재)한마음선원 부설 대행선연구원(원장 권탄준)은 “대행선 사상 연구와 불교학 진흥을 위한 학술대회와 학술상, 장학금 공모사업을 올해도 지속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오는 5월 16일 동국대에서 열리는 제4회 학술대회다. ‘불교사상과 대행선 사상’을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학술대회는 화엄 · 법화 · 정토 등 불교 전반의 사상체계와 대행선의 연관성을 살피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이병욱 고려대 교수가 ‘법화사상과 대행선 사상’을, 조준호 한국외대 인도연구소 연구원이 ‘정토사상과 대행선 사상’을, 안환기 서울대 교수가 ‘유식사상과 대행선사상’을 발표한다.

전성준 동국대 티베트장경연구소 연구원은 밀교사상과 대행선 사상의 연관성을 살피며, 김방룡 충남대 교수는 선사상과 대행선 사상을, 권탄준 대행선연구원장은 화엄사상과 대행선 사상의 상관관계를 고찰한다.

논평자로는 이기운(동국대), 문을식(동국대), 김성철(금강대), 김영덕(위덕대), 혜원 스님(동국대), 박보람(충북대)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생활선 수행으로 중생교화에 힘쓴 묘공당 대행 선사의 법호인 ‘묘공’을 인용해 제정된 ‘묘공학술상’ 공모는 올해에도 이어진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묘공학술상은 대행 선사의 가르침과 생애를 체계적으로 연구 조명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 제정됐다.

공모 분야는 대행선과 불교 역사, 사상, 수행, 문화, 포교, 계율 등 불교학 관련 모든 분야로 응모 자격은 박사학위 소지자 이상 선학과 불교학 전문가이다. 공모 기간은 3월 1일부터 31일까지다. 심사를 걸쳐 대상 수상자 1명에게는 1000만원, 우수상 2명에게는 각각 7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지난해 열린 대행선연구원 제3회 학술대회의 모습. 올해에는 ‘불교사상과 대행선 사상’을 주제로 5월 16일 동국대에서 제4회 학술대회가 열린다.

‘불교사상과 대행선 사상’ 주제로
5월 16일 동국대서 4회 학술대회
묘공학술상 · 장학생 공모사업 진행
3·6·9·12월 계절발표회도 이어져

올해 대상 수상 논문과 우수상 논문들은 자체 학술지인 〈한마음연구〉에 게재되며, 또한 학술상 응모 논문 중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나 탈락된 논문들도 별도의 심사를 거쳐 〈한마음연구〉에 수록된다.

전문연구자들을 위한 묘공학술상 외에도 불교학, 선학 신진연구자들을 위해서는 ‘〈한마음연구〉 논문투고’를 통해 전문학술지에 게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한마음연구〉에 연구 논문이 게재되었을 경우에는 게재비 400만원을 지급한다.

지난해 이어 올해에도 불교학 연구자를 위한 ‘묘공학술장학생 선발 공모’도 이뤄진다. 대상자는 불교학, 대행선 관련 학위논문과 〈한마음연구〉 논문 투고를 준비하는 대학원 재학생과 수료자다.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학위과정을 마칠 때까지 석사는 최대 2년, 박사는 최대 3년, 수료생은 최대 1년간 연 2회 장학금을 지급하며 대행선연구원에서 진행하는 학술활동 참여와 발표기회를 제공한다. 선발 공모 기간은 3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공모 신청방법은 대행선연구원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이와함께 전문연구자들을 초청해 연구발표를 듣는 계절발표회는 올해도 3 · 6 · 9 · 12월에 개최되며, 대행선과 불교학 관련 연구논문들이 발표된다.

올해 첫 계절발표회는 오는 3월 14일 오후 1시30분 한마음선원 안양본원 3층에서 열린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윤종갑 동아대 교수가 ‘대승의 공사상과 대행의 주인공’을, 한국명상심리상담학회장 인경 스님이 ‘대행스님의 주인공 화두명상’을 각각 발표한다.

논평자로는 이상호(대행선연구원), 차상엽(금강대), 문진건(동방문화대학원대), 이필원(동국대 경주) 등이 참여한다.

대행선연구원은 “묘공당 대행 선사의 가르침과 행화를 따르고 선양하고자 설립된 대행선연구원은 대행선 연구와 불교학 진흥에서 새로운 지평을 만들어가고 있다”면서 “한국불교의 미래를 위해서 전문 연구자들의 불교학술 진흥사업과 학술행사를 올해도 다채롭게 진행할 예정이다. 선학 및 불교학 관련 연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세계유산 행정 이해 돕는 보고서 발간

의제 분석 · 평가 지침 2종
영문판 韓유산 소개서도

세계문화유산 행정에 이해를 돕기 위한 보고서가 잇달아 발간됐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세계유산 관련 업무를 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과 학계 등 관계자들의 세계유산 등재 업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제43차 세계유산위원회 의제분석〉 보고서와 〈세계문화유산을 위한 유산영향평가 지침〉 한글번역본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제43차 세계유산위원회 의제 분석〉보고서는 지난해 6월 30일부터 7월 10일까지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개최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 결과를 정리한 내용이다. 43차 세계유산위원회의 의제와 주요 논의사항, 결정문을 수록했으며, 세계유산의 보존관리와 등재에 대한 자문기구의 권고와 세계유산위원회의 토론을 통해 결정문이 수정된 과정을 비교표로 제시했다. 또한 각 유산의 보존관리와 등재에 대한 자문기관 의견 등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게 해 세계유산 관련 정책 동향을 파악하는 데에 매우 유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문화유산을 위한 유산영향평가 지침(Guidence on Heritage Impact Assessments for Cultural World Heritage Properties)〉은 ‘유산 영향평가(Heritage Impact Assessments)’의 운영에 대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와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이코모스, ICOMOS)가 공동으로 펴낸 지침서다.

문화재청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는 세계유산에 위협이 되는 다양한 요소가 유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평가하기 위해 유산 영향평가(HIA)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한 실무자와 전문가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지침서 한글번역본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한국의 유네스코 유산을 해외에 소개하는 〈UNESCO HERITAGE IN KOREA〉영문판도 발간됐다.

〈UNESCO HERITAGE IN KOREA〉는 2019년까지 등재된 한국의 유네스코 유산을 총망라한 영문판 소개서다. 세계유산 14건, 인류무형유산 20건, 세계기록유산 16건 등 각 유산의 핵심 정보를 수록하고 유네스코 등재를 통해 전 세계에서 인정받은 가치가 무엇인지 소개하고 있다. 휴대하기 좋은 크기의 소책자로 제작해 한국문화의 정수를 알고자 하는 외국인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문화재청은 “세계유산에 대한 유네스코 정책 동향 등 최신 정보를 제공해 등재추진, 보존관리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련 도서를 꾸준히 발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古신라 불교미술’ 알고 싶다면

한국미술사硏 박물관대학 제55회 미술사 강좌

오는 3월23일 개강 예정
전문가 강의 12회 진행

불교의 수용과 고(古)신라의 불교미술의 면면을 확인할 수 있는 전문강좌가 열린다.

(사)한국미술사연구소(소장 문명대 · 동국대 명예교수)는 산하 박물관대학 제55회 미술사 강좌를 개최한다.

‘불교의 수용과 고신라의 화려한 미술’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강좌는 불교 전래 · 수용과 고대 신라의 불교 미술 전반에 대해 전문가들의 강의로 구성된다.

강의는 문명대 한국미술사연구소장의 ‘불교의 신라수용과 고신라 석불상의 전개’로 3월 23일 시작된다.

강의로는 △황룡사 9층목탑과 고신라의 불사 건축(조원창 한얼문화유산연구원장) △황룡사 장육존상과 황룡사의 불상(양은경 부산대 교수) △고신라의 사리기, 그리고 불교 공예(최응천 동국대 대학원 미술사학과 교수) △고신라의 금동불상(주수완 우석대 교수) △분황사 모전석탑과 간다라 석탑의 수용(문명대 소장) 등이 진행된다.

제55회 박물관대학 미술사 강좌는 오는 3월 23일부터 6월 8일까지 매주 월요일 오후 2시에 열리며 강의 장소는 한국미술사연구소(서울 종로구 북촌로 11길 4)다. 수강료는 17만원(학생 15만원)이다. (02)3673-3426

신성민 기자

탄허아카데미 육조단경 · 선시 강좌

오는 3월 2일 개강… 매주 월 · 화 강의

오대산 월정사 부설 탄허아카데미(탄허강숙)는 2020년 1 · 2학기 강좌를 연다. 오는 3월 2일 개강하는 올해 강좌는 정성본 스님(동국대 前 교수)과 석지현 스님의 강의로 이뤄진다.

정성본 스님은 3월 2일부터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육조단경〉(1학기)과 〈임제록〉(2학기)를 강의하며 석지현 스님은 3월 3일부터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선시 300수 해석과 감상(1~2학기)을 강의한다.

강의는 서울 종로구 인사동 하나로빌딩에 위치한 원효불교연구재단 강의실에서 6월 30일까지 진행된다. 강의 접수는 전화와 이메일(tanheogangsuk@naver.com)로 접수하며, 수강료는 25만원이며 2과목 수강 시에는 40만원이다. 수강인원은 25~30명이며, 선착순 마감이다.

(02)732-2403~4 신성민 기자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얼과혼이담긴 우리민족의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 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 루 자 죽 염 125g 40,000원
가 루 자 죽 염 230g 73,000원
알 갱 이 자 죽 염 125g 43,000원
알 갱 이 자 죽 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 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전선간격 : 22㎝, 25㎝, 28㎝, 30㎝, 40㎝, 50㎝, 1m, 2m, 3m, 5m, 8m, 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설치가 편리한 고리형 후크



LED전구 국산인증 (서울반도체 정품)



도량(만월등)조립식 프레임(간편한 설치 및 높낮이 조절)





안전인증 ISO9001 ISO1400 ISO 9001 인증기업 특허청

정직과 신뢰의 불자기업
불제 대원안전산업
BULJE DAEWON CO.LTD
구 입 문 의 031-986-0277~8, 02-2266-2634
032-582-6235~6, 02-2263-2638
문의핸드폰 010-3630-7092
http://www.bulje.co.kr 본사 · 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모산로 17-1

민중 아픔 함께한 고려·조선 醫僧



일명 제비원 석불이라고 부르는 '안동이천동마애불입상(安東泥川洞磨崖佛立像)'의 모습. 제비원은 연미사와 함께 나그네의 쉼터로 활용됐지만, 조선시대 폐사됐다.



국보 제7호 '봉선홍경사갈기비(天安奉先弘慶寺碣記碑)'. 고려 현종 때 세워졌으며 봉선홍경사의 창건 기록이 담겼다.



이상근의
聖寶流轉
④ 숙박 · 의료 담당한 사찰들

고려 그리고 조선의 醫僧

바이러스 하나로 세상이 시끌시끌하다.

'부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하고 찾아보는 건 공연(空然)하다. 다 좋은 말씀만 하셨고, 다 가슴에 새겨둘 말씀만 하셨다. 이런 일은 평소에 하는 게 좋다. 이럴 때 살펴볼 건 그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실제 어떻게 '행동' 했는가다.

가장 먼저 떠올랐던 건 고려시대부터 활발했던 '의승(醫僧)'의 활약이다. 우리는 임진왜란 때 활약했던 의승(義僧)은 기억하지만 사람들에게 의술을 베풀었던 의승(醫僧)이라는 이름은 낯설다.

〈고려사 열전〉 '흥융' 편에는 충혜왕이 흥융과 사별한 여인 황씨(黃氏)와 관계를 한 기사가 나온다. 그런데 충혜왕에게는 임질이 있었던 모양이다. 관계한 모든 여인들이 그 병에 걸렸다. 황 씨 역시 그런 처지가 되자 충혜왕은 "의승(醫僧) 복산(福山)에게 치료할 것을 명령하였다."

〈열전〉 '조간' 편에도 의승(醫僧)이 등장한다. 조간이 "악성 종기가 발생하여 어디까지가 어깨이고 목인지 구별할 수 없"게 되자 어떤 의승이 "종기는 뼈에 뿌리가 있으므로 뼈가 당연히 절반은 썩었을 것이고, 긁어내어 없애지 않으면 고치지 못합니다. 다만 참지 못하실 것이 두려울 뿐입니다"라고 조언했다는 것이다.

그냥 의술에 뛰어난 승려가 있다고 묘사한 것이 아니라 모두 의승으로 표현하고 있다. 일회적이거나 단속적인 것이 아니라 의료를 시행하는 어떤 '집단'이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다.

고려시대 의원이 되는 길은 크게 두 가지였다. 하나는 과거 등 국가가 직접 의사를 키우는 방법이다. 과거가 시행된 첫해인 958년(광종9년)에 의업(醫業)은 당당 과거시험의 정규 직군이었다. 국가가 관여하는 방법 외에는 대부분 도제식 교육이었다. 기술이 있는 사람 밑에서 몇 년이고 수업을 받아가며 의원이 되었다. 그런데 이런 의술에 대한 도제식 교육이 가장 활발했던 곳이 바로 사찰이었다. 고려시대 의술은 당송 의학뿐 아니라 인도 의학, 아라비아 의학 등도 수용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당시 사찰만큼 이런 교육이 제대로 될 수 있는 조건이 있던 곳도 없었을 것이다.

의승(醫僧)에 대한 기록은 고려를 넘어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에도 종종 등장한다. 억불의 시대였지만 도제식 교육은 이어졌을 것이다. 또 조선에서는 비록 천한 취급을 받았지만 한증승(汗蒸僧, 사우나와 비슷한 원리로 병자를 치료하던 시설인 한증소에서 일하던 승려)이나 매골승(埋骨僧, 시체 처리를 담당하는 승려)도 있었다. 의학에 대한 특별한 지식이나 '전통'이 없었다면 이런 일을 맡는 것 역시 불가능했을 일이다.

그런데 이런 의승들은 주로 어디에서 활동했을까? 주목해 볼 만한 시설로 대비원(大悲院)을 들 수 있다. 고려시대 백성들의 구휼과 환자 치료를 담당하던 곳이었다.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불교의 자비 사상을 세상에 실천하기 위한 장소다. 정부에서 관리를 파견하긴 했지만 대부분의 운영은 스님들 몫이었다. 의료에 대한 지식이 있는 스님들이 있지 않고서는 역시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런데 여기서 원(院)이라는 글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물론 대비원은 비록 사찰은 아니었다. 하지만 많은 사찰에서 원(院)을 운영하며 백성들의 구휼과 치료를 했다는 기록이 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기능은 숙박이었다.

교통 요지면서 인적 드문 곳

우선 고려 시대 숙박 기설을 살펴보자. 고려시대 숙박 시설은 크게 셋으로 나눌 수 있다. 참역(站驛, 역참)은 관리에게 숙박을 제공하던 곳이다. 고려 시대에는 전국의 주요도로 22곳에 525개소가 있었다고 한다. 객관(客館)도 있었다. 외국 사신을 위한 숙박 시설이다. 많지는 않았지만 전국에 흩어져 있었다. 마지막으로 원(院)이다. 원은 일반인도 숙박을 할 수 있었던 곳이다.

대부분 원(院)은 민가와는 조금 먼, 그러나 교통의 요지에 들어서 있다. 교통 요지니 지나가던 길에 머물 곳이 필요하기도 했고 또 민가가 많지 않은 지역이니 원에 머물면 도적떼의 출몰로부터 보호 받을 수도 있었다.

'고려사 열전' 등에 醫僧 기록 확인
당송부터 아라비아 의술까지 다룬
전문 승려 집단 존재했음을 의미해
국가적 '대비원' 대부분 승려가 운영

민간 숙박기관으로서 역할도 담당
봉선홍경사, 제비원 등 흔적 남아

뚜렷한 기록과 유물이 남아 있고 또 당시 상황을 유추도 해 볼 수 있는 사찰 셋을 살펴보자. 하나는 천안의 봉선홍경사다. 고려 현종 17년(1026) 때 만들어진 이 사찰은 호남과 한양을 잇는 교통 요지에 자리하고 있다. 그런데 사찰 창건 전까지는 인가는 멀고 갈대숲이 우거진 지역이었다고 한다. 강도도 자주 출몰했다. 이에 현종은 절을 짓고 숙소도 세워 불법도 펼치고 길가는 사람을 보호하는 역할도 하라는 명을 내린다. 절은 봉선홍경사가 되었고 그 옆에 딸린 숙소는 광연통화원(廣緣通化院)이 되었다. 절은 200간 규모였고 객사는 80간이었다고 전한다. 물론 모든 관리는 절에 사는 스님들이 담당했다.

봉선홍경사 터에는 아직도 현종이 세운 갈기비(碣記碑)가 남아 있는데 내용 중에는 "본디 사찰을 건립하는 이유는 불법을 전파하기 위해서지만, 나그네의 숙소로 삼기 위해서이기도 하다"는 대목이 있는 걸로 봐서 사찰에 숙박 기능을 하는 건물을 따로 뒀던 건 당시로는 흔한 경우였던 것으로 짐작된다.

이렇게 '국가적 지원'으로 만들어진 원(院)도 있었지만 '민간'의 힘이 더욱 들어간 곳도 있었다. 하늘재에 위치한 미륵대원이다. 하늘재는 현재 문경시와 충주시를 잇는 고개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신라시대 초인 156년 아달라이사금왕의 북진을 위해 하늘재를 개척했으며 죽령 옛길보다 2년 앞서 열린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백두대간을 넘는 최초의 고갯길이었던 셈이다. 또 이 고개는 경상도와 충청도를 오가는 고갯길 중 가장 낮다.

그런데 하늘재를 주로 이용한 사람들은 '상인'이었다. 특산물을 지고 다니며 전국을 떠돌던 상인들이 고개를 넘거나 넘기 전에 주로 이용했다. 원래 숙박시설이 먼저 있고 현재 남아 있는 불상 등은 나중에 이곳을 드나들던 사람들의 시주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추정도 있으나 분명하지는 않다. 그런데 '사찰'만이 목적이었다면 민가가 없는 이런 외딴 곳에 그리고 굳이 북향을 하면서까지 지었을 리는 없었을 것이다. 여하튼 백두대간에서 최초로 열린 길이고, 새재가 생기기 전까지만 해도 영남에서 충청도로 가는 '유일한' 길이었던 만큼 원의 규모는 상당했다.

여기서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 있다. 가끔 사료에 사찰에서 고기를 굽거나 술을 빚었다는 기록이 있다. 따지고 보면 이런 '숙박' 기능과 무관하지 않다. '투숙객'을 위한 조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여하튼 임진왜란 이후에 새재가 중요한 구실을 하면서 하늘재 옛길도 폐사되었고 자연스레 미륵사, 미륵대원도 사라졌다.

마지막으로 제비원도 주목해 볼 만하다. 제비원의 경우는 안동을 벗어나 충청도나 서울로 방향을 잡고자 한다면 반드시 넘어가야 했던 길이다. 물론 거꾸로 갈 때도 마찬가지로 꼭 넘어야 하는 곳이다. 이곳에는 거대한 석불상이 고갯길을 내려다보고 있다. 원래 연미사라는 절과 함께 따로 제비원이라는 원(院)을 두었던 곳이라고 전하는데 둘 다 조선시대 폐사되었다.

조선시대 역시 초기에는 국가 차원에서 원(院)이라는 형태를 유지했으나 이후 주막 등 민간 시설이 원의 역할을 대신했다. 현재 제비원 석불상 옆에는 다시 연미사가 세워져 신도들의 발걸음이 잦아지고 있다.

세 곳 외에 최근 가장 화제가 되었던 곳은 바로 파주의 혜음원지다. 개경에서 남경(서울)으로 오는 주요 통로 중 한 곳이었던 이곳은 대규모 숙박시설 터가 발견됐다. 왕의 행차 등에 사용했던 곳으로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다.

원(院)은 이렇게 숙박 기능뿐 아니라 앞에서 언급했던 의료기관으로 그 역할을 하기도 했다. 필요한 경우 곡식도 풀었다. 고려시대 사찰 재정은 당연히 조선 시대보다 넉넉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사정 외에도 대부분 원(院)을 운영하는 사찰은 국가에서 따로 토지를 하사 받고 운영되는 곳이 많았다. '공익'을 위한 일이었으니 당연한 일이기도 했다.

지금도 국가에서는 '종교인'에 대해서는 과세하지만 '종교 활동'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의무'를 하나 줄여준 셈이다. 그렇다고 모두 끝난 건 아니다. 국가가 어려움에 처하고 사람들이 고통을 호소하면 덜어준 '의무'만큼 더 세상에 도움이 되어야 할 것이다.

〈불광출판사 편집주간〉

보련기획 BORYEON
장엄불사 보련기획이 하면 가치가 다릅니다

부처님오신날 도량장엄등 설치 • 유지관리


연등 자동승강장치


고정식 연등설치


천불전


인 등


위 패


법당용 연등

공단연등

아크릴한지등

부처님오신날 장엄등

사찰명인쇄 주문접수 중

전선, 전구등 공사자재


www.boryeon.com
010-5381-9355 / 031)526-2201~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일산리 549-1

청빈, 선택한 가난은 사랑이다



변택주의
다시 읽는 法頂 스님
④ 남몰래 한 가르침



법정 스님이 생전 쓰시던 의자. 낡은 의자지만 누군가 앉기에 부족함이 없던 것처럼 스님은 우리에게 돈이란 어떻게 쓰여야 하는지 직접 가르침을 주셨다.

"내가 어떻게 가는지 봐라"하고 말씀하던 스승은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이 남아 있다면 모두 '맑고 향기롭게'에 주어 맑고 향기로운 사회를 드러내는 데에 쓰도록 해 달라"는 뜻을 남기며 시공간을 버리셨다.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이 남아 있다면 맑고 향기로운 세상을 빚는 데 써달라고 말씀하고 길을 떠난 스승. 살아계셨을 때는 어떻게 하셨을까를 짚으면서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스승 뜻을 어떻게 이어가야 할지 살펴본다.

인세는 다 어디로 갔을까?

'무소유'를 내세우던 스승이니만큼 스승이 원적에 드시자 기자들 눈길은 그동안 많은 책을 펴내고 받은 인세를 어떻게 했느냐 하는 데 쏠렸다. 스승이 입적할 때 맑고 향기롭게 감사이던 김진곤 거사는 스승이 세상을 떠나실 때 통장에 남긴 돈이 없었다고 돌아본다.

〈무소유〉는 여러해 동안 꾸준히 사랑을 받던 스테디셀러였고, 다른 책들도 나오는 대로 인기 도서 목록에 이름을 올렸는데 그 돈이 다 어디로 갔느냐 하는 것이 세간 사람들 관심거리였다. 기자들은 성가시리만큼 물었다.

"무소유만 해도 300만 부가 넘도록 팔렸다는데 그 많은 인세는 다 어디에 쓰셨을까요?"

스승은 평소 "누가 진정한 부자인가. 가진 것이 많든 적든 덕을 닦으면서 사는 것이 사람입니다. 덕이란 무엇인가? 남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남과 나누어 갖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은 어떤 인연에 따라 우주가 잠시 맡긴 선물입니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스승이 빚은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에서 해마다 장학생을 몇십 명 뽑아 주는 장학금에 스승이 내놓은 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설명할 수 없었다. 그러나 아무리 싸고 또 싸더라도 향기는 숨길 수 없다고 했던가.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다.

장준하 선생 부인 김희숙 여사는 2004년 언론과 인터뷰에서 장준하 선생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겪은 일을 이야기하면서 스승과 인연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김희숙 여사는 '입에 풀칠할 돈도 없는데 어떻게 아이 혼사를 치르지?' 맏딸 혼인을 앞두고 한걱정하며 코가 빠져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일찍이 스승이 느닷없이 문을 두드리고는 별말씀 없이 "딸 시집보내요" 하며 봉투를 슬쩍 놓고는 도망가듯이 사라지셨다고 했다. 원고료 받은 건가 보다 싶었다고 덧붙였다. 윤청광 선생은 어느 글에서 그 돈이면 집 몇 채를 살 수 있을 만 했다고 말씀했다.

1979년 어느 날 스승은 〈무소유〉 출간을 기획했던 수필가 박연구씨에게 "내 책(무소유) 인세를 좀 줄 수 없을까?"하고 조심스레 말씀을 건넸다.

그러나 범우사는 1976년 문고본 〈무소유〉 출판을 계약 맺으면서 원고료를 한꺼번에 드린 터였다. 무슨 말씀이지 싶어 어리둥절해 하는 박 씨에게 스승은 "내가 좋은 일 좀 해보려고 해"라고 말씀했다.

이 얘기를 들은 범우사 윤형두 대표도 잠깐 무슨 스님이 돈을 밝히나 싶은 마음이 들었으나 좋은 일에 쓰신다는 말씀에 선선히 판매금액 10%를 인세로 드리기로 한다. 장준하 선생 맏딸이 혼인할 때와 겹치지 않을까 조심스레 어림한다.

이 이야기를 한 번도 입 밖에 낸 적이 없다는 범우사 윤형두 대표는 스승이 열반에 드시고 나서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한다. "30여 년 동안 '좋은 일'이 무엇인지는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알고 보니 이 인세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대학생들에게 꾸준히 장학금을 주셨더라고요. 돌이켜 보면 스님은 '무소유'라는 수필 한 편에 평생 삶을 건 게 아닌가 싶어요. 무소유에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오셨고, 돌아갈 때까지 그 끈을 놓지 않으셨으니까요."

책 제목을 정하는 출판 회의에서 스승이 내놓은 제목은 한자로 쓰인 '無所有' 석 자였다. 출판사에서는 그때 흐름으로 보아 다른 제목도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는 뜻을 넌지시 비쳤으나 스승은 뜻을 굽히지 않으셨다.

윤 대표는 그때 스승 모습을 이렇게 그린다. "첫인상은 상당히 깐깐한 보이셨습니다. 솔직하셨고, 쉽게 타협하지도 않고, 실없는 우스개를 하지도 않으셨죠."

2월이면 인세 달라는 스님
어려운 대학생에 학비 전해
방송서 사연 나오면 사라져
드러내지 않고 성금도 전달

나는 스승이 열반에 드신 다음 해, 스승 유언장에 절판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무소유〉 찍기를 바로 그만뒀을 만큼 스승 뜻을 우러르는 범우사 윤대표에게 연락했다. 스승과 결 고운 인연을 이어온 분들 이야기를 남기려고 하니 만나고 싶다고. 윤 대표는 "그리 내세울 것이 없다."라며 손사래쳤다.

1970년대부터 월간 샘터에 연재했던 스승 글을 묶어 시리즈로 펴낸 '샘터' 김성구 대표도 해마다 2월 말, 3월 초만 되면 스승이 인세를 채근했다고 털어놓았다. '왜 그러시지?' 궁금했는데 한참을 지나고 나서야 해마다 초 새 학기가 열리기에 앞서 인세 수입으로 여러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주어 왔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한다.

'맑고 향기롭게' 초대 사무국장을 지낸 진명 스님은 "법정 스님은 아무리 작은 물건이라도 두 개가 생기면 늘 남에게 나눠 줬다"고 말씀한다. 그런 스승이 내려놓지 못하던 것이 있다. 찻잔이다. 결이 고운 찻잔을 보면 가지고 싶다는 마음을 일으켰고 털어놓으셨다. 그러나 출가 50년을 맞으면서 나눈 말씀에서 그조차 내려놓았다고 했다.

승가대학 4년을 마친 지 오래되었으나 사람들이 수행자에게 거는 기대가 높다는 것을 깨닫고 1992년 동국대 불교학과에 들어간 진명 스님. 1학년 1학기 때 스승을 찾아뵙고 인사드렸다. 돈벌이하지 않는 수행자가 학교에 다니려니 등록금 고민이 컸을 터였다. 스승에게 대학교 다시 들어갔다고 말씀드리니 스승이 "진명이는 왜 대학에 다시 갔나? 학자가 되려는 건가, 수행을 잘하고 싶어서인가?"하고 물으셨다. 더 깊이 배워 수행을 잘하려고 학교엘 갔다고 말씀드렸다. 스승은 "그래? 내가 학비를 좀 보태야 하겠지." 하며 선뜻 2학기부터 장학금을 줄 테니까 열심히 공부하라고 하셨다.

받은 사람 마음도 헤아려야…

맑고 향기롭게 사무국장으로 가까이서 모셨으니 스승 주머니 사정을 누구보다 깊이 꿰고 있었을 진명 스님은 "할머니와 단둘이 살던 초등학생 사연이 텔레비전에 소개된 적이 있어요. 어린아이가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도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일주일 동안 할머니 주검과 함께 살았다는 얘기에요. 법정 스님께서 그 사연을 보시더니 아무 말씀 없이 나가셨어요. 방송국에 찾아가 그 아이를 도와주라며 성금을 내놓고 오셨던 거죠. 좋은 일이라도 알려지는 것을 아주 싫어하셨습니다"라고 돌아본다.

스승이 세상과 나누는 문이 여럿이 있었다. 그 가운데 하나가 광주시 금남로에 있는 음악감상실 베토벤이다. 이따금 베토벤에 들렀던 스승은 이정옥 대표에게 "처지가 어려운 대학생들을 돕고 싶다. 둘레에 비밀로 해 달라"고 부탁했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이 있다고 알리오면 스승은 이정옥 대표에게 장학금을 건넸다. 그 가운데에는 누가 내놓은 장학금인지도 모르고 학업을 마친 이들이 적지 않았다. 윤청광 선생도 스승에게 장학금을 누구에게 어떤 사정으로 주셨는지 자세히 여쭈려고 하면 입을 열지 않으셨다고 돌아본다. 거듭 여쭈면 "받은 사람 마음도 헤아려야지" 한마디 하실 뿐이었다.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도록 하셨다는 얘기다.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는 예수님 말씀을 절집 말투로 하면 '무주상보시'다. '내가 그랬네' 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말아 내놓았다는 생각조차 내려놓으라는 말씀이다. 그 대표주자가 불전함이다. 돈을 봉투에 넣어 살짝 넣고 돌아서면 되니까. 그러나 스님들은 어느 절이든 내 집이라 여기다 보니 도량을 둘러보며 살림살이를 헤아려 보시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스승은 달랐다. 절을 한 바퀴 휘돌아보고 살림살이가 어려울 것 같으면 주머니를 탈탈 털어 불전함에 넣었다. 스승을 모시고 이 절 저 절 다녔던 진명 스님은 요즘도 불자들과 사찰 순례를 하다가 절 살림이 어려워 보이면 "가지고 다니면 무거우니까 주머니 먼지까지 다 털고 가세요"라고 한다.

"절제된 미덕인 청빈은 그저 맑은 가난이 아니라 나누어 가진다는 뜻입니다. '탐貪 자'는 조개 패貝' 위에 '이제 금今'를 씁니다. '빈貧 자'는 조개 패 위에 '나눌 분分' 자를 씁니다. 지난날에는 조개껍데기가 돈 구실을 했습니다. 돈을 움켜쥐고 있는 것이 탐욕입니다. 손에 쥔 돈을 나누는 것이 청빈입니다. 가난이라는 말은 나누어 갖는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에게 만약 가난이 없었다면 나누어 가지는 것을 몰랐을 것입니다. 내가 가난을 겪어 봄으로써 이웃이 겪는 어려움에 눈을 돌리게 됩니다.

프란치스코 성인 말씀을 빌리자면 가난은 우리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웃과 나누어 가질 때 그것은 우리를 높이 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스승이 외환위기를 맞아 온 나라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던 1998년 2월 명동 성당 강론에서 남긴 말씀이다. 내 곁에 무엇이 있다면 '우주가 널리 나누라고 준 선물'이라고 말씀하며 앞서 본을 보이던 스승은 정작 당신 몸에 병이 깊어 치료할 때 치료비가 모자랐다. 길상사에서 빌려 치료를 하고 나중에 인세를 받아 갚고 나서 2009년 봄 법회에서 이 말씀을 나누셨다. "재작년 겨울, 몸에 든 병을 치료하는데 제가 지닌 돈만으로는 모자라 사중에서 치료비 일부를 빌려 썼습니다. 그때 진 빚을 2월 12일 몇 사람이 함께한 자리에서 갚았습니다. 빚을 갚고 나니 이제는 아주 홀가분합니다. 그동안 내 치료비로 사중에 신세를 졌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밝힙니다."

청빈, 선택한 가난은 사랑이다!

〈작가〉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창고,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공장, 일반가정집

A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Q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 서울·경기 02-456-8831 · 충 청 도 010-6545-3350 · 전 라 도 011-248-6298
· 강 원 도 019-396-1110 · 경 상 도 010-4187-0062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대칼라산업지붕공사

마이크와 1m 떨어져 작은 염불에도
장엄하고 은은한 소리가 되는 염불전문 마이크!
마이크 구입 전 테스트시 광고내용과 추호라도 성능이 다를시 누구 망신? 누구 손해?

제.전문시스템 : 법문용 유선마이크 1개, 염불용 무선마이크 〈헤드셋마이크 2개 동시사용 / 핀마이크 2개 동시사용〉 1세트

원톱시스템이란?! : 시설 전 초간단 견본으로 반드시 성능을 확인시 명산대찰 수억대의 소리보다 확실하게 월등함을 확인 후 시설 맡기면 가장 큰 절약이라는 뜻!

원톱시스템의 장점 : 1. 초간편시설 2. 앰프다루기 1초 3. 설악 신흥사 및 토굴까지 2천여 시설 명단제공

본사의 장점 : 전국사찰 염불시설 현황을 손바닥같이 보고 염불전문 시설만 20여년!

USB겸용 앰프1, 스피커 2개, LG오디오 1개, 헤드셋 핀 핸드무선마이크, 무선마이크 종류별 4개, 유선마이크 1개(스탠드 포함)완벽시설, 290만원, 스피커 계속 연결시 비용추가 (방생용, 각종 마이크 구경)

■ 마이크소리 구경 조건으로 신청 : 055-343-1191, 010-9471-2026, 010-7740-2026
■ 주소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백팔 HITEC 하이텍미디어 하이텍사운드 대표 박 공 희

초기 선승단, 관·민선 양대 구도



현견 스님의
중국 선 문화기행 Ⅱ

④ 북조시기 선을 수행한 양대 집단



그림 · 강병호

중국에서 남북조시기(420~589)는 중국이 분열되었던 복잡한 시대였다. 이때에 선을 수행했던 양대 집단으로 '관선(官禪)'과 '하층민선(下層民禪)'이 있었다. 먼저 관선은 중국의 남북조시기의 선정(禪定)수행을 하던 승려들을 가리키며, 이들은 통치계급으로부터 각 방면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집단 선수행의 활동을 거행하기도 했다. 이러한 활동의 경제적 지원은 당연히 통치자들로부터 원조를 받았고, 일상생활의 각 방면에서도 역시 통치자들의 공양을 받았다. 때문에 종교 활동을 실천하는 가운데 은연중 통치자의 의지가 반영되기도 했다. 이렇게 통치와 밀접한 관계 속에서 선수행을 한 승려집단을 세칭 '관선'이라고 부른다. 물론 학계에서 이 개념에 대해서 인정을 한 것은 아니지만 편의상 그렇게 부르며, 이 관점은 일부 학자들의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 것일 뿐이다. '하층민선'은 반대로 모든 조건에서 매우 열악하였고, 의식주를 모두 자체로 해결하는 단체였다.

종교 활동은 사람들의 정신적인 영역의 문제로서, 정신활동을 구성하고 있는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다. 종교는 대체적으로 사람이라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나 매우 신성시하거나 혹은 의지의 대상으로 삼는다. 이점은 통치자들도 벗어날 수 없는 부분이다. 남북조시대에 불교가 유행을 하면서 통치자들도 심리적으로 불교를 의지하려는 강렬한 종교적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때문에 그들이 승려들을 돕고 사원을 건립하고 승보를 돕는 것은 당연한 종교적인 활동이었을 것이며, 한편으로 그러한 불사행동은 곧 자신의 공덕을 쌓는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공덕을 지으면 자연히 그 공덕이 고스란히 자기에게 다시 돌아온다는 철저한 믿음도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불교가 중국에 들어온 후 지금까지도 사회 저변의 곳곳에 침잠되어 있는 중요한 사상 중 하나가 바로 인과응보사상이다. 즉 인과불허(因果不虛)로서 각자의 내생과도 직결된다는 믿음이 있으며, 윤회사상을 절대적으로 믿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현재도 중국의 TV연속극을 보다보면 결말은 항상 인과응보, 권선징악 등이 기본 줄거리이다. 매번 결말에 악인이 파멸하면서 내뱉는 말이 있는데, 바로 '보응(報應)'이라는 말로 자신을 저주하는 장면을 종종 보게 된다. 이 보응이라는 말은 곧 '과보를 받았다'라는 말로서 자신에 대한 응징이자 절규이다. 이러한 관념의 시작은 아마도 불교가 중국에 들어오면서부터 유구한 역사와 함께 선악징벌이 하나의 문화가 된 것 같다. 따라서 당시의 통치자들 역시 승려들을 부양하고 지원한 이면에는 종교적인 정신을 흡수하고 받아들여서, 때론 종교를 통한 정신적인 함양을 위해서, 때로는 통치하는데 이용하기도 했을 것이다.

이른바 '하층민선'의 구성원은 다름 아닌 일반백성들로 형성된 선수행 집단을 말한다. 즉 통치계급으로부터 어떠한 정치적 권리도 사회적 우대도, 경제적 지원도 받지 않고, 민간에서 자생한 자립적 선정수행 단체이다. '하층민선'을 '관선'과 비교해서 몇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가 있다. 첫 번째, 선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통치자들로부터 특별한 대우 및 경제적 원조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간섭을 받을 필요가 없었으며, 또한 정치적으로 멀어져 있었기 때문에 매우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장점도 있었다. 두 번째, 이들은 심리적으로 부담을 가질 필요도 없었고, 종교에 대해서 의식적으로 매우 자유로웠고, 그들의 종교적인 의식 활동도 대부분 개인사에 국한된 것으로, 가깝게는 친치 혹은 친구 등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려는 지극히 사적인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정치적으로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다. 세 번째, 종교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규모와 영향력을 '관선'과 비교를 할 때, 상대적으로 매우 부족했었던 것도 사실이다. 게다가 이들의 구성원도 '관선'의 집단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즉 이들은 대부분 하층민으로, 어쩌다 문화적 소양을 갖춘 사람도 있었지만 지극히 미미했다. 네 번째, 당시 시대가 전쟁이 빈번한 관계로

남북조 통치자 불교의지
관선, 정치적 특권 누려
전체 불교문화 발전 주체
하층민선 숫적으로 우세

백성들은 자주 이동을 해야 했고, 생활 또한 극히 불안정한 상태였다. 때문에 이들 집단은 주로 민간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고, 지역 종교 및 문화적로부터 영향을 크게 받기도 했다. 다섯 번째로 이 집단은 자발적으로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안정적이지 못했다. 왕왕 자생자멸(自生自滅)하기가 부지기 수였다. 게다가 일단 이 단체의 세력이 증가해서 힘이 생기면 통치계급들로부터 이용을 당하기도 했으며, 때로는 그들로부터 타격을 받기도 했다.

역사에서 배웠듯이 남북조시대는 중국 역사에서 전쟁이 자주 일어났던 아주 불안정했던 시기였다. 각국의 황제들이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자주 전쟁을 일으켰고, 신하가 황제를 죽이고 황제의 자리를 찬탈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다. 이러한 폐해는 고스란히 백성들의 몫이 되었다.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 전쟁은 끝없이 일어났고, 흉년과 기근도 끊이지 않았고 거처할 곳도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 아침에 저녁의 일을 보장할 수 없었다. 통치자들도 역시 본인들에 대한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정권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란 매우 어려웠다. 북위(北魏 · 东魏 · 西魏 · 北齐 · 北周)는 상대적으로 남조(宋 · 齐 · 梁 · 陈)에 비해서 더욱더 많은 전쟁을 치렀다. 전쟁은 많은 사람들에게 재해를 안겨주었으며, 원래 농업을 생업으로 살아가던 백성들은 하루아침에 땅과 집을 잃게 되는 경우가 빈번해졌고, 부득이하게 삶의 터전을 떠나서 유랑생활을 해야 했다. 당시불교는 이러한 시대적 문제를 안고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비록 당시 사회가 매우 불안정하기는 했지만, 불교의 역사적인 각도에 볼 때, 이때 불사활동이 매우 빈창하였고 사원을 건립하고 불상을 조성하는 등의 활동도 매우 활발하였다. 또 이때에 땅과 집을 잃은 유랑민들은 연이어서 출가를 하기 시작했다. 〈우서석로지(魏書 · 釋老志)〉에 의하면, 북위 태화 원년(477) 위나라 경내에 사찰 6478 곳, 승니는 7만 7258명이나 되었다고 한다. 북위 말년에는 이미 승려의 숫자가 200만이 되었다고 하며, 사찰도 3만 여 개가 있었다고 한다.

한편 이렇게 많은 승려들 가운데 일부는 황실의 구성원에 속하는 사람들로부터 공양을 받는 이들이었다. 이들은 두말 할 것도 없이 관선에 속하는 승려들이었다. 그 외의 대다수의 승려들은 모두 세력이 없는 이들로서 하층민에 속하는 이들이었다. 관선은 통치자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정치적으로도 특권을 누렸고 경제적으로도 특별한 우대와 대우를 받았다. 게다가 전체 승단 내부에서 통치권마저도 가지게 되었으며, 불교전체 불사에 대한 권한과 임무도 가지게 되었다. 때문에 관방의 의지를 대신하기도 하면서 일체 승려들의 실생활에 대해서도 제제를 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었다. 반대로 하층민선은 이러한 조건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보니, 왕왕 일상생활 및 불사관계에 있어서 관선과의 갈등이 자주 발생하기도 했다. 즉 조정에서 국가의 발전과 생산력을 늘리기 위해서 엄격하게 승려들의 출가 숫자를 제한하는 정책을 펼 때, 하층민은 당연히 관선들에게 간섭과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또 조정에서 불교를 통치하기 위해서 승려들로 하여금 고정된 장소에서 선수행하기를 요구하기도 하였지만, "하층민선"들은 이러한 조건을 충족 할 수가 없었다. 때문에 많은 승려들은 사방각처를 운유(雲遊)하면서 유랑생활을 하였다. 때로 유랑승들은 관선들의 질책을 받기도 했으며, 또 매우 호되고 엄격한 처벌을 받기도 했다.

관선들의 대체적인 구성원은 모두 당시의 지식인들로서, 일정한 지식과 문화적인 소양을 갖추고 있었고, 불교에 대해서도 일정한 수준을 갖추고 있었다. 그들은 전체 불교문화 발전에 주체가 되었고, 동시에 불교교리 및 해석과 계율에 대해서 장악을 하면서 제제도 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반면에 하층민선 가운데 문화적 소양이라던가, 불교교리 및 계율에 관한 모든 지식을 갖춘 이가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그 비율이 매우 낮았다. 그러나 이들은 일상생활에서 직접적으로 체험 및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그들만의 안목을 갖추기도 했다. 즉 이들의 구성원들은 대체적으로 사회의 가장 하부계층에 속하는 사람들로서 몸소 현실의 실생활에서 체험한 것이 아주 큰 자산이 되기도 했다. 따라서 이들은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 내지 사물을 바라보는 시각에는 통치계급 혹은 상층부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또 다른 인생의 관점을 가지기도 했다.

하층민들의 이러한 관점을 관선들은 당연히 반길 리가 없었고, 때문에 이들 사이에는 시종 쌍방 간의 갈등이 존재 할 수밖에 없었다. 하층민선은 유랑민 혹은 유랑승의 특징을 지닌 신분으로 타격을 피하기 위해서 산중에 은거를 하기도 하였으며, 혹은 기타 지방을 유역하기도 했다. 북조시기의 관선과 하층민의 관계는 비교적 긴장 상태로서, 사실 이들 쌍방 간의 갈등은 곧 관방과 백성간의 갈등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비록 초기 선종의 구성원을 관선과 하층민선으로 나누지만, 숫자적으로 단연코 하층민들이 우세하였기 때문에 이들은 하층민의 이익을 대표하기도 했다. 선종의 고유한 언어인 '불립문자, 견성성불'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층민들의 현실을 반영한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동국대 강사〉

청동불상 조성업체
대원불교미술원



그 동안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을 성원해 주신 여러 스님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 드립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청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등 일체를 혼을 담아 조성(제작)하여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거해 온 물건 및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장 임영달 올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565-5 전화 031)532-3722, 533-3722 | H·P 010-7171-2636 |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미술원이 되겠습니다

미얀마 남자는 한 번쯤 집을 떠난다



최재희의
비긴어게인 미얀마

④ 신뷰(Shin Pyu) 의식

불자(佛者)라면 한 번쯤 '출가(出家)' 하는 것을 꿈꾼다. 신심이 깊은 부모들은 자신의 아이가 '동자승' 이 되어 보는 것을 큰 공덕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한국에서는 '부처님오신날' 을 기념해 사찰에서 혹은 특정종단에서 '동자승 단기출가'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동국대학교 불교학부 시절 동기였던 친구가 어렸을 때 '동자승' 출신이라며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때 내심 부러운 마음이 있었다. 그런데 미얀마에 와서 모든 미얀마 남자아이들을 부러워하게 될 줄은 몰랐다. 미얀마 남자라면 누구든 한 번씩 '신뷰(Shin Pyu)' 의식을 통해 출가를 경험하기 때문이다.

'신뷰(Shin Pyu)' 에서 '신(Shin)' 은 '스님' 을 뜻하고 '뷰(Pyu)' 는 '만들다' 를 뜻한다. 한국어로 자연스럽게 풀어보면 '스님이 되다' 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신뷰 의식은 보통 5~10세 사이의 남자아이들을 대상으로 한다. 정해진 날짜는 없지만 보통 띤잔(Thingyan, 4월 중순인 미얀마 새해)을 기준으로 3월과 5월 사이에 많이 열린다. 신뷰 의식은 남자아이들만 치를 수 있다. 신뷰 의식을 치르는 남자아이에게 여자 형제가 있다면 여자 형제에게는 '나따(Na Tha)' 의식을 행한다.

'나(Na)' 는 '귀' 를, '따(Tha)' 는 '더 좋아지게 하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나따 의식은 불교의 전통에서 유래한 신뷰와는 달리 미얀마 왕실 전통에서 기원한다. 나따는 왕실에서 왕의 딸에게 금 귀걸이를 걸어주기 위해 귀를 뚫었던 의식을 뜻한다. '귀를 더 좋아지게 하다' 는 '귀에 장신구를 걸어 기존의 귀와 다르게 화려하게 하고, 더 좋아지게 하다' 는 의미를 담고 있다. 남매가 있는 집에서는 신뷰 나따(Shin Pyu Na Tha) 행사를 한다.

미얀마 여자아이들이 신뷰 의식을 행할 수 없는 것은 미얀마 불교와 관련이 깊다. 미얀마에는 아직까지 비구승단만 있고 비구니승단은 존재하지 않는다. 비구니승단 대신 미얀마에는 아직까지 띨라신(Thilashin, 수행하는 여성)만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 신뷰 의식은 율장(Vinaya Pitaka)에 있는 율장 대품(Mahavagga)에 속한 부처님의 아들인 라훌라 이야기를 근원으로 삼는다. 이처럼 여러 가지 문화적인 상황으로 남자아이만 신뷰 의식을 할 수 있다.

미얀마 신뷰 의식의 전설은 다음과 같이 전해지고 있다.

"부처님께서는 석가족 왕국의 수도인 까빌라왓투(Kapilavatthu)에서 정반왕과 마야부인의 아들인 고타마 싯타르타로 태어났다. 야소다라 공주와 결혼해서 라훌라라는 아들을 낳았다. 그 이후 29세가 되던 해에 왕궁에서 왕자와 왕으로 누릴 수 있었던 모든 세속적인 부의 가치를 포기하고 삶의 진리를 찾기 위해 왕궁을 떠났다. 부처님께서는 수행을 통해 법의 진리를 깨달았다. 그 이후 정반왕의 초청으로 까빌라왓투를 방문했다. 이 소식을 들은 야소다라 공주는 자신의 아들인 라훌라에게 아버지를 찾아가 유산을 달라고 할 것을 이야기한다. 라훌라는 어머니의 말대로 자신의 아버지인 부처님을 찾아가 유산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부처님께서는 물질적인 유산 대신 '법(Dhamma)' 을 자신의 아들인 라훌라에게 주었다. 그 자리에서 라훌라는 바로 스님으로 인정받았다."

이러한 전설을 바탕으로 미얀마 고대 왕실부터 현재까지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기 위해 신뷰 의식을 행한다.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을 아주 자연스럽고 중요하게 여기는 미얀마 사람들의 문화를 살펴볼 수 있다. 신뷰 의식은 '개인' 의 출가이자 동네 사람들 모두의 축제로 진행된다.

신뷰 예식의 기원은 고대 미얀마 왕실의 전통이다. 고대 미얀마 왕조시대에는 왕의 아들만이 신뷰 의식을 행했다. 왕조가 차츰 무너진 후에도 신뷰 의식은 후대의 미얀마 사람들에게도 전통이 되어 전해졌고, 현대에 와서도 왕실에서 행해지던 왕자의 신뷰 행렬과 같은 모습으로 진행된다.

신뷰 의식은 대단히 화려하게 시작한다. 신라웅(Shin Laung, 신뷰 의식을 하는 남자아이들을 칭하는 말)들은 얼굴에 다양한 색깔로 화장을 하고, 황금색으로 된 미얀마 왕실의 왕자 옷을 입고 꽃과 보석을 온 몸에 두른 후 왕관을 쓴다. 미얀마 전통 북인 비여(Byaw)가 울리면 신라웅들은 마차(馬車) 혹은 우차(牛車)에 올라탄다. '신라웅레뿌웨(Shin Laung Hle Pwe, 신뷰 행렬)' 는 신뷰 가 개최되는 동네에서 가장 유명한 파고다(Pagoda)로 향한다. 집이 부유할 경우 마차와 우차 대신에 코끼리를 타고 파고다로 향한다.

이 행렬 앞에는 불상(佛像)을 모신 차(車)가 먼저 가고, 그 차 앞에는 불상이 오는 길을 귀하게 하기 위해 꽃을 뿌리는 사람들이 선봉에 선다. 또한 다양한 악기를 든 밴드가 행렬의 신성함을 알린다. 그리고 이 행렬에서는 가족과 친척 그리도 동네사람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남자 친척과 동네 남자들은 신라웅들에게 큰 우산을 씌어주는 역할을 하거나, 불상을 모시는 차를 운전하거나, 마차와 우차를 운전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신라웅의 누나와 여동생 그리고 동네 여자들은 꿍다웅가잉(Kun Daung Gaing)과 빤다웅가잉(Pan Daung Gaing)을 들고 행렬한다. '꿍(Kun, 씹는담배)' 과 '빤(Pan, 꽃)' 은 미얀마 낫(Nat)신들과 부처님께 드리는 공양물이다. '꿍(Kun)' 은 미얀마의 토속신앙인 낫(Nat)들에게 하는 공양물이고, '빤(Pan)' 은 부처님께 공양하는 의미다. 한국불교도 한국의 토속신앙과 결합된 것처럼 미얀마 불교도 미얀마의 토속신앙과 불교가 어우러져 있다.

신라웅의 부모들은 '빠레릭카야 싯빠(Pareikkhara Shippa, 스님이 되려면 필요한 8가지 물건)' 를 챙겨서 행렬에 합류한다. 빠레릭카야 싯빠에는 △두깟(Du Ka, 두 겹 승복) △에까띠(A Ka Thi, 윗승복) △띵빠잉(Thin Pain, 아랫 승복) △카빵 (Kha Bang Kyo, 허리띠) △다베익(Tha Beik, 발우) △띵동다(Thin Done Dha, 면도칼) △예이짓(Ye Zit, 옛날식 물 여과기) △앗(Att, 바늘)이 포함된다.

이 중 어머니는 두겹 승복을 비롯해 윗승복, 아랫승복 3가지를 머리에 이고, 아버지는 발우와 허리띠, 면도칼, 옛날식 물 여과기, 바늘을 들고 파고다로 향한다. 이 8가지 물건들은 신라웅들이 절에서 지내며 사용할 물건들이다.

신뷰 행렬이 파고다를 들러 사원에 도착하면 신라웅들은 화려한 화장을 지우고, 왕자의 옷과 장신구를 벗는다. 그리고 '싼차(San Cha)' 의식을 행한다. '싼(San)' 은 머리카락, '차(Cha)' 는 '놓는다' 라는 의미로 삭발식을 뜻한다. '싼차' 를 하고 난 후에는 붉은 색 가사를 입는다. 비로소 '꼬린(Koyin, 동자승)' 이 된다. 그리고 큰스님과 함께 빨리어 경전을 암송하며 절에서의 생활을 시작한다. 짧게는 며칠, 길게는 몇 달 동안 절에서 지낸다. 이 때에는 스님들과 같이 경전을 공부하고 명상을 한다. 그리고 낮 12시 이후에 음식을 먹지 않는 오후불식(午後不食)도 한다.

미얀마 남자들의 성인식이라고 불리는 신뷰 의식을 통해 미얀마 남자들은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기 위해 생애 처음으로 출가(出家)를 한다. 특별한 날인만큼 사회적인 계층을 막론하고 모두가 평등하게 왕의 아들처럼 의복을 입는다. 그리고 말과 소 혹은 코끼리를 타고 가족과 친척, 동네 사람들의 진귀한 대접을 받으면서 파고다와 절로 향한다.

신뷰 의식에 간접적으로 참여를 하는 여자 아이들 또한 동네 남자아이들의 신뷰 의식 행렬에 동참하면서 출가에 대한 수승함을 깨닫게 된다. 누군가는 미얀마 동자승들의 출가의식이 화려하다고 비난할 수 있지만, 그건 미얀마 사람들이 생각하는 '출가' 에 대한 신성함과 존경심을 몰라서 하는 소리다. 다음 생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미얀마 남자아이로 태어나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존경심을 담아 신뷰 의식을 경험해보고 싶다.

〈양곤대 박사과정〉



신뷰 행렬에서 선봉에 서는 차. 불상을 싣고, 여러 악기가 신뷰 의식의 장엄함을 연출한다.



미얀마의 삭발식을 뜻하는 싼차(San Cha). 신뷰 행렬이 파고다를 지나 사원에 들어서면 남자아이들은 화려한 장신구를 내려놓고 무명초를 잘라낸다.

남자아이 누구나 경험하는 신뷰
짧게는 며칠, 길게는 몇 달 동안
사원에서 지내며 수행생활 경험
화려한 의식은 출가에 대한 존경



어느 마을의 신뷰 행렬.



과거의 신뷰를 표현한 그림.

불기2564년을 맞이하여 미얀마관광청과 함께 준비했습니다!





미얀마 완벽순례(6일)
부산출발-베트남/타이항공
특급호텔 148만원
출발일 5월~6월 2달한정!
접수기간: 4월30일까지
호텔:양곤 세도나/바간 헤리티지/만달레이 힐튼/헤호 프리스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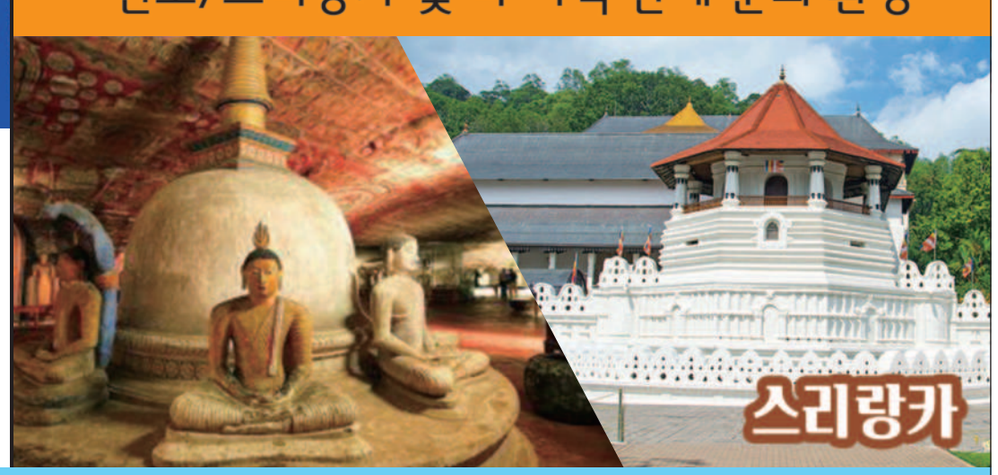
마하연 주요일정
양곤-까바이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황금대탑 쉐다곤
바간-치아사리가 모셔진 쉐지곤/아난다 파고다
만달레이-마하무니 파고다/미얀마 불교 중심지 사가잉
헤호-고대 스투파 군락지 까꾸/팡도우 파고다

* 인천출발(대한항공) 가능하오니 많은 문의 바랍니다. *



인도7대성지순례

인도/스리랑카 및 타 지역 단체 문의 환영



스리랑카

21년 경험 성지순례자의 도반
YESGOOD.CO.LTD
마하연 여행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 933호
www.mahayeon.com

문의전화 02-365-7747

진속불이와 쌍차쌍조

〈眞俗不二〉 〈雙遮雙照〉



지안 스님의 임제록 강설

⑧ 중도(中道)

〈산꼭대기 사람과 네거리 사람〉

법좌에 올라 말했다.

"한 사람은 높은 산봉우리 위에 있으면서 몸이 나올 길이 없고, 한 사람은 네거리에 있어서 나아가고 물러날 데가 없다. 어느 것이 앞에 있고 어느 것이 뒤에 있는가? 유마힐이라 하지 말고 부대사라 하지 말라. 수고했느니라."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우뚝 솟은 산봉우리 위(孤峰頂上)에 있고 한 사람은 네거리(十字街頭)에 있다고 했다. 높은 산꼭대기에 있는 사람은 몸이 나올 길이 없고 네거리에 있는 사람은 향배(向背)가 없다. 향배가 없다는 것은 앞으로 나아가거나 뒤로 물러나는 일이 없다는 말이다. 이 두 사람 중 누가 더 나은 사람이냐고 물었다. 그리고는 유마힐이나 부대사의 경우로 보지 말라고 충고를 한다.

산꼭대기(高峰頂上)에 있는 사람은 무엇을 말하고 네거리(十字街頭)에 있는 사람은 무엇을 말하는가? '높은 산봉우리'는 수행의 궁극적인 경지에 이른 절대 평등의 세계를 상징하는 말이다.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다. 네거리는 많은 사람들이 내왕하는 곳으로 상대적인 현실 세계를 상징하는 말이다. 전자를 진제(眞諦) 혹은 출세간(出世間)이라 한다면 후자는 속제(俗諦) 곧 세간이다. 조동종에서 써온 선(禪)의 용어로 말하면 본분(本分) 정위(正位)와 현성(現成) 편위(偏位)다. 이 두 경계가 상즉(相卽)해 있는 도리를 말하고 싶은 것이다. '평등 속에 차별이고 차별 속에 평등'이라는 말이다.

유마힐은 〈유마경〉 '입불이법문품'에 설해져 있는 마지막 장면처럼 침묵을 지킨 두구(杜口)의 장본인이요 부대사(497~569)는 양나라 무제(武帝) 때 사람으로 많은 설법을 한 인물이다. 고봉정산에 있는 사람을 유마거사로, 십자가두에 있는 사람을 부대사 같은 사람이라고 구분해 보지 말라는 충고를 또 해 놓는다. 이 대목의 법문은 진속불이(眞俗不二)의 중도(中道)를 밝혀 놓은 법문이라고 볼 수 있다. "불법이 단지 세간에 있으니 세간을 여의고 부처를 찾는 것은 토끼 뿔을 찾는 것이다.(佛法只在世間中離世覓佛求兎角)"는 송구의 뜻이 생각나는 대목이다.

〈길가는 일과 집안 일〉

법좌에 올라 말했다.

"한 사람은 겁을 논할 정도로 오랜 세월을 길에 있으면서 집을 떠나지 아니하고, 한 사람은 집을 떠나서 길에도 있지 아니하니 어느 사람이 인천(人天)의 공양을 받을 만한가?"

'길에 있는 것'과 '집에 있는 것'을 두고 대중에게 질문을 한 법문이다. 길에 있는 것이란 도중사(途中事)를 말하고 집에 있는 것이란 가리사(家裏事)를 말한다. 가사(家舍)가 바로 가리사다. 수행이나 공부에 있어서 안으로 회광반조(廻光返照)하여 본분의 공부를 하는 쪽을 가리사라하고 외부 대상세계에 응하여 방편을 응용하는 쪽을 도중사라 하여 서로 상대적인 말로 써왔다.

한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도중사에 몰두하되 가리사도 잊지 않고 또 한 사람은 가리사도 잊어버리고 도중사도 내 몰라 하니 두 사람이 판이하다. 이걸 두고 어느 쪽이 잘하는 것이냐 하고 물었다. 인천의 공양을 누가 받을 만하냐고 물어본다. 우열을 판단해 보라는 뜻으로 말한 것 같지만 속뜻은 결코 그런 것은 아니다. 굳이 말하자면 가리사니 도중사니 운운하는 것이나, 둘 다 부정하는 따위의 일을 집어치우라는 말이다. 쌍차쌍조(雙遮雙照)의 중도(中道)를 천명한 법문이다.

흔히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의 역할을 가리사(家裏事)와 중도사(中途事)라고 짝을 지어 말한다. 또한 문수는 지혜를 상징하고 보현은 행원을 상징한다고 한다. 이 둘이 원융무애하게 조화가 되어 하나가 되는 것이 불법(佛法)의 마지막 경지이다.

〈조계종 고시원장〉

나와 남 해탈케 하는 것



세상 속 경전읽기

⑧ 발심(發心)과 육바라밀 수행

말과 행동은 마음이 일어난 후에 이루어진다. 곧 발심(發心) 후에 언행(言行)이 이루어진다.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는 것도 '손가락을 꼼지락거려야지'라는 발심 후에, 책장을 넘기는 것도 '책장을 넘겨야지'라는 발심 후에 이루어진다. 선심(善心)이 일어나면 착한 언행을 하고, 악심(惡心)이 일어나면 악한 언행을 한다.

인간은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4고(四苦)에, 미운 사람 만나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오취온(五取蘊)이 치성한 고(苦)의 네 가지를 더한 8고(八苦)에 시달린다. 이러한 고(苦)를 싫어하고 보리와 열반을 얻고자 하면, 불교공부를 하려는 마음이 일어난다. 불교 공부의 순서는 신해행증(信解行證)이니, 곧 붓다의 가르침을 믿고, 이해하고, 실천수행하고, 증명하는 것이다. 따라서 불교 공부를 하려는 마음을 일으킨다는 것은 신해행증의 발심(發心)을 하는 것이다.

마명(馬鳴)보살이 지은 〈대승기신론(大乘起信論)〉에서는 이를 신성취발심(信成就發心), 해행발심(解行發心), 증발심(證發心)의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신성취발심은 신심성취발결정심(信心成就發決定心)의 줄임말이니, 곧 신심을 성취하여 결정심[불법(佛法)에 의혹(疑惑)이 없는 마음]을 발(發)하는 것이다. 해행발심은 해공행바라밀발회향심(解空行波羅蜜發廻向心)의 줄임말이니, 곧 공(空)의 도리를 이해하고, 바라밀 수행을 하여, 회향심을 발하는 것이다. 증발심은 증법신발진심(證法身發眞心)의 줄임말이니, 법신을 증명하고 진심(참마음)을 발하는 것이다.

해행발심 중의 행바라밀 곧 바라밀 수행이란, '법성(法性 · 만유의 본체로서 변하지 않는 진실).....을 아는 까닭에, (그에) 수순(隨順)하여 .....바라밀 수행을 한다[以知法性.....故, 隨順修行.....波羅蜜].' 여기에서 법성은 곧 자성청정심自性淸淨心이므로, 간탐(慳貪 · 탐냄), 오욕(五欲), 진뇌(瞋惱 · 화냄), 해태(懈怠 · 게으름), 난(亂 · 어지러움), 무명(無明 · 밝지 못함) 등이 없다. 바라밀 수행은, 번뇌에 가린 법성에서 번뇌의 때를 벗겨내어, 법성 곧 자성청정심을 드러내는 것이다. 여기에 육바라밀을 각각 대입하면 다음과 같다.

"법성의 체(體)에 간탐(慳貪)이 없음을 아는 까닭에, (그에) 수순(隨順)하여 보시(布施)바라밀 수행을 한다.

법성에 오염이 없어 오욕(五欲 · 재물욕, 이성욕, 식욕, 명예욕, 수면욕)의 허물 여읨을 아는 까닭에, (그에) 수순하여 지계(持戒)바라밀 수행을 한다.

법성에 괴로움이 없어 진뇌(瞋惱) 여읨을 아는 까닭에, (그에) 수순하여 인욕(忍辱)바라밀 수행을 한다.

법성에 몸과 마음의 모습이 없어 게으름 여읨을 아는 까닭에, (그에) 수순하여 정진(精進)바라밀 수행을 한다.

법성에 항상 정(定)하여 바탕에 어지러움이 없음을 아는 까닭에, (그에) 수순하여 선정(禪定)바라밀 수행을 한다.

법성의 체(體)가 밝아 무명 여읨을 아는 까닭에, (그에) 수순하여 지혜(智慧)바라밀을 수행한다." 〈대승기신론(大乘起信論)〉 '解釋分 分別發趣道相'

용수(龍樹)보살이 짓고, 진제(眞諦)가 번역한 〈보행왕정론〉에서는 육바라밀 중 보시와 지계는 이타(利他)에, 인욕과 정진은 자리(自利)에 선정과 지혜는 자타해탈(自他解脫)에 배대시키고, 대승의 육바라밀을 비롯한 붓다의 바른 가르침이 궁극적으로는 자타를 해탈시키는 것임을 설하였다.

"보시와 지계로써 이타(利他)하며 인욕과 정진으로써 자리(自利)하고 선정과 지혜로 자타(自他)를 해탈시킨다. 간략하게 대승의 뜻을 취하여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을 간략히 말하자면, 나와 남을 해탈케 하는 것이다." [由施戒利他 忍進爲自利 定慧脫自他 略攝大乘義 略說佛正教 謂解脫自他]

〈寶行王正論 T1656_.32.0502a21-3〉

〈배광식 서울대 치의대학원 명예교수〉



신해행증으로 본 백문백답

㊿ 이해의 길 34

붓다 말씀에 경중 없다

"야구가 죽어야 축구가 산다."

2002년 한일 월드컵의 열기가 모두 식은 어느 날 공공화장실에서 발견한 낙서다. 어느 축구 팬이 뜨겁게 불타오르던 축구의 열기가 식고 다시 프로야구의 열기가 달아오르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라는 책을 패러디해서 쓴 것 같았다. 지나친 경쟁의식이 낳은 해프닝이 아닐까 싶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국가대표 경기를 제외하면 축구보다 야구를 더 좋아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야구가 죽어야 축구가 사는 것은 아니다. 그저 좋아하는 스포츠를 선택해서 즐기면 되는 것이다.

이와 비슷한 상황이 불교가 중국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연출된다. 불교는 중국인들과 가까워지면서 많은 사랑을 받게 된다. 그리고 엄청난 양의 불교경전이 중국어로 번역된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경전을 중심으로 일종의 모임을 만들기 시작한다. 예컨대 수많은 경전들 가운데 〈화엄경〉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만든 모임이 화엄종이다. 〈법화경〉과 〈열반경〉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천태종이라는 종파를 만들었다. 대학에서 축구나 야구, 농구 동아리를 만든 것처럼 말이다. 중국의 종파불교, 교학불교는 이렇게 탄생되었다.

중국에서 형성된 종파는 건전한 경쟁을 통해 자신들이 소의(所依)로 하고 있는 경전의 주석서도 만들어내면서 교학의 발전이라는 지적 성과를 이루어낸다. 그 과정에서 중국 불교를 대표하는 뛰어난 승려들이 많이 등장한다. 중국의 화엄종을 대표하는 현수법장(賢首法藏, 643~712)과 천태종의 천태지의(天台智顗, 538~597)는 종파 간의 경쟁 속에서 배출된 중국불교계의 걸출한 인물들이다.

천태종을 비롯한 각 종파에서는 방대한 양의 경전들을 주제별로 정리하는 작업을 하는데, 이것을 교상판석(敎相判釋)이라고 한다. 흔히 교판(敎判)이라고 불리는 이 작업은 서점에 있는 수많은 책들을 물리학, 문학, 생물학 등 주제별로 분류해서 배치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그러면 독자는 자신이 원하는 책을 그 코너에 가서 쉽게 찾을 수 있다. 교판은 경전이 너무 많아서 어느 것부터 읽어야 할지 모르는 이들을 위해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예를 들면 천태종에서는 5시교판(五時敎判)이라 불리는 경전 분류 작업을 하였다. 말하자면 불교의 모든 경전은 붓다가 다섯 번(五時)에 걸쳐서 완성했다는 뜻이다. 이에 따르면 붓다가 깨달음을 이루고 난 뒤 맨 처음 설한 경전이 〈화엄경〉이다. 그런데 이 말씀이 너무 어려워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자 4성제나 8정도와 같이 비교적 쉬운 〈아함경〉을 설하고, 그 다음으로 〈방등경〉과 〈반야경〉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그리고 최후로 설한 가르침이 천태종의 소의 경전인 〈법화경〉과 〈열반경〉이라는 것이 5시교판의 주요 내용이다.

이렇게 되면 불교의 모든 경전은 이 교판 안에서 주제별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그 위치가 선명해진다. 그런데 이것은 역사적 사실과 많이 동떨어져 있다. 조금 심하게 말하면, 그들은 붓다와 경전을 소재로 한편의 소설을 구성한 것이다. 더욱 큰 문제는 이 과정에서 경전에 가격을 매겼다는 사실이다. 예컨대 천태종의 소의 경전인 〈법화경〉과 〈열반경〉이 만원이라면, 〈화엄경〉은 8천원, 〈아함경〉은 5천, 이런 식으로 계산되었던 것이다. 가수 조용필이 전성기 때는 처음이나 중간이 아니라 맨 마지막에 등장하여 무대를 화려하게 마무리했다. 천태종에서는 〈법화경〉과 〈열반경〉이 조용필이었던 것이다.

화엄종에서는 이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래서 그들만의 교판을 따로 만들었다. 여기에서 조용필은 〈화엄경〉이기 때문에 만원을 책정하고, 〈법화경〉은 6천 원 정도로 깎아내렸다. 종파간의 지나친 경쟁이 낳은 결과다.

한국불교에도 이러한 '우리 경전 최고' 의식이 남아있다. 특정 경전 제일주의는 붓다의 정신에 부합되지 않는다. 붓다는 대중들의 성향과 근기에 맞는 대기설법(對機說法)을 지향하였다. 그저 자신에게 맞는 경전을 선택해서 신행(信行)의 기초로 삼으면 되는 일이다. 붓다의 모든 말씀이 최고이기 때문이다.

〈이일야 전북불교대학 학장〉

연등시공전문기업 대광불교 연등자동승강장치 최초개발시공업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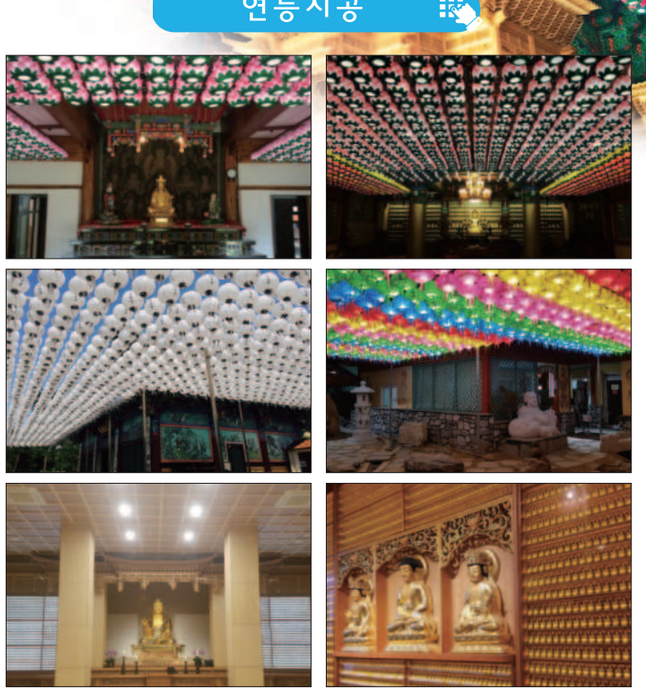
대광불교는 연등전문 기업입니다. 대광불교만의 독특한 디자인과 숙련된 노하우로 각종 연등을 제작 보급하고 있습니다.
항상 등불을 밝히는 마음가짐으로 등 제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등 자동 승강장치



연등시공



대광불교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매자리길 113 | E-mail : hskhsg@naver.com | 010-9446-1862 | 010-2788-7270 | 031)768-7270 | 031)768-7271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팩스 02)737-0696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4㎝ : 4만원/회 ◆가로 9㎝ : 8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 안내

1282호 | 17 | 전면광고

하늘에서 보석비가 쏟아져도 욕심 많은 사람은 만족할 줄 모른다. 욕심은 괴로움만 줄 뿐, 즐거움을 모르나니 슬기로운 이는 먼저 욕심을 버리느니라.



부처님 말씀 읽기 - 《중아함경》에서

관상(손금)
성철사주비법 전수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 송사재판, 암, 질병, 간암, 묘터, 유산낙태 조상영가, 교통사고, 이혼수, 직장 승진운
- 스님, 무속인, 일반인, 철학인
- 출장 개인지도, 관상학, 손금 명리구성학, 육임학, 성명학

010-4014-8822

범불교조계종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종도모집 및 승려증 발급종단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0-9317-6686
「유튜브」에서 대명스님을 치세요!
대명 합장(부산)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무형문화재 작법무 연수원
1. 천수바라, 오공양 작법무
2. 다게작법, 운심게 작법무
3. 염불, 사물, 사주 명리, 회심곡
- 특별반 / 개인 3개월 과정 모집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사찰행사전문
(사)대한문화전통불교조계종
총무 010-5511-7000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점안,살풀이,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허리병 고치는 법 받을분 배울분
저서 • 허리병 7일만에 고치는 요법 • 내 몸에 맞는 체조로 허리병 고친다
중풍예방. 디스크. 협착증. 불면증. 성인병 등 각종 질병 한번만 오시면 퇴치 가능
2대째 이어온 운동법 발명 특허 획득
네이버 [허리선생 혜경] 검색
50년 전통 상담
010-3829-7582

불교용품 고가매입전문
법당철거, 퇴불 정성을 다해 모셔드립니다. 소, 대불 탱화, 개금, 석불, 동불, 특수불 취급, 수미단 제작
이조불교재활용센타
010-9177-7842

찰라지간에 성불하는 비법안내!!
- 해인삼매를 터득하면 즉신성불한다.
- 믿음은 법신불에 대한 믿음이다.
- 발 보리심은 법신불로부터 받는 것이다.
- 시공을 초월한 신통력자가 된다.

•• 안내서를 보내겠습니다. ••
010-7131-7084

★책-검색★
①인생최고의 깨달음(참불교)
②천기소설 예언자(현존불)
③기도와 명상(최상수행법)
④천등산(신통해탈기도비법)
⑤출세의 기술(성공출세술)
⑥운타이밍재테크(평생부자)
네이버에 위 책이름 또는 작가 '태산선사' '손재찬' '손도사'등을 꼭 한번 검색 • 구입해 보세요!!

49재.천도재.점안의식대행
(바라,작법무,화청,살풀이,불교무용)
의식은 불교의 꽃, 40년 수행공덕으로
귀 사찰의 행사를 성취해 드리겠습니다.
문의 010-3263-6544
문의 010-5270-8260

운명학 단기완성
데이터 기반 명리학과 특별한 비법 단기 강의, 스님께 확신이 됩니다
3개월 단기완성 | 수업료 : 5백만원 교육시간 : 주2회(2시간씩)
문의 010-2480-5677 (아는소리 명리학당 총무)
한국불교태고종 지성선원(창원시 성산구)

사찰화재 보험
•목조건축물 OK!!•
전국 최다 사찰 가입
010-7344-1881

디자인 명리학 수강생모집
운명을 디자인한다
지금까지 이런강의는 없었다
보다 쉽고 정확하게 간명할 수 있는 신개념의 사주명리학 (기초부터 고급핵심이론까지 1년과정)
여기저기서 배워도 제대로 통변할수 없었는 분들 초보자, 스님, 무속인, 일반인 모두 환영
문의 운명디자인연구소 010-7328-0089

벼락맞은 대추나무 진품(眞品)
부처골 지장선원
010-8585-4908

효보당 108사주 사주비법 완전전수
(포인트"엑기스" 위주로 가장쉽게 짧은시간에 완전 이수되며 섬세하게 한손으로 잡을수 있도록 강의해드림)
- 현재의 궁금점과 대안책
(타고난인생, 인체의병,영가,일년신수,왜! 원인과 해결)
-과거/현재, 미래의 사주와 미래의 대안책
스님, 철학인, 법사 등 대상
왕초보 : 22강 진행(속성반 7강 진행)
출장 및 개인지도 가능합니다
010-2901-8923

•••
공양주 모십니다.
•••
010-4448-3750

지장성모님 예불동참
만불사는 지장보살어머니 신행중심 국내외 지장신앙 불자 다문화가족 한국방문시 숙식무료, 관광쇼핑 다문화가족 친정마트 사업지원 가족불 100만원 / 법당불 50만원 탱화별도 1인1불, 저작권 있습니다.
귀佛寺종무실
043-745-3332
충북 영동군 용산면 율리길 155-28

?
영통 기도법을 하루에 전수, 스님에 한함.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74-1 3층 백선사 대주 합장
☎ 02)963-1148 / 011-741-0867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우학스님 상좌 및 예비수행승(행자)모집
이 시대 불교를 리더할 참신한 예비수행승(행자)을 모집합니다
1. 수행 위주의 교육
2. 수계후공부100%(대학, 강원, 기본선원) 교육비전액지원
3. 공부 마친 후 국내도량, 해외도량, 복지시설 등에서 활동 할 수 있음
4. 본인의 희망에 따라 대구큰절, 감포도량 중 선택하여 행자생활함
문의: 054-753-8228, 010-8852-0075

입종 동참안내
부처님의정원 · 사암
포교원 · 선원 · 불교문화원
종단 · 단체 · 연합회
입종 동참바랍니다
한국불교 종무청
010-5412-8040 법광

수강생 모집
- 기문둔갑, 실전해단풀이 특강
- 속성 5개월 과정 • 한문 몰라도 됨
- 원하시는 시간에 무료 청강 가능
- 스님 환영합니다
수강료(5개월) 기문둔갑 150만원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용지로95
스님 010-7589-59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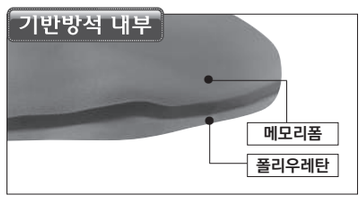
•••
도심속 아름다운 절
운영할 비구니 주지스님
비구니 기도스님
사무장, 공양주를
모십니다
•••
010-6892-3999

양도공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개인사암, 단독법인 가능함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0-5412-8040 법광

세계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세로	32cm
높이(뒷면)	8cm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주문은 현불샵 TEL 02)2004-8216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비구·비구니스님 종도모집
- 준비서류 : 수계증및 법계증
- 주민등록등본 1통
- 입종등록신청서(총무원비치)
- 승려증 발급, 수계증 발급
- 주지 임명장 발급
사단법인 참승조계종 010-5353-39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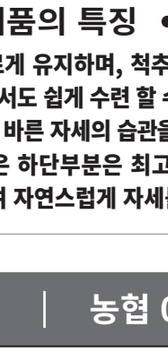
황토장뚜껑 지점모집
- 기후변화에도 장맛을 지켜줌
- 뚜껑을 열지않고 볼수 있습니다
- 과학적 설계 가운데 유리가 부착
3종류 각 300개씩, 선불 30일후 배송
등본, 사진, 이력서, 거래통장 사본
♣ 치유농장 ♣
충북 영동군 용산면 율리길 155-28
문의 043-745-3332

인연을 찾습니다
정토마을을 함께 운영하실 분을 모십니다.
- 위치 : 경남 창영, 대지 : 453평
- 사찰등기 해드릴수 있습니다.
심우사
010-3753-7844

국제 붓다 평화봉사단
국내외 활동 자원 봉사자 환영합니다
지구촌 그늘진 곳곳에서 자비심이 가득한 사랑으로 같이 울고 웃으며 땀 흘려 봉사해온 여성 불자 봉사단 입단의 문이 항상 열려 있습니다.
02-733-5665

수강생 모집(그림)

- 수업 : 산수화, 풍속화, 달마도, 동자승
- 장소 : 서울 인사동 미술 교육관 (종로오피스텔 4층 401호)
- 매주 수·목요일 주 2일 [월 8일]
- 수강료 : 월10만원
그림에 소질이 없어도 관심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그릴 수 있습니다. 연락바랍니다.
청곡 이한동 화백 010-3747-8692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개정판!
이창우 역주 | 19,000원
46배판 | 양장 | 573쪽
현대불교신문사

구입 문의 | 02-2004-8216

깨달음은
공개된 부처를 비밀스레 찾은 신앙이 아니라
밝혀지지않은 자성불을 구현하여
제3의 생명으로 거듭남에 있음으로
남을 따르거나 흉내를 내어서는 안 된다

입금 계좌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2020년 실전 사주 명리학 무료강의 제12기 수강생 모집
그동안 제1기에서 제11기까지 전국에서 1,000여분의 스님이 수료하셨습니다.
2020년에도 스님과 불심 깊은 불자들에게 무료로 명리학을 가르쳐 드리고자 합니다.
대 상
1) 현재 사찰을 운영하고 계시는 스님이나 총무보살
2) 불심 깊은 불자님들
◆수강신청방법 : 전화로 신청하시면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① 교육기간 : 2020년 3월 10일(화) ~ 9월 1일(화)까지
② 수 강 료 : 약 6개월 교육 전기간 강의료 무료
③ 교육시간 : 매주 화요일 오후 1시 ~ 오후 4시 (3시간)
④ 개강일자 : 2020년 3월 10일(화요일) 오후 1시
⑤ 책 자 : 초급에서 고급비법까지 총 8권 (책자대금 : 20만원 준비)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 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768-8413

알기쉬운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 종헌(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구단구궁법주」로서 자비의 방편학문인「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누가? 몇일?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내용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 활동 가능함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수강료	◆스 님 – 오십만원(책값 별도) ◆일반인 – 일백만원(책값 별도) ◆우체국 : 601401-01-001843(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부산 ❷,❸호선 덕천역 2번 출구 20m
구단구궁법 교실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198 (구포동 147-3) 3층 전층
cafe.daum.net/9dan9gung 전화 010-7415-0803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팩스 02)737-0696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5㎝: 5만원/회 ◆가로 7㎝: 7만원/회 ◆가로 10㎝: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282호 | 18 | 전면광고

오근(눈, 귀, 코, 혀, 몸)을 제어하여, 그것이 방일해서 오욕(빛, 소리, 냄새, 맛, 촉감)에 들어가지 말게 하라. 마치 소치는 사람이 막대기를 쥐고 단속해서, 소로 하여금 날뛰어 남의 곡식을 먹지 못하게 하는 것과 같다.



부처님 말씀 읽기 - 《불유교경》에서

삼보사찰 안내

◎ 위치 : 경북
◎ 대지 : 800평
◎ 법당 : 20평
◎ 요사 : 20평
◎ 가액 : 2억 8천

◎ 위치 : 인천
◎ 대지 : 101평
◎ 법당 : 34평
◎ 요사 : 34평
◎ 가액 : 12억

◎ 위치 : 부산
◎ 대지 : 196평
◎ 법당 : 30평
◎ 요사 : 35평
◎ 가액 : 6억 8천

❖ 오랜 전통 믿음과 신용으로 스님들의 가람을 일심으로 정진 불사하오며 만남의 장으로 환영합니다.
❖ 사찰, 포교원을 찾는 스님이 많이 이용하시여 뜻을 이루시고 나날이 발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절대 비밀보장 ●
전국사찰 급히 구합니다.

문의전화 010-6722-2211

사찰 임대합니다

- 위치 : 경상남도 진주시 근처에 있는 사찰
- 대지 700평 : 대웅전. 지장전. 관음전. 산신각. 요사채
- 전세 5천만원 / 월 50만원
- 공양주가 있어야 함

010-3636-6477

사찰 안내

- 위치 : 전남 나주 동강면
- 대지 230평(임대)
- 법당 20평. 산신각 10평
- 요사채 2동. 범종각
- 영산강 전망이 좋음
- 가액 : 3500만원

010-7637-1250

사찰(급)안내

- 위치 : 경주시 시래동. 정남향
- 대지 194평. 건평 43평
- 법당. 칠성. 산신. 용왕. 나반. 방 친견실. 공양간. 샤워실. 화장실
- 외부시설 : 용왕연못. 탑. 남여화장실 등
- 시설일체. 최고입지요건 갖춘 암자
- 가액 : 2억 3천만원(급양도)
- 사전 전화요망

010-5427-3699

사찰안내

- 위치 : 경남 산청군
- 대지 : 600평, 주차 30대 가능
- 주건물 : 대웅전(53평), 요사채, 선방, 화장실, 부속건물 : 삼성각, 용왕각, 선방, 요사채, 삼층사리탑, 일주문, 창고, 화장실, 기타
- 가액 : 답사 상담후 결정 (인연있는 스님께 크게 내려 양도)

010-8957-8089

광진불사

◎ 위치 : 서울
◎ 대지 : 120평
◎ 법당 : 30평
◎ 요사 : 30평외
◎ 매가 : 13억 5천

◎ 위치 : 경기
◎ 부지 : 50평
◎ 법당 : 30평
◎ 요사 : 30평
◎ 매가 : 6억 5천만원정

*40년 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채권 채무상담 받습니다.
*전국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합니다.
*신행상담, 사찰순례, 채권상담, 종교법인 상담 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 4층 건물에 3층, 40평
- 법당, 상담실, 방2, 주방, 화장실, 주차장, 옥상에 창고사용, 도시가스
- 보증금 1500만원 / 월세 50만원 (시설비 협의)

010-8695-6537

사찰 안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 부지 : 1648평(대지 927평)
- 대웅전(25평). 지장전(15평). 독성각(5평). 목조건물
- 요사채 : 조립식 건물 25평. 황토방 7평. 5평
- 납골당 5000개 가능
- 가액 : 12억 5천(가격절충가능)

010-5421-1536

사찰 안내

- 위치: 북한산(삼각산) 자락에 위치한 절임
- 건물 : 법당, 산신각 ● 평수 : 470평
- 가액 : 6억(절충가능) ● 조건: 양도시 모든 기물포함(불상,불화등기타) ● 주변 주차시설 양호함 ● 도시가스, 상수도임
- 대중교통 편리함(도보로 5분 거리임)
- 위치는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 쪽

010-3128-2399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진주시 혁신도시에서 10분 거리
- 대지 : 360평 ● 사용 가능 부지는 약 500평(하천 부지 포함)
- 법당. 삼성각. 약사여래. 3층 탑. 석탑 요사채 2개. 창고 3개. 주차시설 완비
- 몸만 오시면 즉시 법회 가능
- 가액 : 3억 8천만원

010-4583-4895

사찰·기도(터)안내

- 위치 : 김해 선암다리 5분거리
- 토지 : 270여평,법당,요사,종각
- 창건24년,시세평당 350만
- 가액 : 7억5천(은)2억2천포함
- 위치 : 부산 신평 토지 5천여평
- 주거지역 1천여평 포함
- 가액 : 7억5천(은)3억3천포함

010-9906-3631

사찰 안내

- 위치: 경남 창원시 마산근교
- 법당 : 50평 ● 요사 : 65평
- 대지 : 5백평 ● 임야 : 4천평
- 가액 : 11억

010-4547-4990

사찰 안내

- 위치 : 부산시내 대단지 아파트 뒤 산속. 차량 진입 불가
- 3만평 중 5천평 지분 등기가능
- 가액 : 4억 6천(조정 가능)
- 무허가 건물 ● 종무소.삼성각. 용왕전. 다실. 창고 각각 한동
- 1층 화장실(해우소)/2층 공양간 / 3 층 법당(큰법당)

011-9394-8511

사찰 안내

- 위치 : 대구 시내
- 대지 200평, 법당 20평
- 요사채 40평, 산신각 10평
- 가액 : 1억
- 사찰만 양도, 땅은 장기임대(문중땅이라 양도안됨)

010-3323-7000

사찰 안내

- 위치 : 경주시 안강읍 창말5길 28-6
- 사찰대지300평, 법당22평, 삼존옥불, 소불108불 ● 요사체 약40평, 종무소8평, 산신각2평 ● 약사여래불4평, 용왕당2평, 실내화장실3곳, 야외화장실2곳 ● 태양광, 태양열2조 ● 가액 : 3억 7천5백만원 ● 은행대출 6천만원

010-8982-4479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시 금정구 금사시장 옆
- 건물 2층(약30평)
- 삼존불, 호신불 다수
- 보증금 2천만원 / 월 20만원
- 시설비 답사후 결정

010-8517-2357

사찰 안내

- 위치 : 부산 사하구
- 전망 좋은 사찰
- 대지 : 350평
- 대웅전, 삼성각, 요사채 2동(1동은 세집 월세받음)
- 많은 주차, 남향집, 도시가스
- 가액 : 11억 5천만원

010-3269-1023

도심속 명당사찰

- 위치 : 경북 포항시 북구 장성동
- 대지 : 216평
- 주택(판넬) : 50평
- 방2, 화장실, 거실, 주방 (주택구조), 조경, 주차완비
- 가액 : 9억 3천만원(절충가)

010-2051-2588

사찰 안내

- 의정부시 가능역 사거리
- 평수 : 25평(방1)4층
- 보증금 : 1천만원 월세 : 77만(부가세포함)
- 시설비 1천만원(100%완벽 A급)몸만 오시면 됩니다.
- 주차장 완비

010-5497-3885

도심속 사찰(급)안내

- 위치 : 대구시 남구 앞산밑
- 대지 200평, 법당 40평, 방 2(각방 화장실비치)
- 종무소, 공양간 10평, 실외화장실 남, 여, 시설완벽, 즉시법회 가능
- 보증금 2천만원, 월 60만원
- 시설비 방문후 결정.

010-3422-3232

부산포교당 안내

- 위치 : 부산지하철 1호선 범일역 입구, 자유도매시장, 평화도매시장
- 귀금속골목 입구(상권최고)
- 법당완비, 에어컨 주방시설 완비, 상담실 별도
- 보증금 1천만원, 월세 44만원
- 시설비 는 조금만 받겠습니다.

010-9660-6677

별장같은 토굴

- 위치 : 경북지역 일월산자락 아담한 현대식 목조건물
- 앞마당에 계곡물 흐르고 스님 공부하시는데 아주 좋은 도량
- 대지500평.농지500평.건평 30평.법당은 토목공사 완료
- 가액 : 2억3천(가격 절충 가능)

010-5424-4969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창원 2층에 2층, 약 80평
- 보증금 250만, 월 40만
- 시설비는 보시고 협의
- 16년 포교원 운영중

010-9422-1233

사찰(급)안내

- 위치 : 부산 사하구 하단오거리 최고요지, 지하철 5분~10분거리
- 뒤에는 산, 앞에는 빌딩 등산로 입구
- 대지 : 100평 사용중, 74평 허가득
- 건물 : 법당30평, 방1, 창고2, 화장실2, 요사채 30평, 방2, 다용도실1, 샤워실1, 창고1
- 가액 : 3억 3천 성업중(가격절충)

010-6565-2042

포교원 안내

- 경남 진주시 봉곡동 서부시장 입구
- 5층건물중 3층, 40평, 방2개, 주방, 화장실2개
- 전세2천만, 월세 40만, 시설비1천5백만
- 삼존불(소불104위)에어컨일체
- 몸만오시면 법회가능

010-8503-5769

사찰 안내

- 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 대지 : 355평
- 대웅전.삼존불.목불.목후불탱화.목조단청12평. 요사채.방3개.목조단청19평. 공양간.방1개.7평목조단청. 화장실 남.여(목조단청)
- 상담 후 결정

010-3206-6622

좋은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도심
- 대지 200평, 법당 50평, 요사채 100평, 별채 50평
- 가액 : 25억 (대출가능)
- 신도다수
- 건강문제로 양도코저 함

02-992-0032

사찰 안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양평역 5분거리)
- 대지 : 300평 현대식 건물
- 건물 : 대웅전 30평 1동 / 카페, 공양간 30평 / 요사채 23평 2층 건물 1동 종무소, 객방 13평 1동
- 가액 : 10억(답사 후 인연되는 분 절충)
- 법회 즉시 가능합니다.

010-4813-2381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금정구 서동 미로시장 입구
- 2.3층 30평씩 2층법당 3층공양간
- 보증금1천5백 / 월57만
- 시설비, 영상통화 절충

010-8339-5525



생활 속의 불법수행
대행 스님과의 신행문답

주인공이란 '참나'라 해도 좋고 '한 물건'이라 해도 좋고, '본래 면목'이라 해도 좋습니다. 일체를 다 싸잡아서 붙인 이름입니다.

현대불교신문(여시아문 刊) | 신국판 | 무선 | 흑백 | 480쪽 | 15,500원



삶은 고가 아니다
대행 스님 법어

세상 모든 생명에게 바치는 저자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를 담아냈다. 흔히 어렵다고 여겨지는 불교를 친숙하게 받아들이도록 인도한다.

(재)한마음선원 출판부 | 148×210mm | 287쪽 | 10,000원

구입문의 — 02)2004-8216 • 3만원 미만 택배비 별도 • 농협 053-01-269062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 입 종 안 내 ◐

입종 및 사찰 등록(제출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1통, 호적등본 1통
② 승적원부(본종 소정양식 : 총무부 비치)
③ 승적증빙서류(타 종단 승려는 승려증 사본)
④ 사찰 전경, 내 • 외부 사진 각 1부
⑤ 반 명함 사진 5매(대가사를 수한 사진)

참고사항
① 각종 구비서류는 최근 3개월 내 발행된 것으로 제출
② 제출된 서류는 반환치 않음

불교조계종대학림 02)511-1080

불교조계종(총무원) Tel 02)511-2026~7 | Fax 02)511-2028

토굴독채 안내

- 위치 : 포항시 구룡포 해수욕장 앞 큰도로 변 호미곶 가는 도로
- 방4개, 마당에주차됨 방생용왕, 기도하기좋음
- 보증금 2천만원, 일년에 50만원, 비품대 30만원

010-5418-8137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하동군 청암면 청학동길 15-2 지리산 750고지
- 미륵암 8백평 내 독채3채, 가을에 곶감공장, 텃밭. 농사 지으실 분
- 지리산 인연 있으면 함께 합시다
- 가액 : 보증금 300만 / 월세 20만
- 권리금(상담후 결정)

011-759-0183

포교원 안내

- 위치 : 포항시 남구. 4층 건물 내 2층(45평). 시설 특A급
- 법당 : 칠보 삼존불(석가, 관음, 지장) 천수천안. 신중단. 영단. 수미단 3단
- 소불 : 550불. 법당, 요사, 공양간, 창고
- 촛대, 향로, 불기, 다기(전체 방자) 등 320개
- 보증금 1천만원 / 월 35만원
- 시설비 : 3천 5백만원

010-8424-0042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

전국 지사 안내

구독신청 기사제보 광고게재

항상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사명	지사장	연락처
대구지사	손문철	M 010-2813-8008
부산지사	이도경	M 010-5640-8883
광주전남지사	양행선	M 010-2629-1508
전북지사	조동제	M 010-8642-7733
경남지사	성낙두	M 010-3860-7008
영주지국	박영애	M 010-9373-3778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

놀라운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석 염주·합장주·지키미

희담석이란? 희담석(稀潭石 / Batu Hitam)은 대규모의 화산 폭발로 인해 지구 깊숙이 묻혀 있던 무기물들이 용암과 함께 분출된 후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단단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현지 주민들은 이 돌을 옛부터 치료용으로 사용 해왔는데, 그 중에서도 성분 분석과 원적외선 파동 검사를 통해 인체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여 실용화 한 것이 바로 【희담석】입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부를 만큼 생명체에게 유익하며, 방출되는 원적외선의 질과 양은 타제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납니다. 따라서 세포의 활성화를 통한 최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희담석 합장주(10mm)
판매가 : 10,000원
- 남자와 여성분들의 손목에 맞추어져 있음.
- 재질 : ABS, 희담석 50%
  ▪ 팔목이 늘 뻐근한 분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앉아 있는 운동이 부족한 불자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희담석 지키미
판매가 : 20,000원
희담석 지키미는 놀라운 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 원석을 휴대하기 간편하도록 제작한 제품입니다.
평상시 주머니에 넣어 다니거나, 틈나는 대로 특정한 통증 부위에 사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희담석108염주(8mm)
판매가 : 39,600원 ➡ 35,000원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수행증진을!!
구성 : 희담석 108염주
크기 : 직경 8mm "희담석 8mm염주는 차걸이용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불교문화상품 전문몰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
구매전화 1688-9099 / (02)732-1520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법산 스님 퇴임 "영원한 동국인"

동국대 제40대 이사장 퇴임법회

동국대 제40대 이사장 법산 스님이 임기를 마무리하고 퇴임했다.

학교법인 동국대는 2월 17일 동국대 정각원에서 '제40대 이사장 법산 스님 이임 고불법회'를 봉행했다. 법회에는 이사장 법산 스님과 윤성이 동국대 총장, 이영경 경주캠퍼스 총장을 비롯한 교무위원, 산하기관 및 학교 관계자 등 사부대중 200여 명이 참석했다.

법산 스님은 이임사를 통해 초심과 동국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강조했다. 법산 스님은 "항상 머무름 없이 생각 생각이 깨어있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 금강반야를 성취하는 찰나를 향해 부단히 정진할 뿐"이라면서 "해 뜨는 동국, 꽃 피는 동국, 아름다운 동국, 동국은 영원한 반야바라밀"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비의 복덕을 널리 펼치는 힘찬 정진으로 불국토 실현에 대승보살의 원력과 함께 하기를 서원한다"며 "우리는 영원히 동국인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법산 스님은 이임 고불문을 통해 불교 중흥과 건학정신의 현창, 학교 발전을 부처님께 기원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전북불교대학 졸업생 61명 배출

문수상에 백윤순 · 신민재 · 이영산

전북불교대학(학장 이창구)은 2월 16일 4층 큰법당에서 '제32회 불교학과 및 제27회 법사과 졸업식'을 봉행했다. 이날 강미진 씨를 비롯한 불교학과 32기 44명, 김현정 씨를 비롯한 법사과 27기 17명이 졸업했다. 또한 전법사고시를 통과한 김형천 씨 등 6명은 전법사 자격증을 받았다. 성적우수자 시상에서 최우수상인 문수상은 불교학과 백윤순 · 신민재, 법사과 이영산 씨가 받았다.

이창구 학장은 식사를 통해 "업(業)장을 졸(卒)한다는 졸업(卒業)은 마음의 고향인 불성으로 돌아온다는 뜻"이라며 "졸업의 의미를 되새겨 참회발원의 삶으로 회향해 부처로 다시 태어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선운사 동효 스님은 격려사에서 "모든 것의 중심이 '나'라는 것을 알려주는 게 불교"라며 "나의 마음자리, 즉 심지(心地)를 알아 깨달음을 이루자"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禪 · 敎 50년 정진 대중에게 회향을"

Interview

선법회 여는 고준환 경기대 명예교수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2014년부터 암투병 생활
간절함으로 견성 체험해
3월 5일부터 매주木 강연

인사동 음식점에서 만난 한 노(老) 교수의 얼굴은 창백했다. 신장암과 폐암 투병생활을 거친 터라 머리카락도 듬성듬성했지만 그 눈빛만큼은 형형했다. 고준환 경기대 명예교수가 3월 5일 마포 다보빌딩 2층 명상실에서 목요선법회를 시작한다. 매주 목요일 오후 7시부터 1시간가량 깨달음의 길을 돕는 선교(禪敎) 강연이다.

고 교수는 2014년 신장암과 전이된 폐암으로 인해 최근 생사의 고비를 넘겼다. 2011년 본각선교원을 개원해 불교 대중화를 발원한 것도 잠시, 지방 휴양처를 찾아 요양을 겸한 수행생활에 매진했다. 지난해 건강이 조금 좋아져 다시 집으로 돌아온 고 교수는 40여 년 전 학창시절 익히 보았던 책들을 다시 펼쳤다. 반야심경, 금강경, 화엄경 등 경전과 함께 마조어록과 선어록을 보는 순간 몸과 마음이 하나로 꿰뚫림을 느꼈다.

"해오(解悟)를 넘어 기쁨이 샘솟고 행복으로 가득 차는 경지를 체험했습니다. 모든 불교의 사상과 실천행이 하나로 일통되고 기쁘기 그지없었습니다. 이런 과정과 내용을 선법회를 열어 전하고자 합니다."

선법회는 고 교수가 수십 년 전 발원한 선원 건립의 일환이기도 하다. 그는 교수불자연합회 초대회장을 지낼 당시 교불련 선원을 건립하기로 서원했다. 고 교수는 "현 회장과 교불련 선원 건립을 재추진키로 했으며, 준비단계로 장소를 빌려 선법회를 열어 교수불자들의 수행을 독려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고 교수가 진행하는 강연은 선과 교 양쪽으로 진행된다. 교학으로는 반야심경과 금강경, 법화경, 화엄경에 유마경과 승만경 등의 요지를 전하고, 선어록은 달마어록, 육조단경, 마조어록, 백장어록, 황벽어록, 임제어록, 벽암록을 통해 선의 중요한 내용과 고 교수가 직접 선원을 찾아다니며 법거량한 체험담을 전한다.

고 교수는 "경전과 선어록의 선교일치를 주 방편으로 선은 기본적으로 여래선 수식선, 수식관법을 하게 하고, 문답을 통해 조사선에서 전하는 직지인심 견성성불로 나아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고 교수는 이어 "깨달음은 각자 하는 것이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1시간 강연을 하고 나머지 시간에 질의응답으로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고 교수는 끝으로 간절함을 강조했다. 생사의 고비를 넘으며 느낀 그 간절함만큼 깨달음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50년간 불교를 공부해도 늦게 깨달음이 온 것은 제가 게으른 것도 있겠지만 '목숨 걸고 정진하겠다'는 간절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느낀 문제점이 다른 수행하는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 교수는 현재 건강이 썩 좋지만은 않다. 절제술을 받은 지 5년이 넘었지만 병원서 CT를 찍으며 예후를 관리하고 있다. 그렇기에 이번 강연은 불교계 노장이 평생을 걸고 정진한 결과를 회향하는 자리다. 010-4212-7931

운경당 기홍선사 20주기 기신재

2월 16일 봉선사 청풍루서
추모집 〈운경 스님,~〉 발간
문도회와 봉정법회도 봉행

봉선사 운경문도회(이하 문도회)는 2월 16일 봉선사 청풍루에서 운경당 기홍선사 20주기 기신재 및 추모집 봉정법회를 봉행했다. 법회에는 봉선사 조실 월운 스님, 회주 밀운 스님과 의정 스님을 비롯한 문도회 스님, 봉선사 대중스님, 1960년대부터 운경 스님과 함께 군포교에 힘썼던 화계사 회주 성광 스님 등 초기 군법사 스님들과 운경 스님이 30여 년간 의정부에서 지도한 삼보불교학생회, 삼보청년회 출신 불자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참석해 운경 스님의 입적 20주기를 추모했다.

운경 스님(1904~2000)은 한국불교의 근현대사에서 포교불사에 큰 업적을 남긴 선지식이다. 제방에서 20여 안거를 성만하며 만공 스님을 금강산 유점사 선원의 조실로 모시는 등 우리불교에서 금강산 시대를 마지막으로 경험한 세대다. 포교의 암흑기였던 1960년대에 운경 스님이 시작한 청소년포교, 군포교, 도심포교, 재소자 교화 등 경기도 의정부 지역을 거점으로 했던 포교불사는 한국불교 포교사의 전무후무한 역사로 남았다.



당시 스님이 창립한 삼보불교학생회는 한국청년포교의 새로운 길을 열었으며, 현재까지 그 면면이 한국불교 포교불사에 이어지고 있다. 일제강점기에는 독립운동에 앞장섰으며 6.25 한국전쟁으로 전소된 봉선사 중건 불사에 일생을 헌신했다. 봉선사 교화원장, 조계종 원로의원, 광동학원 이사, 봉선사 주지와 조실을 지내며 경계 없는 불사를 남겼다. 2000년 2월 27일 오후 8시 20분 봉선사 다경실에서 문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원적에 들었다.

문도회는 운경 스님의 입적 20주기를 맞아 스승의 업적과 생애를 글과 사진으로 정리한 추모집 〈운경 스님, 스님이 계셔서 행복했습니다〉를 발간하고 이날 봉정식을 함께 진행했다.

기신재에 이어 진행된 추모집 봉정법회에서 문도회 문장 의정 스님은 "우리 제자들은 앞으로 더욱 은사스님의 얼을 기리는 데 힘을 모으고 각자 자기 본분에서 스스로의 삶을 스승의 숭고한 정신으로 승화시켜가는 것이 큰 가르침에 대한 보은의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발간사를 통해 밝혔다.

봉선사=박재완 기자

고경당 법전 스님 74주기 추모

동곡문도 혜국 스님 "자신을 밝히며 살자"



조계종 제10교구본사 은해사(주지 돈관)는 2월 19일 고경당 법전 대종사 74주기 추모 다례재를 경내 육화원에서 봉행했다. 사부대중 300여 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동곡문도회 문장 혜국 스님은 "한마음 한뜻으로 어른스님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떠올리면서 스스로를 밝히며 살아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김연철 장관 "영통사 교류 협의"

천태종 총무원장 문덕 스님 예방서 밝혀



천태종 총무원장 문덕 스님은 2월 17일 서울 관문사 2층 접견실에서 김연철 통일부장관 예방을 받고, 그간 단절된 개성 영통사의 교류를 위해 통일부가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김 장관은 "지난해 예방 때 남북관계가 진전돼 영통사에 방문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다. 올해는 영통사에 갈 수 있게 협의를 잘 해보겠다"고 답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인도서 한국불교 세계화 외쳐

정진원 동국대 교수, 인도 델리 · 네루대 강의



동국대 세계불교학연구소 정진원 교수는 2월 13~18일 인도국립 네루대와 델리대에서 3회에 걸쳐 한국불교 특강을 실시했다. 정 교수는 훈민정음으로 쓴 월인석보와 고려시대 걸작 삼국유사를 주제로, 최고학년 3학년 및 석사과정 학생들에게 우리나라 고대 인문학과 불교의 연계성을 설명했다.

노덕현 기자

한국불교 전통의식 학인모집

한국불교 태고종 부산종무원에서는
2020년 3월부터 불교전통의식을 개강합니다.
강주 민지효스님은 기초부터 각종 범패의식을
십여년간 강의해온 노하우 실력으로 알기 쉽고
잊혀지지 않는 범음범패 수업을 진행합니다.
수시로 기초적인 의식을 강의하여 절 살림에
도움이 되시도록 하며 아직 초발심인 스님을
위하여 훌륭하신 은사님을 소개하여 득도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
특히 성적이 우수한 분은 홍익 범패단으로
입단하여 회원으로 활동 하실 수 있도록
모십니다.

■ **개 강** : 2020년 **3**월 **3**일 화요일
■ **장 소** : 부산시 동래구 명륜로 47 청하빌딩 4층 한국불교태고종 부산교구 종무원
■ **시 간** : 매주 화요일 오후2시 ~ 6시까지
■ **수강료** : 매월 10만원 선금

지효스님 **010-4466-3575**
종무원 송과장 **010-9610-8505**

교육기간	강 사	교육내용
3월, 4월 (2개월)	지효스님	1교시 도량석 새벽 종송 2교시 사물, 북, 태징, 목탁, 요령 3교시 삼귀의 사홍서원 거불
	혜우역학원 원장	4교시 구궁법,명리학
5월, 6월 (2개월)	지효스님	1교시 거불, 사시불공, 조석 예불 2교시 시다림, 장례의식 3교시 구병시식, 방생의식
	혜우역학원 원장	4교시 명리학
7월, 8월 (2개월)	지효스님	1교시 천도재 의식 2교시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3교시 (나비춤) 도량게, 다게
	혜우역학원 원장	4교시 명리학
9월, 10월 (2개월)	지효스님	1교시 천도재 의식 2교시 천수바라, 화의재 바라 3교시 (나비춤) 도량게, 다게
	혜우역학원 원장	4교시 명리학
11월, 12월 (2개월)	지효스님	1교시 천도재 의식 2교시 (나비춤) 도량게, 다게 3교시 천수바라, 요잡, 화의재
	혜우역학원 원장	4교시 명리학
1월, 2월 (2개월)	지효스님	1교시 천도재 의식 2교시 (나비춤) 도량게, 다게 3교시 바라작법
	혜우역학원 원장	4교시 명리학

부산 종무원장 자관 | 강주 민지효

영혼의 세계 빙의

|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 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

천광수련원 TEL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명상書 톺아보기

로버트 A.F 서먼의 〈분노〉

분노와 행복 중간지대 '인내'



〈4〉 분노 초월의 요가

우리는 분노에서 어떻게 해방될까? 〈입보리행론〉〈인욕품〉에는 그 방법이 잘 나와 있다.

'내가 했던 선행이 무엇이었든 간에 예불, 보시 등등 천겁을 쌓았다 해도 한순간의 분노로 무너지네.'

분노는 여기서 죄라기보다는 감정적 중독이다. '죄'는 위법행위인 '범죄'처럼 결과로 처벌이 내려진다. 조의 경우는 유일신적 '신'이 처벌하고 범죄의 경우는 사회가 처벌한다. 중독은 강박이 되어버린 습관으로서 중독에 빠진 사람은 그 것을 통제할 수 없다. 그리고 중독은 그 사람의 물리적, 정신적 인과과정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한다. 그 결과가 한 개인의 한 생을 넘어서 지속될 때 그것이 '진화적'이라고 말해도 적절해 보인다. 이때 진화적 연속체라는 말은 하나의 물질적 과정, 즉 습관이 물질적 유전자들 안에 암호화 되어 새롭지만 영향을 받은 신체를 만들어 내는 과정을 의미할 수 있다. 또 하나의 정신적 물질적 과정, 즉 습관이 하나의 정신적 유전자에 암호화 되어 이미 진행 중인 개별적인 연속체의 새로운 심신 복합체를 만들어 내는 과정을 의미할 수도 있다.

인내의 요가에서 절대적인 첫 단계는 분노가 나쁘고 악하고 부정적인 것이며 중독 혹은 심지어 죄라고 결단을 내리는 것이다. 어떤 중독에서 벗어나려면 이러한 부정적인 태도와 감정을 제거하겠다고 마음은 단호하게 결의해야 한다.

이 점을 가르치기 위해서 분노는 정확히 정의되어야 하고 분노와 그와 관련된 충동들, 감정들, 에너지들 사이에 경계선을 그어야 한다. 짜증, 성가심, 반대 등이 이런 것들을 일으킨 원천으로 인지된 대상에 대해서 해로운 방식으로 반응하면서 갑자기 억누를 수 없는 충동으로 폭발할 때 분노가 일어난다.

당신은 자신이 저지르는 정신적 언어적 신체적 행동의 주인이 더 이상 아니게 된다. 당신은 '자신의 분노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분노의 비자발적 도구가 되어 버린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을 제어 할 수 있었다면 과연 누가 보살, 즉 완벽하게 이타적인 사람에게 분노할 수 있었겠는가?

당신은 분별력을 잃고 격분으로 흥분했을 때만 순전한 분노, 증오, 폭력의 충동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격노에 찬 미친 광기는 당신이 아주 오랫동안 애써 만들어 왔을 모든 진화적인 과정을 파괴한다.

분노가 항상 해롭다고 결단하면서, 분노와 반대되는 것은 틀림없이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분노와 반대되는 것은 결국 사랑과 자비, 다른 이들이 고통을 겪지 않고 행복해지도록 도우려는 의지다. 그러나 분노와 증오로부터 자비와 사랑으로 당장 바꾸라고 강요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를 너무나 심하게 다그치는 것이다. 중간 기대가 있는데 그 것은 내성, 인내, 자제, 용서의 지대이다.

해를 입었을 때 또는 해를 입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화가 난다. 우리가 짜증을 참고 상해에 인내하고 반응을 자제하고 심지어 상처를 용서하기까지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짜증은 나더라도 분노에 자신을 잃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적극적인 결심은 내성과 인내를 기르는 것이다.

생활 속 분노 초월 방법

부정적 감정 제거서 시작

인내와 용서로 행복 전환

나는 분노에 의해 상처받은 마음을 품고서
평화를 경험 할 수는 없네.
기쁨이나 행복을 얻을 수도 없으니
잠 못 이루고 좌절감으로 뒤척이게 되네.

〈입보리행론〉〈인욕품〉

무엇인가에 혹은 누군가에 의해서 상처받았을 때, 상처받은 그 사람이 느끼는 분노는 내부로부터 오는 두 번째 상처다.

이것은 그 자체로 제2의 상처다. 상처를 준 사람에게 스스로 복수하기 위해서 당신 안에서 분노가 들끓는 한, 당신의 마음은 쉴 수가 없다. 보통 때는 당신에게 즐거움, 심지어 기쁨을 주던 것들, 사랑하는 이의 얼굴, 좋은 음식, 매혹적인 연회, 관능적인 환희, 이 모든 것들이 당신이 분노하는 즉시 매력을 잃는다. 당신이 정말로 분노하면 잠들지도 못하고 마음은 상처를 곱씹으며 어떻게 하면 비슷하게 혹은 더 심하게 복수할지 계획을 꾸민다.

분노는 크게 상호 호혜적이어야 할 인간관계를 망친다. 심지어 당신에게 의지하고 당신 덕분에 생계를 해결하고 품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당신이 끊임없이 그들에게 분노한다면 그들은 당신을 증오하면서 해치거나 심지어 파멸시킬 기회를 엿볼 것이다.

분노는 불과 비슷하다. 그 것은 당신을 불태우고 다른 이들도 불태운다. 다른 사람에게서 고립되면 당신은 행복할 수 없다. 그러나 남들 눈에 당신이 분노할 때마다 항상 해를 끼치고 상처를 주는 사람으로 비춰진다면, 그들은 당신에게서 멀어져 갈 것이다. 당신은 이런 생각들을 모아서 분노가 항상 해롭고, 통상 좋은 것들도 망친다고 결정할 수 있다.

가장 큰 결단은 분노 자체를 당신의 최대 원수로 생각하는 것이다. 분노야 말로 당신을 가장 크게 해치고 내부로부터 상처를 입히고 당신의 행복을 죽인다. 분노에 특히 대항하기 어려운 이유는 그 것이 당신 내면에서 온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분노는 당신 자신으로 가장해서 나타난다. 이것을 일단 이해하면 행복을 발견하려는 당신의 투쟁은 단순해진다. 이러한 결단은 행복으로의 열쇠를 당신에게 준다. 왜냐하면 최대의 적은 당신 안에 있으며 그 것은 단 하나의 원천이기에 내부로 향해서 그 뿌리를 발견하고 분노의 모습들을 알아서 그 것들에 대항해서 자신을 무장하고 그 뿌리를 근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당신은 분노의 위해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이다. 당신은 분노를 조금씩 조금씩 정복하여 당신이 찾고 있는 행복을 실제로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불교 심리학의 근본적인 발견이다. 당신은 일상적인 고통 앞에서 항복할 필요는 없다. 즉 당신이 사회와 시간과 공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뿐만 아니라 그 보다 더 중요하게는 당신 자신의 내적 욕구와 충동, 요구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엇이 정말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항상 의식하지도 못한 채로 고통 앞에서 항복할 필요는 없다. 당신은 포기할 필요도 없고 열정과 분노 때문에 여기저기서 시달릴 필요도 없다.

당신은 예전에는 의식하지 못했던 것을 의식할 수도 있다. 당신은 자신의 다양한 충동들을 이해할 수 있고, 그 것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이해하고 그 근원을 차단하며 그 에너지를 자신의 필요에 맞게 전환할 수 있다. 당신은 마음의 모든 명령에 저항 할 수 있고, 근원적인 에너지의 활용법을 배울 수 있다. 당신은 이 에너지들을 자신의 삶과 행복을 위해서, 사랑하는 이들의 행복을 위해서 되찾을 수 있다.

처음으로 우리는 분노의 정신적 메커니즘을 이해해야 한다. 분노에 대한 정의는 서양에서 이를 죽음에 이르는 치명적인 악과 죄라고 한다. 동양에서 근본적인 정신적 중독이라고 하는데, 본질적으로 자신을 휩쓸어가는 능력을 포함하고 있다.

분노는 중독에 빠진 정념이 우리의 이성과 상식을 파괴할 때 일어난다. 우리의 마음, 말, 몸은 분노의 도구가 된다. 통찰은 진정한 분노가 일어나기 전에 정신적 불편, 즉 좌절감이 있다는 것을 알아챈다. 이러한 좌절감은 당신이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나, 원하는 일이 좌절되는 것을 볼 때 일어난다.

이런 상황에 당신은 점점 더 짜증이 나긴 하겠지만, 여전히 이성적이기는 할 것이다. 이럴 때 핵심적 해결책은 불편이 사라지도록 마음과 말로, 혹은 신체적으로 관여하고 당신이 폭발해서 분노에 대한 제어력을 잃고 그 도구가 되기 전에 상황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다.

여기서 내적 관여는 정신적 불편이나 좌절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되는 것을 막는다. 당신은 항상 행복하고 활기차고 만족해야 한다.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당신이 누리고 있는 축복을 하나씩 떠올리면서 당신의 주의를 다른 데로 돌리고 그 불편이 얼마나 더 나쁠 수도 있었는지를 생각해 본다. 그리고 당신은 자신을 괴롭히는 상황을 좀 더 깊게 들여다보고 좌절된 희망이라는 불이익을 어떻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을 지를 생각해보고, 내성과 강인함을 기른다.

또 다른 방법은 잘못이 무엇인지에 대한 확신을 통찰해서 그 것을 다른 관점에서 보는 것이다. 당신 스스로 완전히 이상 증상을 보이는 것은 상황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당신의 불행만을 더할 뿐이라는 것을 최소한 깨닫게 될 것이다.

이 글은 로버트 A.F 서먼의 〈분노〉(민족사)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붓다북 불교종합쇼핑몰 Buddha Book



지면에 진열된 상품들은 붓다북에서
미니불상으로
검색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www.buddhabook.co.kr

서울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동일하이빌 지하 1층 (주) 운주사 Tel. 02-953-7181

전통예술 | 자체제작
양지국악사



계좌번호 농협 221098-52-250376 조남양 | 대한명인 제 14-406호 대고제작 | www.yangjikukak.com



대행 스님

좋고 잘해 주는 것만이 자비가 아니고 죽이고 살리는 게 전부 자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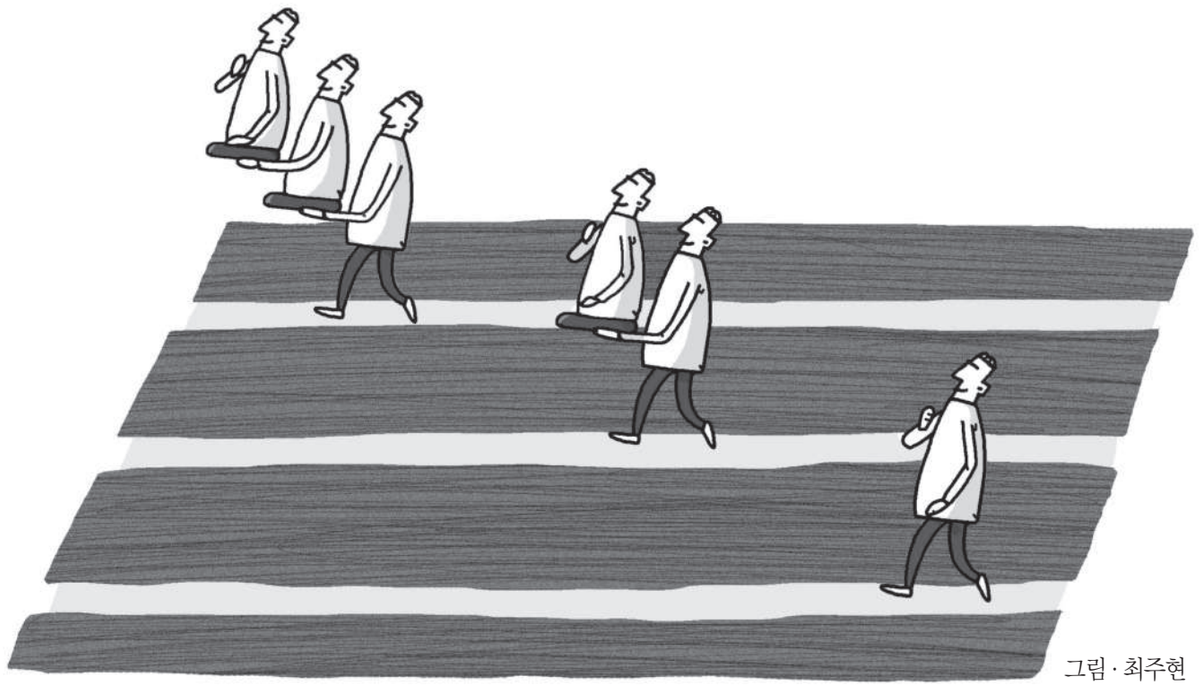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덩어리가 어떻게 돼서 이렇게 살고 있는가? 우리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를 위에서부터 내려서, 우리가 지금 현대의 시점에서 용어나 모든 것은 자세히 모르지만 현대적으로 알 수 있어야만 될 것 같아서 말입니다. 부처님이 그때 시절에 말씀해 놓으신 것이 뜻이 다 같고 법도 다 같고, 우리 살아나가는 것도 부처님 법이 아니고는 없습니다. 그런 관계상 현재에 그것을 모르고서야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듣지 않고 먹어 보지 않고 보지 않는다면 생각조차도 나지 않는 겁니다. 일으킬 수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행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뛰면서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뛰는 것이 본래 그대로가 참선이라는 거, 이것이 바로 응용되고 감응이 되고, 우리는 항상 부지런히 뛰면서도 참선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어디에 앉았다 하는 것도 아니고 섰다 하는 것도 아닙니다. 앉고 서는 건 자동적으로 자유자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으로써 이 지구라는 자체도, 반복해서 자세히 좀 거론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근본 자체의 불성이나 지구의 근본 자리 그 자리가, 자석으로서 뭉쳐진 그 한 덩어리가 소천세계, 중천세계에서부터, 즉 말하자면 떨어졌다고 봅니다. 그러면 소천, 상천, 중천인데 이게 지금 중천 우주의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천세계 이 모두가 몇 번째…, 지금 내가 임신이라고 이름은 붙였지만 이 뜻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물질로 보는 거하고 물질로 움죽거리는 거하고 무(無)의, 사무(四無)의 자동 능력으로 이것이 움죽거리는 거하고….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집을 지으려면 내가 이걸 짓겠다 하는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그 짓겠다는 생각이 있으면 설계를 합니다. 설계를 했으면 바로 집을 짓게끔 들어가는 것이 세 다리를 거쳐서 집이 되는 겁니다. 집을 짓겠다고 하고 완성해 놓는 데는 네 다리를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지구의 근본 자체가 이렇게 덩어리가 하나 있다면 무중력 상태에서 세파를 거치면서 돌아서, 이게 돌 자석이기 때문에, 자석이라는 건 뭘 뜻하느냐 하면 금석과 더불어 이 철근이 전부 한데 합쳐져서 구워져 가지곤 다시 됐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여기에 붙어 돌아가는 문제도 역시, 그게 한데 붙어서 거기에서는 근본이 무슨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가 이런 문젭니다. 그러면 그 근본의 문제…, 근본은 즉 말하자면 사무, 자동력. 부동력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사무 부동력, 사유 부동력, 이것이 한데 합쳐진 바로 '심력' 이라고 봅니다.

그건 왜? 이것이 부동력이기 때문에, 지금 얘기한 대로 한, 이 생각이 이렇게 살아 있는 것이지 죽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다 갖춰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력이라고 했고 무 부동력이라고 했고, 사유 부동력, 이것은 발전을 하려는 그런 계시가 지금 있는 것이죠. 이것을 능히 가지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 양면을 다 가지고 부동해서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바로 한 계단 없는 계단이 있습니다. 이 지구 상태가 그렇게 생겼습니다. 우리 인간처럼 말입니다.

이것이 요 근본 자릴 놔 놓고선 요기 하나 둘, 삼겹살처럼. 그러면 왜 삼 겹 살이라고 얘길 했는가? 요기는 철이 들었다면 요기는 바로 동해서 같이 이것이, 즉 말하자면 금속이 들었고, 금속이 아니라 금속과 금속, 이것이 보통 같이 이렇게 있는가 하면 세세히 이렇게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세세히 들어 있는데 이 세 층 가운데에 세 개의 계층이 이렇게 있다는 얘깁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 자체가 삼 겹 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삼 겹 살은 삼 겹 살인데 바로 자기한테 삼 겹 살이 다 붙어 있다는 얘기죠. 근본처에 다 붙어 있다는 얘깁니다. 근데 이 삼 겹 살에서 무엇을 운영하느냐는 얘깁니다.

이것이 일 단계에서는 그 근본에서 떠나서, 전자 자동력, 즉 말하자면 전자 자동기 또는 무전통신기, 지금 현대 말로. 이 무전통신기하고 전자 자동기하고 이것이 한데 합쳐서, 여기도 사무 사유가 들어갑니다마는 이것을 포함해서, 즉 말하자면 오동, 력이라고 해도 됩니다, 오동력. 동, 한데 합쳐서 돌아간다는 얘깁니다. 나는 시체 이름도 모르지만, 이 이름도 저 이름도 다 떠나서 우리가 이해만 하면 돼요. 오동 자동기. 자동력! 그럼 오동 자동력이라면 그냥 그렇게 같이 합해서 돌아간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다음 단계 이것은, 즉 말하자면 자력, 각이라고 할까? 자동력은 언제나 거기 떠나지 않아요, 어디든지. 또는 정각, 력. 즉 말하자면 '정각력' 하는 건 똑바로 인도하는 그런 이치죠? 정각력, 천안력, 천이력, 또는 타심력, 숙명력, 신족력을 거기에서 통력을 해 가지고 가는 것이 바로 이 단계. 근본을 놔두고 일 단계, 여기 이 단계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그 력을 가지고 통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다음 단계는, 내가 어저께 뱃가죽같이 그렇다고 그랬죠? 아주 가죽이 그렇게 두껍다 이런 말을 했죠. 그러면 그 단계에서는 촉각, 즉 말하자면 지각으로부터 촉각으로부터 감각으로부터 또는 식각으로부터 또는 청각, 아니 저, 뭡니까. 자꾸 말하다가도 잊어버려서. 내가 뭐라 그랬죠? 지각, 감각, 촉각, 식각, 청각, 이 청각이라는 건 아주 초를 다투어서 여부없이 깨끗하게, 우리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을 깨끗하게 정리한다는 얘깁니다. 이 다섯 가지의 문제가 거론되고 돌아가죠.

이 다섯 가지의 문제가 거론되는데, 여기에서 이 다섯 가지의 문제로 인해서 지각적으로 이게 통합이 되는 겁니다, 지각으로. 통합이 돼서 이것을 발휘하는 데는 들이고 내고 하는 능력만 자석으로서 돼 있는 게 아니라, 아까 처음에 일 단계에서 얘기했듯이 거기는 자동무전기, 전자 자동기, 참! 자꾸 말이 헤매 가네. 그리고 무전통신기, 이것이 붙어 돌아갑니다. 이건 처음이나 여기나 똑같이 돌아가면서 행하는 거니까 이것이 같이 돌아가면서 이 위에서 맨 밑으로 내려옵니다. 일 단계로 내려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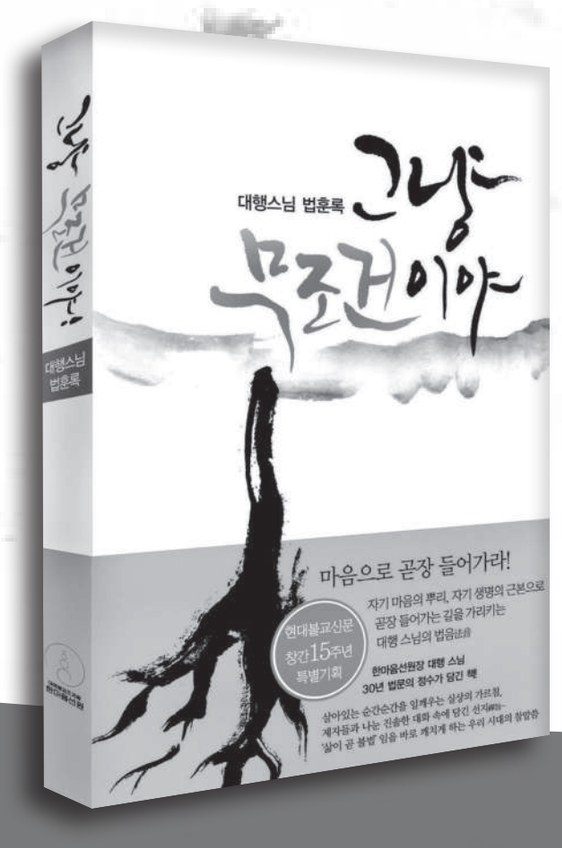
일 단계에서 이 근본에게 자꾸 이것이, 즉 말하자면 하루에, 우리가 일 초에 한 번이라고 한다면 백 년이 될 수도 있고 천 년이 될 수도 있고, 삼백 년이 될 수도 있고 삼천 년이 될 수도 있고, 삼만 년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비벼 돌아갑니다. 한번 탁 쳤다 하면 이것은, 즉 말하자면 자동기로서, 전자 자동기로서 이것이 불이 나게 돼 있습니다. 불이 나게 되면 여기에서 공급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온통 이것이 그냥, 그 뜨거운 불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불덩어리죠.

그러면 그 온기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층이 이렇게 삼 층이 있다면 그리로, 요새 우리 저 아래서 기름을 때는데 밑에서 때면 위층까지 올라가죠? 허허허…. 그런데 그거와 같은데도, 그거와는 조금 달리, 여기에서 비벼서 큰 불덩어리가 이글이글한 그것이 피게 되면 공기라는 그 자체가 오른단 말입니다. 그건 왜냐하면 여기서 전자 자동기로서 또는 무전통신기로서 그 역할을 하는 거야. 이것이 그 역할을 해서, 즉 말하자면 동맥 정맥이 오르고 내리듯이 올리면, 언제든지 뜨거운 걸 올리면 찬 게 내려오고 또 찬 것이 뜨겁게 돼서 올라가면 또 찬 게 내려오고, 정맥 동맥이 오르고 내리듯 그렇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올리고 내리고 하기 때문에 위층 옥상에서 사는 사람도 생명을 이루고 이렇게 움죽거리고 살 수 있게끔 되는 원인이 생겼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맨 끄트머리에 아까 지각으로부터 그렇게 모든 것을 조립해서 나갈 수 있다 하는 것은, 즉 말하자면 거기에서 오르는 압력 때문에 그 위에서는 누르지 않고는 안 된다 이거야. 너무 이렇게 발산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지금 살고 있는 이 마음 자체의 능력, 그리고 또 무중력으로서 우리는 근본을 가지고 있고, 또는 이 땅이 생긴 원인, 물이 생긴 원인 그런 것도 다…. 거기에서 우리 이런 거를 한번 예를 들어서 얘기해 보죠. 퇴비를 재는데 속에서는 뜨겁게 삭아서 가스가 나오지만 겉으로는 그게 삭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삭지 않는 것은 삭지 않는 것대로 위에 그냥 있다는 얘기죠. 속에서만 그렇게 되지. 그러면 속에서 또 발산돼서 나오는 원인이, 이 흙이 몰쳐졌다는 얘

☞ 22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삶이 곧 불법'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시대의 참 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www.hyunbulshop.com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6길 36, 606호 현대불교 현불샵

주인공을 믿고 하나하나 다가오는 대로 끊으려 하지 말고 녹여라

☞ 21면에서 계속

깁니다. 몰쳐지고 물이 생기고 이렇게 되니까 이것을 끌고 돌아가는 자동기는 어떠한 점에서 돌아갈까?

어저께도 얘기했죠? 물이 우리 겉껍데기의 뱃가죽 같다고요. 그러면 안에서 나오는 그 압력으로 들여보내고도 남는 찌꺼기의, 찌꺼기라고 할 수는 없지만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겠죠. 거기에서 어떠한 알른알른한, 즉 말하자면 자석의 풀잎이라고 할까. 하여튼 바나나 껍질 이렇게 해 놓은 것처럼 모두가 그런 알른알른한 어떠한, 이름을 그냥 자석풀이라고 할게요. 위에 그 압력으로 인해서 생기는 자석풀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으로써 우리는 그 위에서 지금 사는 거예요. 그럼 우린 옥상 위에서 사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기 때문에 저 별을 볼 수가 있고 모두가 있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거기에서 어떠한 압력으로 인해서 여기에서 어떠한 부동한 뭐가 '아, 이건 이것대로 하지.' 하다가 잘못되죠, 여러분이 살아나가는 것도. 그러면 자동기가, 이게 자동적으로 돌아가면서도 자기 마음이, 즉 말하자면 서로가 마음이 맞지 않아서 충돌이 돼 가지고 일어나듯이 이거는 충돌이 돼 가지고 화산 같은 이런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충돌이 되면 거죽 바깥으로 막 나오죠. 거죽 바깥으로 나와 가지고 아주 피해를 많이 줬지만 그것으로 여러 가지 응용을 하고 있죠. 그게 화산으로 나와 가지고 모든 산을 만들고 또 산을 만드는 반면에 물로 다가 또 그냥 장판을 하게 되죠. 그게 인제 오르니까, 화산이 오르니까 구름이 되고 물이 되고 또 증발되고 이렇게 해서 이것이 또 깎여 내리고 또 뭉개지고 이럭하다 보니까 물로도 쓸리고 그냥 여러 가지로 세파를 헤쳐 가면서 모래도 생기고 자갈도 생기고 또는 밑의 생명도 생기고 이 모두가, 지금 이 땅덩어리가 이렇게 생긴 것도 바로 그 위에 떠 있단 말입니다, 응? 그게 만약에 압력이 올라오지 않는다면 우리가 떠 있을 수가 없어요. 그 공기에 의해서, 우리는 공기를 지금 그렇게 누르고 있는 폭이나 마찬가진데, 저절로 거기의 압력이 올라가선 내리눌리는데도 우리가 그걸 모르고 있는 것은, 그게 없다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이렇게 자유자재할 수가 없거든. 이것이 얼마나 신기하고 얼마나 묘하냐는 얘깁니다.

이 묘법을 팔만대장경에다 그렇게 실어 놨건만 우리는 도대체 학술로만 경력을 쌓으려고 합니다. 계율이 청정하다 하는 것은 더럽고 깨끗한 것이, 작고 크고, 또는 모든 게 하나도 없는 자리에서 평등이요, 진리요, 이것이 청정한 법이라는 거지, 더럽고 깨끗하고, 웃고 즐기고 또는 아주 괴롭고 하는 데서 이것이 갈라져서 청정한 거라고 한 건 아니거든. 자비라는 것도 그렇고. 그러면 이 깨끗하고 더러운 걸 한데 합쳐 가지고 이게 자비라. 웃고 눈물 흘리고 하는 거를 한꺼번에 합쳐서 이게 자비지, 자비라는 것이 내가 웃고 즐기고 좋고 잘해 주고 이러는 것만이 자비가 아니다 이거야. 죽이고 살리는 게 전부 자비야. 근본으로 따지게 되면 조금도 어긋나는 점이 없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살면서 저 하늘을 쳐다보면서 '별 하나 나 하나, 별 둘 나 둘' 이렇게도 할 수 있는 원인이 바로 그렇게 복잡하게 있으면서도, 큰 지구 덩어리가 그렇게 복잡하게 있는데 우리 이 몸, 이 자체가 또 복잡하지 않습니까? 우리 살아나가는 한 가정도 복잡하지마는, 세계적으로도 복잡하지마는 국내적으로도 복잡하다. 사회적으로도 모든 게 복잡하다. 이 복잡한 원인들이 한데 합쳐서 돌아가는 원인이 어딨느냐는 얘깁니다.

그러니 이거 심각하지 않게 그냥 그저 살았으니까 '이렇게 사는 건가 보다. 뭐, 이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들 하시고 아무렇게나 자기를 망각하고 산다면 절대 이거는 자기 본분을 지키지 못하며 자기 몸뚱이를 자유롭게 끌고 다니지 못하며, 나아가서는 남의 몸뚱이도 건져 줄 수 없고, 세 치를 몰라서 말입니다. 우리가 남의 일을 보고 물질적으로 도와주긴 해도, 그것이 자비라고? 천만의 말씀이야! 무주상 보시를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어야 자비지, 그 준 것은 그저 보시 정도로, 우리가 사회적인 문제에서 이런 거는 무주상 보시가 아니라 보시야, 그냥. 그래서 대가는 받을지언정, 복은 받을지언정 이 공 도리의 뜻은, 전체 그건 까마득한 거라.

그러니 여러분의 본분 자체가 있기 때문에, 작년 콩씨를 올봄에 심었더니 콩나무로 화했더라. 콩나무로 화했더니 그 어리석은 콩나무는 바로 저한테 달린 콩씨가 있는 걸 모르고 작년 콩씨를 찾더라. 세상에 이렇게 화해서 돌아가는 이치를…. 그래서 거기에 근본이 있기 때문에 뭐든지 여기 단계 단계 올라와서 우리가 이렇게 육지에서 사는데, 때로는 이런 문제들이 많죠.

화산 같은 게 일어나지 않고도 무기적 무기적 무기적 해 가지고 어느 때인가는 탁 터지면서 산이 물이 되고 물이 산이 되고 들이 되고 이렇게 바뀌지는 때가 있죠. 이럭할 때는 수십 명, 수만 명이 그냥 땅이 갈라지는 대로 들어가는 거야. 이래도 여러분이 자기를 망각하겠습니까?

우리 스님네들은 예를 들어서 한 번 머리 깎고 입산할 때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불사릅니다. "불사르고" 하는 뜻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자석과 같은 마음이 있어서 그 마음에 의해서 애정을 끊지 못하고 착을 끊지 못해서 입산을 못 하는데 그 애정과 착을 다 떨어 버리고서 입산을 할 때는 첫 단계의 입산이라. 초발심에서 생기는 그 입산으로서 나왔으니 '어린 애가 머리를 깎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공손히 예의를 갖추어야 한다'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당장 머리 깎고 들어오라면 아마 그것도 어려울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스님네들은 거기에 머무를 게 아니라 또 거기에서 한층 더 나아가서 겸손해야 합니다. 자기를 내려놓지도 말고 위로 올려놓지도 말고 중도에서 항상 겸손하고 따뜻하고, 봄날이라야 됩니다. 봄이라야 꽃이 피지 봄이 아니고 겨울이라면, 어느 때는 금방 변덕이 나서 봄이 됐다가 어느 때는 금방 겨울이 되고 이런다면 그것은 가치를 잃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배우면서 생활을 편안히 하는 분들은 참 아주 편안하면서도 자동적으로 돌아가는데 그 얼마나 좋습니까? 좋은 양반들은 좋아하고 그 뜻을 모르는 분들은 "아이고, 이거 뭘 우리가 알아야지. 뭐 어떻게 돼 돌아가는 건지, 난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러거든. 뭐가 뭔지 모르겠다는 그 소리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이거야. 어디서부터 나오기에 그러느냐 이거야. 그걸 자기 안으로 한번 되새겨 보라 이거야. 망종으로서 살기도 하고, 잘 살고 웃고 즐기고 괴롭고 이랬던 그 모든 게 어디로부터 나왔는가?

하나하나 우리는 그냥 과감히 나갈 수가 있어야지, 점차적으로. 그래서 점차가 있어요. 점차적으로 다 용광로에다 넣듯이, 자기를 자기가 믿고, 주인공을 믿고 모든 것을 하나하나 다가오는 대로, 머리의 망상을 끊으려고 하지 말고 녹여라 이거야. 끊으려고 하면 끊어지나? 인연줄이 끊어져, 그게? 얽히고설킨 인연줄은 절대로 끊으려고 하면 끊어지지 않아. 둘로 본다면 끊어지지 않을 것이고 둘로 보지 않는다면 녹아 버릴 것이다 이거야, 모든 게.

그럼으로써 거기에서 오온이 자동적으로 돌아가고 자동적으로 됐을 때에 비로소 거기에서 대의정이 날 수도 있는 거야. 내가 탄생이 된 뒤에야 그때 정말 공부할 수 있는 그 길이 있는 거라. 그래서 공부를 할 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해서, 배 속에 있다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해서 금방 어른이 되는 건 아니거든. 그래서 견성이라는 게 죽음에 의해서야 견성이 된다. 그러면 견성이라는 건 '한 번 죽기 어려워라 했더니 두 번 죽기 더 어렵더라.' 이런 뜻, 이것을 다시 한번 새겨 보시도록 해 보세요.

우리가 한 번 죽기 어려워라 했더니, 나 혼자 깨달을 때는 쥐고 갈 수 있는 지팡이라도 있어서 좋았는데 깨닫고 보니까, 낳아 놓고 보니깐 지팡이도 없어졌더라. 참 이렇게 허망하니 이게 돌면서 참 힘드는 거죠. 그래서 같이 죽기 어렵더라. 이 세상만사 일체 만물과 더불어, 나와 더불어 같이 죽기 어렵더라. 이것을 같이 죽기 위해서 하나하나 점차적으로 보림을 하면서 체험을 하면서 돌아가면서, 자꾸 놓으면서 보림을 하는 거라. 그래서 육조스님께서도 그러고 달마 대사께서도 그러고 모든 스님네들이 깨쳐 가지고도 보림하는 데에 몇 년이 걸려도, 몇 년이라는 말 없이 그냥 그대로 여여하게 걸었으면서도 체험을 하면서 보림을 했더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이 뜻을 모른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나왔다는, 인간이라는 보람을 느끼지 못하고 삶의 뜻을 모르고 세세생생에 끄달리면서, 그 인연줄에 얽매이면서 유전과 또는 악령과 세균과 모든 것이 달려드는 대로 육체로는 그런 부담을 가지면서, 내가 집주인이 없으니 어찌 그걸 막을 수 있겠느냐 이거야. 녹이려야 녹일 수가 있나 막으려야 막을 수가 있나. 눈에 보여야 막지. 들려야 막지, 응? 모든 게 이렇게 돌아가고 눈이 컴컴해서 암흑이니 어디가 좋은 줄 알고 어떻게 내가 갈 수 있나? 자유자재권을 가지고 가야 할 텐데 아, 캄캄하고 암흑이거든. 어떻게 가느냐 말이야. 지금 암흑인 사람은 요다음에도 암흑이지. 지금 눈이 뜨여야 요다음에도 눈이 있는 거지, 지금 눈이 멀었는데 어떻게 눈이 떠질 수가 있을까? 몸을 벗었다고 해서, 죽었다고 해서 그게 눈이 떠질 수가 있을까?

(녹음 안됨) … 우리가 방생이다, 또 떡을 놓고 밥을 놓고 비는 것만 알아서는 절대로 안 돼. 부처님 법당에 들르면 그 부처님 몸과 내 몸이 둘이 아니요, 부처님 마음과 내 마음이 둘이 아닐지언대 그리로 한데 뭉쳐서, 한데 합쳐서 '주인공!' 해도 좋고, 이 삼라대천세계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예 나 한테로 부처님을 끌어당겨서 하나로 또 '주인공!' 해도 좋고, 이건 자유자재라! 그래서 삼배를 부처님한테 올려도 그것이 자삼보한테 올리는 거지 누구한테 올리는 게 아니다 이거야. 자부처한테 올리는 거다 이거야. 그런데 누가 받았다고 '내가 절했지.' 이런 위세를 부리고 '내가 시주했지.' 이런 위세나 부리고 '내가 얼마 했는데 이렇게 안 돼?' 안 되는 것도 되는 것도 자기 뿌리만 싱싱하다면 가지도 이파리도 다 싱싱할 것을 왜, 누구한테다 해 달라 하느냐 말이야.

물론 그 한 점의 마음 속에 전부 우주 삼천대천세계 일체 만물만생이, 유생 무생이 다 들어 있고 가깝게 있기 때문에 내가 딴 데로 갈 필요가 없단 얘기야. 그렇다고 해서 불법을 믿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절에 가되 그럴수록 더 예의는 갖추어야 하고 그럴수록 받들어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위로 모시라는 게 아니야. 위로 모시게 되면 언제나 버릴 때도 있지만 '내 몸과 둘이 아니다. 내 마음과 둘이 아니다. 내 아픔과 둘이 아니다. 모든 것이 나와 둘이 아니다.' 라고 생각했을 때 저절로 섬기는 마음이 생기고 저절로 지혜가 생기고 저절로 그 정법의 이치를 알게 되고, 자비가 스스로 나오고 무주상 보시가 스스로 나오고…. 이것은 공의 이치를 생동력 있게, 우리가 '삶의 보람이 바로 이거로구나.' 하고 알게끔 되는 것이라 이겁니다.

모두가 이 세상에 나왔다가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인간으로 나와서 그 뜻을 모르고 우리가 어떻게 부처님 제자라고 하며 어찌 인간이라고 하며, 자연 시대에서 인간으로서, 일등 동물로서의 활약을 한다고 말을 하겠습니까? 하면서도 아는 사람이 있으면 서로 도반들끼리 토론을 하고 모르는 사람한테는 내가 몰라 주는 것이 의당히 겸손입니다. 모르는 사람 앞에는 나도 모르고, 아는 사람 앞에는 나도 동등하게 알고, 아주 무지하게 모르는 사람에게 나도 무지하고, 꽃이라면 꽃이 내가 돼 주고 뱀이라면 뱀이 내가 돼 주고, 또는 짐승이라면 짐승이 내가 돼 주고 또 내가 짐승이 돼 주고, 모든 게 하나하나 미생물에서부터 나 아님이 없이 그렇게 됐을 때 비로소 이것은 보살행이며 또는 세존의 자리라고 합니다. 이 모두를 모습을 가지고 논의하지 말고 그 아리따운 마음을 가지고 봄날을 기대하면서 오늘 이걸로써 그치겠습니다.

얽히고설킨 인연줄은 끊으려 하면 절대로 끊어지지 않아.
둘로 본다면 끊어지지 않을 것이고
둘로 보지 않는다면 녹아 버릴 것이다 이거야, 모든 게

※위 법문은 1986년 3월 10일 일반 법회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전국 주요 서점과 인터넷 서점에서 동시 판매중!

다만 그윽한 마음을 내라

대행 스님 법문의 정수가 담긴
2019년 최고의 결정판!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 초창기 법문의
핵심을 모아 한 권으로 엮은 책

삶의 지침이 될 지혜의 가르침들이
내 마음에 꽃이 되어 피어나다!

한마음선원 출판부 엮음 | 양장본 | 총 384면 | 책값 18,000원

현대불교신문사 02)2004-8204 무진향 031)470-3118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용수 스님의 **아침편지**

감정 바라보기와 통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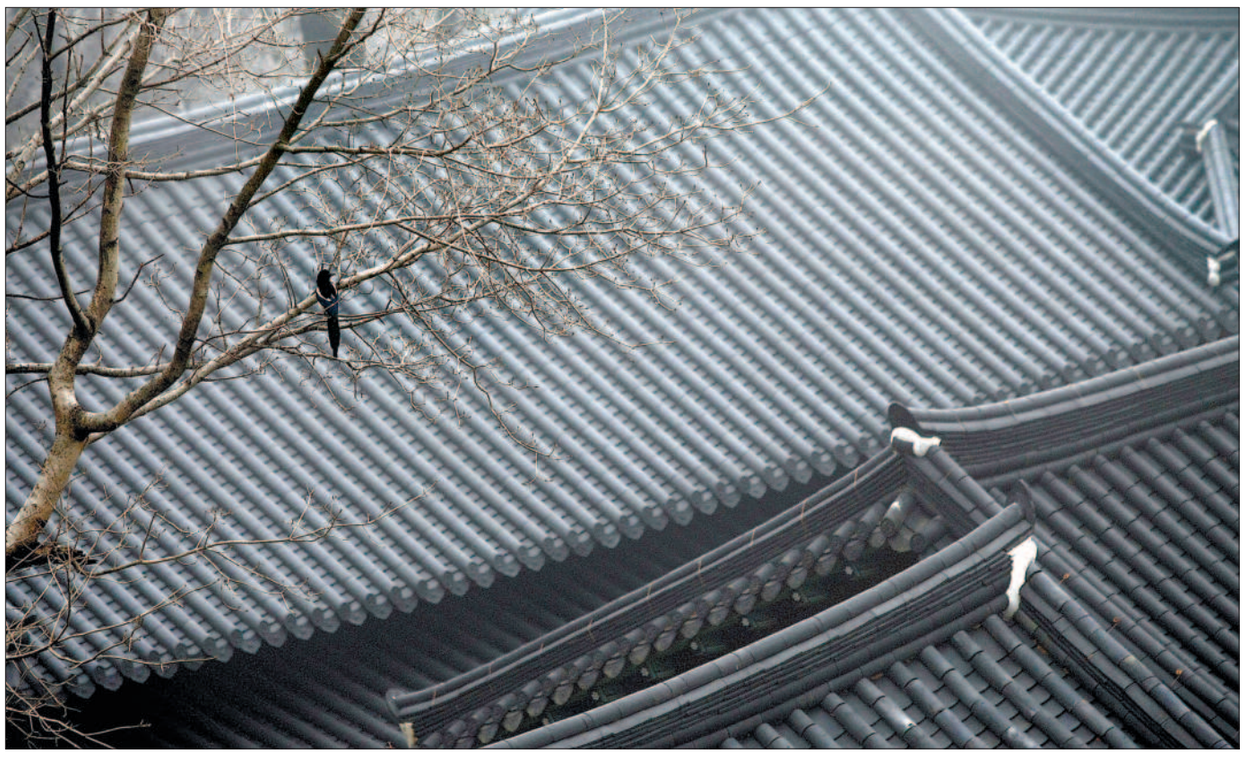
감정을 다루는 3단계를 소개합니다.

* 이름 붙이기: 분노이든 슬픔이든 불안이든 조용히 이름을 외워봅니다. 슬픔, 슬픔, 슬픔

* 괜찮아: 슬픔이 있어도 괜찮아요. 감정을 허용합니다. 조용히 외워봅니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 몸으로 돌아옵니다. 머리에서 나와서 몸과 함께 합니다. 머리와 함께 하는 것이 망상이고 몸과 함께 하는 것이 명상입니다. 몸에서 어떤 느낌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몸도 마음도 편안하게 가집니다.

이와 같이 감정을 객관적으로 친절하게 바라 볼 수 있다면 통찰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해가 되면 감정이 풀립니다.





진광 스님의 **길 위의 풍경들**

④ 투르판서 우루무치까지

천축구법승 행각 되새기다

일연 스님의 저서 〈삼국유사〉 '귀축제사조(歸竺諸師條)' 에서 "외로운 배 달빛타고 몇 번이나 떠나갔건만, 이제껏 구름따라 한 석장(錫杖)도 돌아오지 못했네"라고 찬(讚)했다. 이렇듯 천축구법승이 그리 많았건만 다시 고국 땅을 밟은 이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그들을 끊임없이 천축으로의 구법여행을 떠나게 하였을까? 오직 진리를 향한 구도열정과 보살행이 있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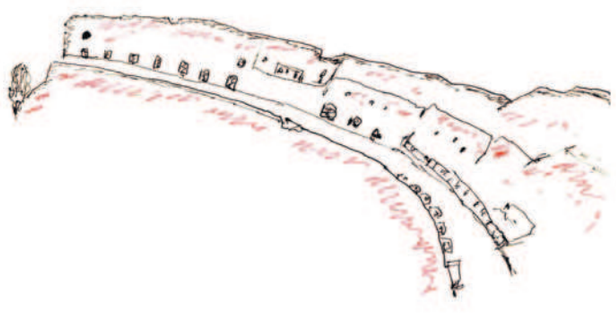
법현(法顯)의 '불국기(佛國記)' 에 "사하(沙河: 고비사막)에는 원귀와 열풍이 심하여 이를 만나면 모두 죽고 한사람도 살아남지 못한다. 위로는 나는 새가 없고 아래로는 달리는 짐승이 없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망망하여 가야할 길을 찾으려 해도 어디로 가야할지를 알 수가 없고, 오직 언제 이 길을 가다 죽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죽은 사람의 고골(枯骨)만이 길을 가리키는 표지가 되어준다"라고 했다. 지금 우리도 이 길 위에서 그들과 더불어 함께하는 것이리다.

투르판(吐魯番)은 한나라부터 당나라 시대의 유적인 고창고성과 교하고성, 이스타나 고분이 있고, 서유기의 전설이 남아있는 화염산과 베제클릭 천불동 등의 유적이 있는 곳이다. 옛날 현장법사가 이곳 고창국(高昌國)에 들러 머무르기도 했던 곳으로 유명하다. 특히 이곳은 천산의 눈 녹은 물을 끌어오는 지하수로인 카레즈 관개시설과 그 물로 기른 질 좋은 포도로도 유명한 곳이다.

고창고성을 둘러보고는 입구의 나무그늘 아래



투루판 석굴(베제크릭 석굴)에 있던 서역 영향을 받은 보살상의 모습.



투르판 베재크릭(아름답게 장식된 집) 석굴 천불동 석굴 전경.

위구르 회족(回族) 청년과 앉아 이야기를 나눈다. 그 광경을 보고 대중 스님들이 누가 진짜 이슬람인지 구분이 안된다고 놀려댄다. 세상 어느 곳을 가도 그 나라 사람과 비슷한 이 미친 존재감을 어찌해야 할런지 모르겠다. 심지어 몇 명의 스님들은 내 모자에 마오쩌둥의 얼굴이 새겨진 지폐를 내게 적선(?)하기까지 한다.

베제크릭 천불동 가는 길에 마치 붉은 화염이 치솟는 듯 한 화염산(火焰山)이 석양빛에 불타오르는 듯 하다. 중국 명나라 때의 오승은의 장편소설 〈서유기(西遊記)〉를 중국관영 CCTV가 방영한 적이 있는데, 그 때에 이곳 화염산에서 촬영을 한 까닭에 지금도 삼장법사와 손오공 등의 조각상이 남아있다.

베제크릭은 위구르어로 '아름답게 장식된 집' 이란 의미이다. 사실 이 57개의 석굴 안에는 아름다운 소조 조각과 벽화들이 장식되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벽화들이 긁힌 자국 투성이에다 떼어간 자국들로 인해 흉물스럽기 그지없다. 일명 '실크로드의 악마' 들로 불리는 독일의 르콕, 일본의 오오타니, 러시아의 올젠버그, 영국의 스타인 등이 소조불상이나 벽화들을 마구 절취해가서 현재는 세계도처를 유랑하고 있는 형편이다. 우리나라 국립중앙박물관에도 벽화 단편이 몇 점 보관되어 있는데. 오오타니가 훔쳐간 것을 누군가 광산채굴권을 따내려 조선총독부에 뇌물로 주었고, 해방 후 국가로 귀속되었다고 한다.

베제크릭 천불동 곳곳에 훼손
서구 열강 · 이교도 훼불 확인해
사막 바람소리엔 무상함만이…

그 아름답던 베제크릭 석굴은 폐허가 된 채 양이나 염소의 짐승우리로 사용되며 황폐화 되어서 보는 이로 하여금 슬픔과 분노를 일으킨다. 지금이라도 우리나라 국립박물관에 있는 벽화를 대통령 순방 시 중국에 반환하면 어떨까 생각한다. 우리가 훔쳐온 것도 아니고 장물을 잠시 보관했을 뿐이니 그리 한다면 다른 나라들도 양심에 가책을 느껴 반환하지 않을까 싶은 것이다.

베제크릭 석굴을 둘러본 후에 잠시 모여 예불을 올리고는 모두 좌선을 하기 위해 자리에 앉게 했다. 그야말로 흙구덩이인지라 투덜대는데 설정 스님께서 먼저 신발을 벗고 좌정하니 모두들 별 말 없이 따라 앉는다. 그리고 20여 분간 정좌한 채 사막의 흙먼지와 바람소리를 들으며 나 자신을 되돌아보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마치 실크로드의 역사와 천축구법승의 여정, 그리고 김구경 박사와 한락연 미술가로 인해 마치 한 생을 다 살아버린 그런 느낌이었다.

입정이 끝난 뒤에 설정 스님은 베제크릭 석굴의 도굴역사와 의미에 대해 감동적인 법문이 이어졌다. 모두들 감동해 흐느끼는 듯한 속울음이 들려온다. 천축구법승의 구법행각과 수행자의 삶에 대한 스님의 고구정녕한 사자후에 온 대중이 감격과 희열에 젖어 새로운 신심과 원력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다.

해질녘 시내의 포도농장에 들러 건포도 등을 맛보며 선물로 샀다. 집 앞에는 동네 아이들이 신기한 듯이 몰려와 장사진을 이룬다. 그중에 어린 동생을 자신의 허리에 매달고 온 소녀의 눈동자가 맑고 아름답기만 하다. 이 아이들이 부디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나기를 마음 속 깊이 빌고 또 빌어본다. 저녁에는 시내 공원에 나가 풍등을 하늘로 띄우며 소원을 빌었다. 불붙은 풍등이 하늘로 날아올라 마치 북두칠성처럼 반짝이며 유영하는 모습이 아름답기만 하다.

우리 일행은 위구르 자치구의 성도인 우루무치에 다다랐다. 시내 한 복판의 바자르(시장)에서 화덕에 구운 만두와 볶음밥 등을 사 먹고는 근처의 우루무치 천지(天池)로 향했다. 민족의 영산 백두산의 천지를 닮은 듯한 모습의 천지에는 설산이 호수에 비춰 더욱 신비롭고 아름다운 곳이다. 이곳에서 공안과 협상을 해서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는 노란 천을 매달고 '세월호 희생자 추모제' 를 봉행하였다. 특히 순례 중 실크로드 회화와 벽화를 설명한 유근자 교수가 이번에 조카를 잃었다며 눈물 흘리시는 모습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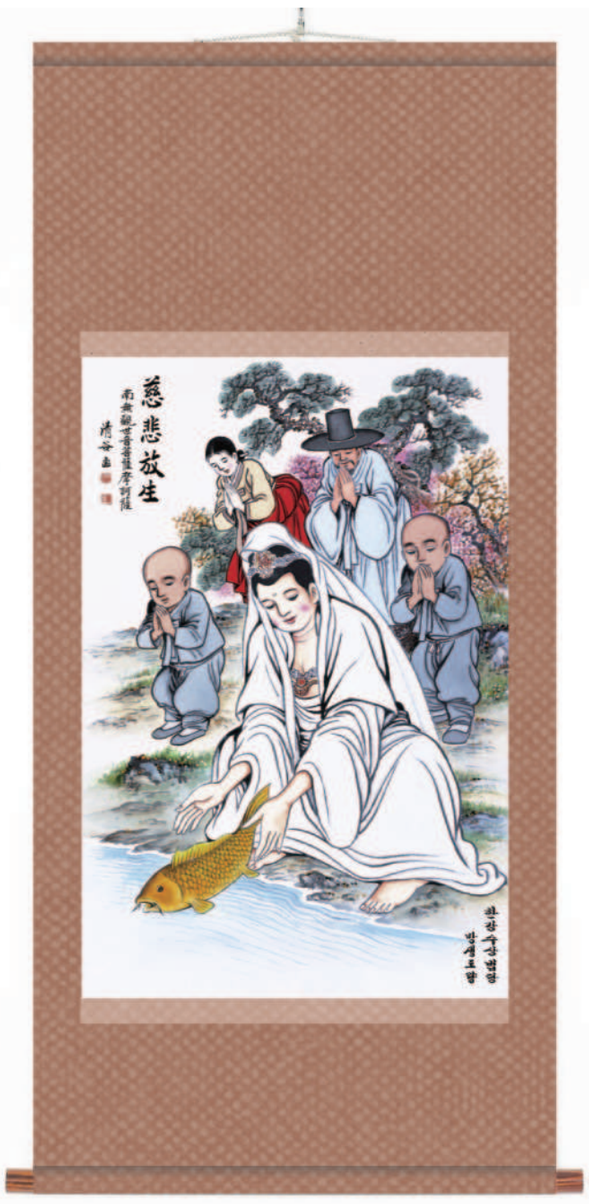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우리는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부디 미처 꽃을 피워보지도 못한 우리 아이들이 천 개의 바람이 되어 저 하늘에서는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빌어본다. 〈조계종 교육부장〉



"복과 지혜를 구하십시요"

달마도와 포대화상도, 나한도, 동자승 등 수많은 불교그림들을 그려온 청곡 이한동 화백님의 작품을 집안에 모셔두면 그림에서 발산하는 기운은 가정을 평화롭게 하고 가족의 건강과 어려운 일들을 순조롭게 풀어줄 것이며 만사가 형통할 것입니다.



1. 관세음보살



2. 16나한



3. 황룡나한 / 복호나한

길이 110㎝ 폭 54㎝ 가격 100,000원이며 두점이상 구입시 90,000원 나한도를 구입하시는 분에게는 16나한이나 18나한도의 설명서를 드립니다.

一切衆生皆有佛性 (일체중생개유)

1. 불성 모든 중생은 불성을 지니고 있으며 자비와 방생은 불자라면 누구나 지녀야 할 기본성품이며 관세음보살께서 방생하는 모습은 사부대중 모두에게 귀감이 될 것이다.

2. 나한은 아라한의 준말이며 그 중에서도 16나한은 가장 대표적인 나한이다. 나한은 해탈과 신통력을 두루 통달하였고 더 이상 열반에 들지 않고 영생을 누리며 많은 권속나한들과 함께 세상의 여러곳에 거처하며 불법을 수호하고 중생들의 복전이 되어 줄 것이다.

3. 황룡나한과 북호나한은 16나한과 함께 18나한으로 그려지기도 하며 황금색룡을 타고 다니며 착하고 부지런한 사람에게 복을 전해주는 황룡나한과 들어온 복을 지켜주고 삼재를 소멸하여 중생에게 수호신이 되어주는 복호나한 두분나한을 모셔두면 집안이 만사형통하여 하시는 사업과 자녀의 진학에도 크게 도움을 줄 것이다.



수강생 모집

청곡 이한동 화백님의 그림을 배우고 싶으신 분은 현불샵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의 거리라고 하는 서울 인사동에 미술 교육관을 개설하여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 주2일 월8일 동안 그림강의를 합니다. 수강료는 월10만원이며 그림 내용은 산수화, 풍속화, 달마도, 동자승 등을 지도하며 관심이 있으신 분은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TEL.02)2004-8216 / 계좌번호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